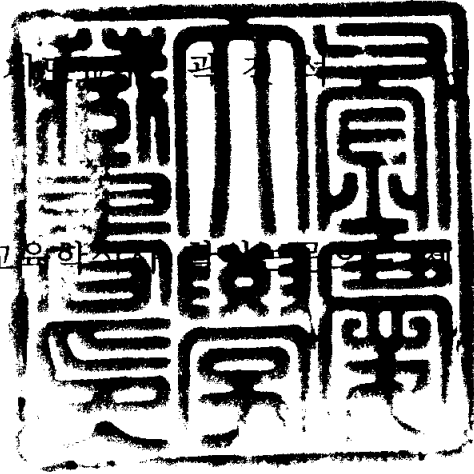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한중록』의 집필 의도와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정 권 균

정권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주 심 문학박사

김 쾌덕



위 원 문학박사

고 순희



위 원 문학박사

곽 진석



차례

I. 서론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3. 선행 연구 검토	4
II. 『한중록』의 시대 배경과 집필 의도	
1. 『한중록』의 시대 배경	7
1) 정치적 상황	7
2) 각 인물의 당파성	13
2. 『한중록』의 인물 묘사와 집필 의도	21
1) 인물 묘사	21
2) 『한중록』의 집필 의도	74
III. 『한중록』의 교수·학습 내용	
1. 『한중록』에 대한 인식도	87
2. 『한중록』의 교수·학습 내용 분석	90
1) 교과서 분석	90
2) 장르적 성격 규명	99
3. 집필 의도의 교수·학습	103
1) 집필 의도의 전달	103
2) 주요 부분의 교수·학습	106
3) 학습 지도안	117
IV. 결론	
참고문헌	126

The Purpose of Writing 『HanJungRok』 and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It.

Korean Education Major KwonKyun-Jeong
Instructing Professor Jinseok-kwak

Yeongjo and Jeongjo dynasty, when Hyekyeonggung Hong, the writer of 『Hanjungrok』, lived at the time, is the time of cultural full development, that is the Renaissance, but of change accelerating the collapse of feudalism, and of sensitive in political way showing the complicated conflicts among parties.

The demand of this situation resulted in the conflicts among parties. Then political world was divided into Noron. maternal relatives led by Yeongjo and Soron. Southern people led by Sadoseja.

This led to tragic Imohwabyeon, in which the son was killed in a grain box by the unprecedented father in 500 years of Choseon.

Under this situation, Hyekyeonggung Hong devoted herself to making her mother's family and son take the throne instead of trying to save her husband as a wife. Later when the situation was reversed and her mother's family was in danger, Hyekyeonggung Hong described Imohwabyeon based on the things at that time, which is 『Hanjungrok』.

But up to now, the studies of 『Hanjungrok』 was far limited to literary textbooks and side issues, which didn't show the intention of writing 『Hanjungrok』 closely due to the neglect of contemporary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closely the intention of Hyekyeonggung Hong writing 『Hanjungrok』 and teach high school students correctly the contents of 『Hanjungrok』 in high school

literary textbook.

The intention was to defense these people of her father Hong Bong-han, who was the leader of Noron Party, Hong In-han, who was her father's older brother, Jeong Hu-gyeom, who was the foster son of hwawandngju, and Hong Nak-im, who was her younger brother and deceived by Kim Kwan-ju and Kim Kwi-ju

Also, the studying method of this paper is through the study of the literature on 『choseonwangjosilrok』, 『danguitongryak』, and 『yeonry-eosilgisul』, which are the descriptions of Imohwabyeon.

In addition to it, the analyses of individual works and relationships among characters in 『Hanjungrok』, and of the book 『kyojuhanjungr-ok』 written by Jeong eun-im are included.

After analyzing 18 kinds of current literary textbooks closely, I will emphasize that students should have correct understandings of 『Hanjungrok』 with wrong analyses and the differences from historical facts avoided.

I. 서론

1. 문제 제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내재적 방법과 외재적 방법이 있다. 한편의 작품에는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작가의 생애나 작가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모든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주관적 정서나 사상이 배어들어 있을 뿐 아니라, 작가가 살았던 당시의 윤리나 습관, 관습이라 할 수 있는 시대사적 상황 또한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한 편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생애, 작가가 살았던 시대 상황까지도 가미된 작품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전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부합되지 않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 동안 작자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던 『의유당관북유람일기』의 경우, 양주동 박사의 주장이 통설처럼 되어 의유당 연안 김씨로 작가를 설명했지만, 몇 년 전 류탁일 교수에 의해 연안 김씨라는 주장이 부정되자 지금은 연안 김씨가 아닌 의유당이라는 당호만 작가로 등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중록』의 경우도 그러하다. 과연 『한중록』의 저자인 혜경궁 홍씨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한중록』을 진실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중록』과 역사적 문헌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고전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품에 나타난 사실과 역사적 사실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명료한 해답을 찾기가 의외로 복잡하다. 왜냐하면 작품 속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 사이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중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실과 임오 화변을 둘러싼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록』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기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혜경궁 홍씨가 기록한 『한중록』의 내용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중록』은 거짓 내용이 되며, 이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고전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는 고전 작품의 정확한 창작 의도를 파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 작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이 『한중록』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작품에 대한 진정한 애착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집필 의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의 『한중록』 연구는 지나치게 문학 텍스트 자체에 한정하거나, 지역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한중록』이 갖고 있는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등한시함으로써 『한중록』 집필 의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혜경궁 홍씨가 살았던 영·정조시기는 문화적으로는 문예부흥을 이루는 문화의 난숙기이면서, 사회·경제적으로는 봉건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했던 변화의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당쟁의 복잡한 양상이 미묘하게 얽혀있던 민감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당시의 권력 간의 세력다툼과 연계되어 심각한 권력 간 알력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영조를 중심으로 한 노론·외척과 사도세자와 소론·남인을 축으로 정계가 양분되었다.

그 결과 조선왕조 500여 년 사상 최대의 비극적 사건인 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죽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서 남편의 편에 서야 할 세자빈과 그의 친정은 세자의 편에 서지 않고, 세자를 죽인 왕의 命에 순응하여 세자의 죽음에 대해 수수방관하였다. 그로 인해 훗날 자신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그러한 친정 집안을 옹호·변호하기 위해 『한중록』이라는 궁중 문학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중록』의 집필 목적을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친정아버지인 노론 시파의 영수인 홍봉한과 仲父인 홍인한, 화완 옹주의 양아들 정후겸과 김관주, 김귀주 일파에게 붙어 일신을 망친 친정 동생인 홍낙임에 대한 변호와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현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한중록』의 내용을 올바르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고의 연구 방법으로는 임오 화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조선왕조실록』, 『당의통략』, 『연려실기술』 등의 문헌 조사와 『한중록』에 등장하는

각 인물의 행적과 등장 인물간의 상관관계, 당색을 중심으로 현존 14종의 이본 중, 정은임이 교주한 『교주 한중록』¹⁾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작품 분석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한다.

3. 선행 연구 검토

격동의 시기였던 영·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전대미문의 사건인 시아버지에 의한 남편의 죽음을 곁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던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자전적으로 기록한 책이 『한중록』이다.

그동안 학계에서 『한중록』의 성격 규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한중록』의 장르 구별조차 명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장르 문제만 하여도 수필, 소설, 혹은 실기문학으로 규정하는 등 학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동안 『한중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들 연구를 크게 대별해 보면 ① 『한중록』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한 것²⁾ ② 부자간, 왕과 세자와의 갈등 원인을 깊이 있게 穿鑿한 것³⁾ ③ 주제 및 이본에 대한 고찰, 구조와 갈등 양상, 궁중 풍속 등에 관한 것⁴⁾ ④ 각 편강 서술 방식에 대한 변별과 사도세자의 일대기를 통한 『한중록』의 서사성 규명⁵⁾ ⑤ 임오 화변을 중심으로 한 혜경궁 홍씨

1) 정은임, 『교주 한중록』, 이회, 2002.

2) 이규동, 「의대중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69.

3)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 구조」,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유종번, 「한중록 연구」,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4) 김용숙, 『한중록 연구』, 한국연구원, 1983.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의 연구』, 일지사, 1987.

의 삶의 태도에 관한 고찰⁶⁾ 등이 있다.

『한중록』에 관한 주된 논문이나 저서를 살펴보면, 김용숙의 『한중록 연구』와⁷⁾ 『조선조 궁중 풍속의 연구』⁸⁾ 그리고 『한중록 연구』⁹⁾, 최용기의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 구조」¹⁰⁾, 유종번의 「한중록 연구」¹¹⁾, 소재영의 「궁정문학의 비극성과 한중록」¹²⁾, 「한국고전소설작품론」¹³⁾, 주형예의 「한중록의 서사성 연구」¹⁴⁾, 이능우의 「한중록의 심리 분석」¹⁵⁾과 「한중록에 나타난 사불(四不)의 자화상」¹⁶⁾, 정은임의 「궁정실기문학연구」와¹⁷⁾ 「한중록에 나타난 실기 문학적 성격1-5」¹⁸⁾ 이금희의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정조 즉위 전후를 중심으로-」¹⁹⁾ 「한중록과 혜경궁 홍씨의 삶-기일을 중심으로-」²⁰⁾ 등이 있다.

5) 주형예, 「한중록의 서사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6) 이금희,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 국학자료원, 2001.

7) 김용숙, 『한중록 연구』, 한국연구원, 1983.

8)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의 연구』, 일지사, 1987.

9)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8.

10)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 구조」,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11) 유종번, 「한중록 연구」,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12) 소재영, 「궁정 문학의 비극성과 한중록」, 『민족문화연구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69.

13) 소재영, 「한국고전소설 작품론」, 『김진세선생 회갑기념논문집』, 1990.

14) 주형예, 「한중록의 서사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1996.

15) 이능우, 「한중록의 심리 분석」, 『문학춘추 12월호』, 1966.

16) 이능우, 「한중록에 나타난 사불의 자화상」, 『이화어문논집 8집』, 1986.

17) 정은임, 「궁정실기문학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18) 정은임, 「한중록에 나타난 실기 문학적 성격 1-5」, 『강남대논문집 26집』, 『인문과학논집 2집』, 『강남대논문집 29집』, 『강남대논문집 32집』, 『강남대논문집 34집』, 강남대학교, 1995, 1996, 1998, 1999.

19) 이금희,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정조 즉위를 중심으로-」, 『뚝어교육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7.

20) 이금희, 「한중록과 혜경궁 홍씨의 삶-기일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논문집 19집』, 상지대학교, 1998.

그런데 이러한 국문학계와는 달리 사학계에서는 그동안 임오 화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한중록』의 집필 의도를 자신의 친정 가문에 대한 신원 목적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¹⁾

21)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1997.

Ⅱ. 『한중록』의 시대 배경과 집필 의도

1. 『한중록』의 시대 배경

1) 정치적 상황

조선시대의 왕을 중심으로 한 전제 봉건군주제도는 항상 왕권과 신권의 대립갈등의 연속으로 신하들은 왕에게 덕을 요구했고 왕에게 있어 이러한 덕은 필요 불가결했지만, 그래도 왕에게 부여된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즉 왕에게 근본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귀속되었으며 국가의 모든 권한은 왕이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지대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왕의 업무 또한 과중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체력적 소모를 가져와 역대 왕들의 수명이 대부분 짧았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왕위 계승은 원칙적으로 적장자 승계가 원칙이었지만, 조선 27대 왕 중, 적장자 승계 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6명(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뿐이었고, 나머지 21명은 각기 다른 형태로 등극하였다. 즉 반정이나 반란에 의한 경우(중종과 인조, 태종과 세조)와 讓位의 경우(정종) 그리고 長子 대신에 次子가 등극한 경우(예종, 효종) 또 嫡長子인 世子를 廢하고 다른 세자를 세운 경우(세종)와 전왕이 살아 있는데 공식적으로 왕위를 이어 받은 경우(정종, 태종, 세종, 세조, 예종), 嫡子가 없어 庶子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광해군과 순조), 왕이 자식이 없어 왕족 중에서 왕위를 계승한 경우(선조, 영조, 철종, 고종), 세자가 일찍 죽어 세손이 왕위를 잇는 경우(성종, 정조, 헌종) 그리고 강제로 퇴위되어 왕이 밀려나고 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종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조선 왕조의 왕위 계승 방법을 보면, 정상적인 경우보다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과 세자와 혹은 종친과의 관계는 항상 대립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치권력이 일단 신료들에게 배분된 이상 권력을 둘러싼 국왕과 신료세력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다. 국왕은 혈통에 의해 계승되기 때문에 계승자의 능력에 따라 왕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료들은 시험을 거쳐 능력 있는 인재 위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발언권이 강했고 이에 따라, 신하들은 왕권을 제한하고 신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귀족·벌열 가문의 흥기와 유약한 국왕이 재위할 경우 특히 심했다. 이는 우리의 전 역사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그러는 가운데 같은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게 되는 데, 이것이 조선 시대 최대의 정치·사회적 폐단인 붕당(=당파)의 발생이다.

특히 숙종대부터의 당쟁은 사생 결단식이었기 때문에 붕당 발생 원인과 평가도 주로 부정적으로 기술되었다.

숙종의 뒤를 이은 경종은 숙종과 달리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어찌면 소론과 노론 사이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최대의 보신책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되지 않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시기였다.

그리고 일찍부터 온갖 풍상을 겪었고 병약했던 경종은 서른여섯이라는 한창 나이에 사망했다. 또한 경종은 후사를 생산할 수 없었던 관계로 경종의 비인 선의왕후 어씨는 종친 중에서 양자를 구해 연잉군에게 임금의 위를 물려주지 않으려 했고, 훗날 영조는 이 일을 참고로 하여 자신의 손자인 정조를 사도세자가 아닌 큰아들의 양자로 입적시킴으로써 혜경궁 홍씨가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 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혜경궁 홍씨

는 자신의 친정 가문이 멸문지화에 이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만약 이때 어씨의 계획이 성공되었다면, 훗날 혜경궁 홍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가 없다.

경종대의 극심한 당쟁 속에서 목숨을 겨우 연명한 영조는 왕위에 등극한 후 자신의 힘으로 당쟁을 뿌리 뽑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그리하여 그는 신료들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합문을 폐쇄하고 承政院과 三司의 청대를 거절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까지 당쟁 해소(필자=기유처분, 영조 5년 1729년)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는 한편 노론과 소론을 화해시키고, 모든 당파의 불화를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했다.

원래 탕평이란 말은 『書經』 ‘洪範의 九疇’ 중의 다섯 번째인 皇極의 도를 논한 말로 “偏이 없고 黨이 없으면, 王道는 蕩蕩하며, 黨이 없고 偏이 없으면 王道는 平平하다.”²²⁾라는 구절에서 ‘蕩’과 ‘平’을 조합한 어휘로 왕도는 공평무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에 관한 노력은 매우 힘들고 험난하기만 했다. 영조는 관리를 등용할 때 雙舉互對라 하여 노론에서 한 사람을 등용하면 소론에서도 한 사람을 등용하고, 때로는 남인과 북인 등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했다.

그리고 그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²³⁾라고 하여 영조 18년(1742년) 성균관의 반수교에 ‘蕩平碑’를 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숙종에 의해 단행된 병신처분(필자=숙종 17년, 소론을 배격하고 노론을 중용한 처분)의 후유증이 경종과 영조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나타나

22)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23) 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

기 시작하였다. 경종과 영조 이전의 당파 간의 시비는 주로 예송과 師門에 관한 시비였기에 변명의 여지라도 있었지만, 경종과 영조대의 정치적 쟁점은 이른바 忠逆시비였다.

따라서 총역시비는 임금에 대한 충심과 역심을 가늠하는 것이므로 이는 생사를 넘나드는 정치적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숙종이 뿌린 총역시비는 영조대의 辛壬獄事(필자=소론 축출과 노론 등용)를 시작으로 丁未換局(필자=노론에 대한 실망과 염증으로 乙巳處分이 백지화되고 소론이 집권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던 차에 소론의 일부 급진 세력과 남인이 주동이 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인좌의 난으로 인해 다시 한번 당쟁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영조는 “지금 역적의 변고가 당론에서 일어났다. 무릇 이때 당론을 자처하는 자는 피차를 막론하고 다 역적이므로 마땅히 머리를 베어서 내걸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자 노론이 이때부터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²⁴⁾라 하여 당쟁이 잠잠해졌다고 한다.

그래도 당쟁이 끊이지 않자 영조는 庚申處分(필자=소론에 의해 자신의 경종 독살설에 관한 무욕 판정을 유도해내고 세제의 대리청정을 합리화한 처분)을 영조 16년(1740년)에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그 뒤에도 영조는 끊임없는 왕권의 정통성에 시달리게 되는데 영조31년(1755년) 乙亥獄事(필자=조정의 정책과 당시의 집권층 비방)를 겪게 되자, 영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서원의 정비와 淸要職을 혁파하기에 이른다.

사실 영조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영조는 근본적으로 노론의 토양 위에서 성장한 왕이었다. 때문에 영조는 등극 후 한결같

24) 이 건창, 『당의통략』, 자유문고, 1998, 322쪽.

上乃下教曰 今逆變由於黨論 凡爲黨論於此時者 無彼此皆逆也 當梟首而循 老論以此不敢言…….

이 탕평을 외쳤지만, 그의 외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결과 그의 정치적 비중은 노론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노론을 중심으로 왕권을 안정시킨 다음 노론과 소론의 탕평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치란 한 개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총역사 비로 얼룩졌던 영조의 집권 초반기에 있었던 辛酉大訓(필자=三急手 사건 때의 김용택, 이천기, 이회지, 심상길, 정인중의 罪案을 불사르고 용서한 일)을 기점으로 소론에 대한 노론의 우위가 드러나고 乙亥獄事를 계기로 노론의 전성시대가 되게 된다.

그러나 권력은 공유할 수 없다는 속설처럼, 이번에는 같은 노론끼리 권력 독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당시 노론의 핵심 가문은 김재로 가문 외에 영조와 인척 관계인 민진원, 김진규, 신만, 홍봉한 가문이 있었다. 집권 초기의 영조는 권력의 기반을 노론 척신계에 두면서도, 이들에 대한 견제로 소론 척신 가문인 정우량, 조문명 가문을 이용했다.

그러나 영조의 척신 의존적인 태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척신계와 김상로를 중심으로 한 비척신계간의 알력·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영조의 척신중심적 태도로 비척신계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이 후에는 척신간의 불꽃 튀는 권력 암투가 일어나게 된다.

물론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임오 화변은 소론과 노론, 척신이라도 홍봉한 가문과 이를 견제하는 척신으로 나누어지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당시의 당파간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밀려나는 양태가 아니라, 가문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기에 처절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척신계열인 김상로 등은 척신계열인 홍봉한의 세력을 꺾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세자를 감싸고 있던 홍봉한 가문을 꺾기 위해 세자의 비행을 문제 삼았으며, 홍봉한 가문은 이를 막기 위해 정치 자금(賂物)을 수뢰하다 탄핵되기도 했다.

이때 홍봉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附洪派라 하고, 홍봉한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攻洪派라 했다.

그러나 이들의 싸움도 영조 35년(1759년) 66살의 영조가 16살 된 김한구의 딸을 새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왜냐하면 명문벌열 집안인 홍봉한 가문에 비해 한미했던 김한구 집안은 공홍파와 손을 잡고, 홍봉한 가문뿐만 아니라 세자까지도 공격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현재의 왕인 영조 때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론의 일부와 김귀주, 정후겸, 홍인한을 중심으로 한 무리와 영조 사후의 왕위 계승권자인 세자를 옹호하는 무리와의 불꽃 튀는 싸움이 전개된 것이다.

이때 홍봉한은 처음에는 세자의 장인이라는 입장을 고려하여 세자를 지지했으나, 대세의 흐름이 점차 세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세자의 죽음을 방관하고, 도리어 영조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경종의 뒤를 이어 등극한 영조에게 평생 동안 목의 가시 같은 부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경종에 대한 독살의 주동자라는 三急手 사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숙빈 최씨의 출신 성분이었다. 물론 경종이나 영조나 어머니가 왕비 출신이 아닌 점은 같았지만, 장희빈에 비해서 숙빈 최씨는 이미 시집을 한 번 갔던 천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이 점이 바로 영조가 평생 갖게 되는 열등의식의 원형이 된다. 조선 초 태종 이방원의 서얼차별법 제정 이래로 조선 사회는 서얼에 대해 엄한 차별 대우를 해왔었고, 김장생 이래의 예송논쟁에서도 이 점은 매우 중요하여 왕의 정통성 시비까지 갖게 했던 만큼 영조의 자기 출신에 대한 감정은 더욱 예민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조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영조의 성격은 편 집증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부왕의 성격은 사도세자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해경궁 홍씨는 냉정한 판단에 의한 사실적 기술보다는 친정의 신원을 위한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2) 각 인물의 당파성

(1) 해경궁 홍씨

해경궁 홍씨는 풍산홍씨로서 호를 익익재 자를 익여라고 하는 흥봉한(1713-1778)의 4남 3녀 중 둘째 딸로 영조 11년(1735년 을묘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과 다름을 보이고 있고,²⁵⁾ 또한 자신의 가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가문이 어느 한미한 가문과는 달리 선조와 인목대비 사이에서 출생한 정명 공주의 부마도위 홍주원의 후손으로 명문 별족임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²⁶⁾ 자

25) 정은임, 앞의 책, 18쪽.

선왕조 을묘 6월 18일 오시에 선비께서 나를 반송방 거평동 외가에서 낳사오시니, 전일 일야에 선인께서 흑룡이 선비 방 반자에 서립을 꿈에 보아 계시더니, 내 나니 여자라 몽조에 합하지 않음을 의심하시더라 하며-하략-

26) 정은임, 앞의 책, 21쪽.

우리 집이 도위의 후예로 잠영대족이요, 우리 외가 이씨 청백 문호요, 우리 백

신의 부친인 홍봉한의 청렴 빈한한 삶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²⁷⁾

또한 정성왕후는 홍봉한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다른 당도 아닌 노론인 홍봉한이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에 더욱 기뻐 눈물까지 흐른다 하고, 영조 또한 자신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노론 인사인 홍봉한이 지난번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해 매우 애닦게 생각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⁸⁾

이처럼 혜경궁 홍씨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겉으로는 순종의 덕을 갖추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친정 편을 드는 한 사람의 당인에 불과했으며, 남편인 사도세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친정 가문인 풍산홍씨측에 붙어 남편을 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게 된다. 혜경궁 홍씨의 가계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혜경궁 홍씨 가계도

洪柱元(永安尉)*貞明公主

|

萬容(貞簡公)一重箕(僉箕公) - 錫輔-女(金致萬의 妻) - 鍾夏

鍾秀

고모께서 명관의 아내요, 중고모께서 현종실 청룡군의 며느리시오-하략-

27) 정은임, 앞의 책, 27쪽.

先人이 가라사대 “내 비록 世祿之臣이요 딸이 재상의 손녀니 어찌 기망하리요.” 하시고 單子를 하시니, 그때 내 집이 극히 빈곤하여 의상을 해 입을 길이 없으니 치마치는 先兄 혼수에 쓸 것을 하고, 옷 안은 낡은 것을 넣어 입히시고, 다른 결속은 빛을 내어 선비께서 근로하시며 차리 오시던 일이 눈앞에 암암하며…….

28) 정은임, 앞의 책, 41쪽.

선대왕께서 작년 癸亥에 과거 못 시킨 것을 애달파 하시다가 喜悅하오시고, 인원·정성 양 성모께오서 “사돈이 과거하니 나라에 다행이라.” 하오셔 나를 부르오셔 치하하오시고, 정성왕후께서는 당신 본댁이 풍상을 지냈으니, 偏論을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론을 위하시기 친척 같으시기 우리 집에 가례한 일을 심히 欣喜하오시다가 大闢하오신 일을 진실로 기꺼하오셔 限水까지 머금으오시니 下情이 감탄하음을 더욱 측량치 못할리라.

象漢 - 樂性

女(李昌輝의 妻)

鉉輔(貞獻公)-女(李德重의 妻)

<任氏> 女(李彦衡의 妻)

<李氏> 鳳漢-樂仁-女

<李氏> 守榮 -世周

最榮

女(早夭)

惠慶宮洪氏-正祖

<思悼世子>

清衍君主

清璿君主

樂信-後榮

徹榮

樂任-就榮

魯榮

好榮

退榮

女(李復)

樂倫 -緒榮

緯榮

貴榮

麟漢 - 樂遠

<申氏> - 樂述

女

樂進

(3) 사도세자

열 살 때 사도세자는 “해는 동쪽에서 솟아 사해를 밝히고, 달은 중천에 솟아 만산을 비추도다.”라는 시를 지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모두 국왕을 지칭한다. 이 시에서처럼 세자가 지칭하는 ‘해와 달’은 어느 특정 당이나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와 만산’을 비추는 달이었고, 그가 추구하는 길도 바로 이러한 제왕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도 집권육에 눈 먼 노론으로 인하여 심한 견제와 질시 속에서 자연히 소론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조가 세자에게 次對 중 누구의 대답이 가장 좋았느냐고 물었을 때, 세자는 소론인 좌의정 조현명의 대답이 가장 좋았다고 대답하자, 영조는 좌의정만 칭찬하며 영의정(필자=노론인 김재로)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였다.

물론 세자는 처음부터 노·소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때부터 노론측의 극심한 견제와 질시 속에 세자는 자연히 소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4) 홍봉한과 홍인한 등 홍씨 일문

앞서 밝혔듯이 선조의 부마도위 후손인 홍봉한을 비롯한 풍산홍씨 일문은 처음부터 西人 집안이었으며, 뒤에는 송시열을 추종하는 노론의 중추적 가문으로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된다.

물론 홍봉한의 홍씨 일문이 노론의 중추 가문으로 부각되게 된 데에는 혜경궁 홍씨가 세자빈이라는 영조와의 외척 관계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홍씨 일문은 왕실의 안녕과 국가 보위보다는 가문의 번영을 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특히 홍인한은 혜경궁 홍씨의 중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 선 노론 벽파의 영수로 활약했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의 등극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세손의 등극을 막기 위해 신하로서는 입에 올리기 힘든 말도 서슴 없이 하였다. 사료를 살펴보면, 임금이 사·원임 대신을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蕩平이 어느 때에 있었느냐?” 하니, 한익모가 아뢰기를

“洪範에 보이는데, 漢·唐 이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身氣가 더욱 피곤하니 비록 한 가지의 공사를 펼치더라도 진실로 酬應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데도 어찌 萬機를 수행하겠느냐? 국사를 생각하느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다. 어린 세손이 老論을 알겠는가? 少論을 알겠는가? 南人을 알겠는가? 小北을 알겠는가? 國事를 알겠는가? 祖師를 알겠는가? 兵曹判書를 누가 할 만한가를 알겠으며, 吏曹判書를 누가 할 만한가를 알겠는가? 이와 같은 형편이니 종사를 어디에 두겠는가? 나는 어린 세손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게 하고 싶으며,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중략-, 홍인한이 말하기를,

“東宮은 老論이나 少論을 알 필요가 없고, 吏曹判書나 兵曹判書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祖師까지도 알 필요 없습니다.” 하였다.

29)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영조의 뜻이 분명히 세손에게 전선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면전에서 불가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동궁과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임오 화변 이후 세손에게 三不必知說을 주장하였다.

29) 『영조실록 51년』, 11월 20일, 기사.

그러한 결과 세손과도 사이가 나빠져 자신의 형님을 비롯한 풍산홍씨들은 세손 보호에 진력을 다할 때, 그는 김귀주 일파와 결탁해 세손 즉위에 극력 반대하다 정조 즉위 후 여산에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5) 정순 왕후를 위시한 경주김씨 일문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서 경주 김문 출신인데, 당시 경주김씨 집안에는 영조의 탕평책에 극렬 반대하던 한원진에게 사사한 사람이 많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자연스레 사도세자와는 정치적 길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결과 1761년 사도세자의 평안도 여행사건 때 과거에 급제도 하지 않은 20세 전후의 김귀주를 시켜 영조에게 밀봉 편지를 보내 좌의정 홍봉한과 우의정 정휘량을 포함한 영조 측근의 탕평과 전체를 공격하는 배후 인물로 정순왕후가 지목되었다.

이에 영조는 정순왕후의 사람됨을 매우 걱정했는데,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친정에 대한 입지 강화와 노론 벽파의 정권 집권욕이 빛은 것이다. 세자의 평안도 여행은 세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사건으로 극비 사항인데, 이를 약관의 백면서생 김귀주가 알게 된 것은 정순왕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고, 이는 곧 왕위 계승 문제에 관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김귀주는 정조 즉위 직후 혜경궁 홍씨를 무시하여 문안드리지 않았다 하여 흑산도로 귀양을 가기도 했으며, 정조 즉위 후 김귀주 일파를 몰아내는 데 앞장 선 홍국영을 토벌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국정에 간섭하기도 하였다.

정순왕후는 또한 1786년(정조10년) 12월 1일 한글 교서를 내려 5월의 문효세자 죽음과 9월의 의빈 성씨의 죽음, 11월 상계군 담의 죽음이 독살로

판단되므로 역적을 찾아내라고 하여 사도세자 계열의 후손을 말살하려 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 인을 역적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정조가 듣지 않자 단식을 하면서 까지 정조를 압박하였다.

이에 정조는 정순왕후에 대해 결사 항전의 뜻을 표명하며 저항하였고, 영의정 김치인이 중재에 나서 은언군 인을 강화도에 거처를 마련한 후,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형제간의 우의를 다졌다. 그만큼 정순왕후를 비롯한 경주김씨 일문은 노론 당색이 뚜렷했다.

(6) 정후겸과 화완옹주를 위시한 궁중 여인들

영빈 이씨 소생으로 사도세자와 동복형제인 화완옹주는 처음에는 세자와 사이가 좋았으나, 일성위 정치달이 사망한 후 영조의 총애를 받고, 모사를 일삼다가 결국은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한 정후겸과 함께 세자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가 훗날 정조에 의해 庶人으로 강등되고 양아들 정후겸은 사사되고 만다. 따라서 그녀는 당색과 관계없이 항상 세자와는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지금까지의 인물을 당색에 따라 도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당색		
	노론	소론	비고
영조	○		
사도세자		○	
혜경궁 홍씨	○		
홍봉한	○		
홍인한	○		
정후겸	○		
김귀주 등 경주 일문	○		
조재호		○	
화완옹주	○		

2. 『한중록』의 인물 묘사와 집필 의도

1) 인물 묘사

혜경궁 홍씨를 중심으로 한 인물을 고찰하는 것은 본 작품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혜경궁 홍씨를 중심으로 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고찰할 인물은 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당시의 정치상황에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한정한다. 본 장에서는 인물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인물들이 혜경궁 홍씨의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조

영조는 1632년 숙종과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휘는 昉이며 자는

光叔 호는 숙종이 직접 養成이라고 내렸다. 1699년(숙종 25년) 6세 때 연잉군에 봉해지고, 1721년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1704년(숙종 30년) 20세 때 군수 서종제의 딸과 혼인하니 이가 곧 정성왕후이고, 1757년(영조 33년) 정성왕후의 승하로 1759년 김한구의 딸과 혼인하니 이가 곧 정순왕후이다. 재위기간은 52년(1724-1776)으로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길다.

영조는 혜경궁 홍씨의 생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그는 자신이 미천한 신분인 무수리의 몸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유학자를 싫어하고 명분론을 자주 무시했으며, 자녀들의 혼인 때에도 한미한 가문을 피해 신임하는 신하 중 전통 있는 사대부 가문 출신만을 골라 혼인했으며, 이는 훗날 척신 정치로 변질될 토양이 되기도 했다.

영조는 18세(1712년)부터 궁궐 밖에서 생활하다 28세(1822년) 때 왕세제로 책봉될 때 궁궐에 들어온 관계로 일반 백성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는 검소하고 절약하며 화려한 것보다는 질박한 것을 좋아하였다.³⁰⁾

또한 그는 군주가 된 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가서 이웃과 거지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기도 했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갓옷을 입지 않았다.³¹⁾

또한 그는 사치나 화려한 치장을 철저히 금했으며, 심지어는 사대부 여인들의 어여머리도 금할 정도로 소박한 생활을 했다.³²⁾

그리고 그는 모든 면에 원칙을 세워 정무나 경연 역시 엄격하게 실시하였고, 아픈 가운데도 숙빈묘에 거동을 하려 했으나 신하들의 만류로 중지하

30) 『영조실록 20년』, 5월 1일, 무인.

31) 『영조실록 22년』, 4월 16일, 신사.

32) 『영조실록 32년』, 1월 16일, 갑신.

거나,³³⁾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묘나 능묘의 행차 및 대비의 섬김에도 지성을 다했다.³⁴⁾

영조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격하면서도 과단성이 있고 집요한 태도를 보여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지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집요함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減膳이나 經筵 불참, 湯劑 거부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영조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대신들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극심한 당쟁으로 설득이 불가능해지자 기유처분 이후에는 모든 면에서 자기중심적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후반기로 갈수록 심해져 독선적이며 극악하게 변했다.

그리하여 영조 말년에는 부교리 조준이 선조대의 이황이 임금의 덕이 너무 높은 것을 경계한 것을 인용하여 충언을 했다가 영조의 명으로 사적에서 삭제당하는 벌을 받기도 하였다.³⁵⁾ 물론 이러한 영조의 독단은 세자의 대리 청정기인 영조 26년 2월 사간 김상구의 상소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³⁶⁾

이러한 기록에서 영조의 성격을 유추해 보면 첫째, 과단성과 결단성이 있었으며 둘째, 편집증적으로 보일 정도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애증이 뚜렷했고 셋째, 자신의 출신 신분에 대한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넷째,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였다.

그러면 영조의 이러한 성격 형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그는 아버지 숙종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숙종은 역대 왕 중에서 영명하기로 소문이 났지만, 반면에 변덕이 매우 심하고 결단성이 있었다.

33) 『영조실록 18년』, 11월 5일, 경신.

34) 『영조실록 18년』, 11월 5일, 경신.

35) 『영조실록 43년』, 11월 25일, 을묘.

36) 『영조실록 26년』, 2월25일, 무술.

이러한 숙종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당시 산림의 거두 송시열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듯, 영조 또한 부왕의 성격을 이어받아 어떠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말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여 원칙이 결여된 처리를 많이 하였다.³⁷⁾

영조는 편집증적일 정도로 애증에 대한 표현이 뚜렷하고, 출신 신분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를 『한중록』에서 살펴보면 영조의 열등의식과 자식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³⁸⁾

반면에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고양에 있는 정성왕후의 능인 홍릉에 거동할 때 세자를 데리고 처음으로 능행을 갔었는데, 때가 마침 장마철이라 큰비가 내리니 이것은 반드시 세자를 데려온 때문이라 하여 세자를 도로 쫓아 보냈다. 그리하여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이 분분하였고, 세자의 부왕에 대한 원망도 깊어갔다.

이날 비를 맞고 초라하게 돌아오는 세자를 보고 생모 영빈 이씨와 혜경궁 홍씨가 서로 붙들고 서러움을 이기지 못해 통곡할 정도로 영조는 세자를 심하게 대했다.³⁹⁾

37)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경종 때 일어난 신임옥사의 성격을 바꾸어 버린 데서 찾을 수 있다. 신임옥사란 경종을 시해하려한 역모사건인데, 영조는 이를 자신에 대한 충성 때문에 일어난 조작 사건이라고 뒤집어 버렸다. 그 외에도 경종 때의 왕세제 책봉 운동이나 왕세제 대리 청정 주장 등에는 항상 영조의 심복들인 김복택 등이 개입되어 있었고, 등극 후에는 신하들에게 막말을 한다든가, 주변 사람들을 각박할 정도로 책망하고 심하게 다루었다. 이는 노년에 이를수록 더욱 심해져서 정승에 대한 임명이 수시로 바뀌었고, 결국 군주의 감정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척신들만이 권력에 빌붙게 되어 사도세자를 공식적인 논의 없이 죽게 만들기도 하였다.

38) 정은임, 앞의 책, 60쪽.

정처에게는 예사 인정으로 생각하면 선조께서 偏愛하시니 당신 당하신 일 비겨 응당 화기를 잃사오실 듯하되 조금도 사색에 비침이 아니 겨오시니, 범인으로 이런 터에 처변하면 어찌 이러할 리 있으리요.

39) 정은임, 앞의 책, 272쪽.

國血 후 小朝께서 弘陵展謁 못하여 계오시니 마지못하여 隨駕를 시키시니 그

이외에도 영조의 세자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은 『한중록』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40)41)42)

이처럼 영조는 세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미워했지만, 화협옹주와 화완옹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편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영조의 태도는 세자를 매사에 자신감의 결여와 부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만을 놓고 볼 때는 영조의 세자에 대한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세자가 여덟 살 되던 해 영조는 부왕인 영조와 함께 종묘를 배례하게 되는데, 어린 세자는 면류관과 면복을 입고 영조를 따랐다. 이는 당시의 예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혜 장마가 지루하다가 거동 날 大雨가 壯히 오니 대조계오서 “일세 이러하기 소조 태려온 탓이라.” 하셔 능에 미쳐 가지 못 하오서 “도로 들어가라.” 하시고 大駕만 가시니, 소조께서 능에 展謁하러 하시다가 非決하시고, 백관군민의 소견엔 들 오죽 疑怪하리오.

40) 정은임, 앞의 책, 271쪽.

소조를 생각하니 그 일은 병들지 않으시고 대순의 효 외는 아니 싫지 않으실 것이니, 선회궁과 나와 서로 마주 붙들어 涕淚뿐이니, 당신도 “점점 살 길이 없노라.” 하시고, 그 후에 하시기를 “衣襟을 잘못 입고 가서 그 일이 나신가?” 사려하셔 衣襟症情이 더하시니 안타깝더라.

41) 정은임, 앞의 책, 287쪽.

이미 자식의 대사를 보이려 데려와 계시니, 그 통정 옥관자가 호반의 관자같이 크고 고이하여 儲君다오섬작지 아니 하오시나, 그에서 더한 일이 많은데 그 관자 일이 무슨 그대도록 대사관대 미쳐 처녀가 들어오지 못하여서 그 관자일로 起怒하오서 보지 말고 돌아가라. 하시니, 떠느리 보도 못하시고 가시는 일이 어 떠하시리오.

42) 정은임, 앞의 책, 238쪽.

대궐서 이르는 불길한 일에는 자주 세자를 侍坐하라 하오시고 화평옹주와 무오생옹주(필자=화완옹주) 지금 정치라 하온 이의 방에 들어 가오실 제는 引見衣襟을 같으신 후 들으시되 세자께는 그렇지 아니 하오서, 밖궐(外殿)에 정사하오시고 드오실 제, 정사하오신 의대 입으신 채 길에 오셔 동궁 부르오셔 “밥 먹었느냐.” 물으오셔 대답하오시면 그 대답 들으신 후 耳部를 그 자리에서 씻사오시고, 씻사오신 물을 화협옹주 있는 집 光窓(필자=채광을 내기 위한 창)으로 버리시고 …….

귀한 아들을 조상에게 보여 주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영조의 행동이었다.

이처럼 『한중록』에 나타난 기록과 역사적 사실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

『한중록』의 집필 목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조의 성격이 세자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 세자의 어렸을 적 양육 환경이 세자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부자지간의 갈등,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각 당파들의 이해득실과 암투, 남편의 죽음을 정신병으로 몰아 자신의 친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극구 변명하는 혜경궁 홍씨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이 명백히 밝혀져야만 한다.

영조는 군왕으로서 성격과 아버지로서의 성격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야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군왕으로서 영조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군의 모습을 보여, 일반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구출할 것을 명하거나, 典獄署에 수감된 죄수들 중, 죄가 가벼운 자는 풀어주라고 하여 형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⁴³⁾

그리고 당시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집을 함부로 빼앗아 착복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⁴⁴⁾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인 이존중, 이보원, 조상항을 남의 집을 빼앗은 죄로 옥에 가두기도 하였으며, 인재의 등용과 朋匪의 타파, 군문 혁파와 뇌물이 공공연히 들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사헌 이명언의 상소에 대해 비답하기를 ‘陳啓한 것이 모두를 근심하고 사랑한 데서 나왔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단 1분의 민폐라도 제거하도록 하라고 하였다.⁴⁵⁾

한편으로 나라는 가난하더라도 백성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재물

43) 『영조실록 즉위년』, 9월 22일, 임술.

44) 『영조실록 원년』, 9월 24일, 갑자.

45) 『영조실록 원년』, 9월 24일, 갑자.

을 착취하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을 배풀면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나라의 저축이 비록 바닥이 난다고 하더라도 백성이 가난한 것보다는 낫다.’⁴⁶⁾라고 하여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왕이 하여야 할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영조는 공무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에 대해 매우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물론 조선 시대에는 ‘분경법’이 있어 인사 청탁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제도도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유명무실해져 인사 청탁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자, 대간의 啓請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맞게 시행할 것이며,⁴⁷⁾ 공무를 빙자해 사육을 채운 경상감사 권이진과 진주영장 김박을 정죄하기도 했다.⁴⁸⁾

뿐만 아니라 빚을 정수하기 위해 매를 일삼아 백성을 자결케 한 해당 당 상관과 郎官을 파면시키고,⁴⁹⁾ 옷이 얇아 추위에 떨며 근무를 하는 군사들에게 유의(저고리)를 지급하는 등⁵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이러한 영조의 성군으로서 태도는 개인 영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 영조는 무수리라는 천인 출신의 어머니와 노·소론의 당쟁이라는 와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謹慎’이라는 두 글자에 매달려 자신을 낮추고 자중자에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시절, 등극 후에도 경종에 대한 독살설 등에 대한 혐의 등이 영조를 조급하고 사태 해결에 민첩하며 임기응변에 능하게 만들고 무엇인가에 대한 외곬수적 성격을 갖게 했다.

46) 「영조실록 원년」, 9월 25일, 을축.

47) 「영조실록 원년」, 10월 10일, 경진.

48) 「영조실록 원년」, 10월 29일, 기해.

49) 「영조실록 원년」, 11월 6일, 병오.

50) 「영조실록 원년」, 12월 1일, 경오.

그리하여 그는 자식에 대한 편집증적인 성격을 보이거나, 좋고 나쁨에 대한 감정 표현이 극단적이어서 세자와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지 못했다.

그의 성격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영조는 따로 태어났다고 하여 자식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녀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편애를 보이고 있다.⁵¹⁾

이에 대해 사도세자는 화협옹주와 자신의 처지가 같음을 알고 화협옹주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했다.

심지어는 영조는 자식에 대한 편애가 지나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영조의 자식 편애는 가히 병적이라 할 만하다. ⁵²⁾

조선시대 일반 가정의 아버지라면 응당 딸보다는 아들을 더욱 귀여워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일 텐데, 영조의 경우는 아들의 대답을 듣는

51) 정은입, 앞의 책, 236쪽.

화협옹주는 계축생이니 나실 때 영묘께오서 또 딸인 줄 애달아 그리하신던지 그 옹주가 容貌도 絶勝하고 孝誠도 있어 아름답되 父王 慈愛를 因하여 입지 못하니, 그때 아들 못 되어 난 줄 애달아 심지어 화평옹주와 형제 서로 한 집에 있게를 못하시니, 화평옹주가 홀로 慈愛를 받잡는 줄 중심 隱痛이 되어 아무리 “마오소서.” 여쭈어도 듣지 않으오서 할 일 없으니, 화협으로 인연하여 그 都尉 영성위까지 사랑을 못 받자오니, 경모궁께오서 그 누이가 年上若하고 왕께 失愛하여 蹤迹이 서로 같음을 매양 불쌍히 여기오서 愛戴하오심이 自別하오시더니라.

52) 정은입, 앞의 책, 238쪽.

대궐서 이르는 불길한 일에는 자주 세자를 侍坐하라 하오시고 화평옹주와 무오생 옹주, 지금 정처라 하는 이 방에 들어가실 제는 引見 衣襟을 갈으신 후 들으시되 세자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오서, 밖결에 정사하시고 드오실 제, 정사 하오신 의대 입으신 채 길에 오서 동궁 부르오서 “밥 먹었느냐.” 물으셔 대답하오시면 그 대답 들으신 후 耳部를 그 자리에서 씻사오시고, 씻사오신 물을 화협 옹주 있는 집 光窓으로 버리시고, 옷대궐인즉 담을 넘어 세숫물을 버리시오니, 그리로 갈 것은 아니로되 어떤 따님은 밖에서 입으신 의대를 벗고야 보오시고, 이 중한 아드님은 말씀 들으셔 씻으신 후야 가오시니, 경모궁께오서 화협을 대하시면 “우리 남매는 씻사오신 差備로다.”

것조차 부정을 탄다하여 귀를 씻을 지경이니 부자지간의 정이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따라서 세자는 일찍부터 영조가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신과 화협옹주는 差備처럼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이다.

영조의 세자에 대한 미움은 드디어 대리청정이라는 정치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던 딸 화평옹주가 죽자 세자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 세자를 괴롭히기를 노골적으로 하게 된다.

그 동안 화평옹주가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영조와 세자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했던, 화평옹주가 죽음으로써 영조의 세자에 대한 미움은 도를 더해 갔다고 할 수 있다.⁵³⁾

이러한 영조의 세자에 대리청정은 세자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세자를 골탕 먹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영조 자신의 부왕인 숙종이 자신의 형인 경종을 폐세자 시키기 위한 구실로 경종을 대리청정 시키고자 노론과 공모를 했다가 숙종의 죽음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영조 또한 세자를 폐위

53) 정은임, 앞의 책, 238쪽.

대저 朝臣의 상서라도 言事가 있거나 偏論이나 하는 상서는 소조께서 自斷치 못 하오셔 稟于 大祖하시면, 그 상서가 아래 사람의 일이지 소조께서 아실 배 아닌데, 격노하오시기는 소조께서 신하를 조화치 못하여 전에 없던 상서가 났으니 소조 닻이 되시고, 상소 批答으로 일러도 稟于 大朝 하오시면 “그만 일을 결단치 못하여 내게 煩稟하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하시며 꾸중하오시고, 저러한 일은 이리 아니하였다 꾸중이시고, 이러한 일은 저러 아니 하였다 꾸중하오셔, 이일 저일 다 격노 不如意하시고, 至於 凍餒하거나 旱災나 天變災異가 있으면 “소조께서 덕이 없어 이러하다.” 꾸중 나시니, 이러하기 소조께서 날이 흐리거나 겨울 천둥을 하거나 하면 또 무슨 꾸중이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사, 事들이 황겁 공구하오셔 인하여 邪思妄念이 다 나오셔 병환이 점점 드시는 싸이 있으니…….

시킬 구실로 대리청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하튼 영조의 이러한 성격은 세자의 성격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영조와 세자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영조의 성격은 외곬수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편집증에 가까운 애증의 표현으로 매우 즉흥적이고 괴팍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자하고 소심하며 여린 면이 있었던 종잡기 어려운 성격이었다.

한편 영조와 혜경궁 홍씨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영조와 혜경궁 홍씨 사이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당시의 유교적 사회에서는 효는 만행의 근본이었던 관계로 일반인들도 시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공경이 요구되던 시기에 하물며 국왕에 대한 효도는 곧 충성으로서 누구에게나 강요 아닌 강요가 되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혜경궁 홍씨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세자의 죽음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효를 다하면서 혜경궁 홍씨는 모자간의 사정보다는 대의를 위하여 아들을 할아버지의 품으로 보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문에서도 홍씨가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홍봉한의 고심혈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여 당시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아들인 산(필자=정조)을 데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⁵⁴⁾

54) 정은임, 앞의 책, 310쪽.

그해 臘月에 詔勅이 나오니 自上으로 계오서 세손을 데리시고 혼궁에 오셔 칙조를 받자오시고, 환궁 때 세손을 도로 데리고 가랴 하오시다가 세손이 어머 떠나기를 차마 결연하여 우는 양을 보시고 하시되, “세손이 너를 떠나기 차마 못하여 저리하니 두고 가자.” 하시니, 혹 당신은 慈愛하시는데 세손이 慈愛는 생각지 아니하고 어미만 못 잊어하는가 서운히 여기실 듯하여 아뢰옵기를 “내려오오

즉 혜경궁 홍씨는 정치적으로 노획한 홍봉한의 충고를 받아들여 겉으로는 왕에게 충과 효를 다하는 듯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홍봉한은 세자빈 간택 때부터 가문을 일으킬 야심에 차 있었던 듯하다. 그는 세자빈 책봉 후 입궐하는 딸에게 이르기를 국가의 복을 닦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먼저 닦으라고 당부하고 있다.⁵⁵⁾ 그리하여 그는 세자빈 책봉 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과거에도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의 집안과 가문의 영광만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홍봉한의 처지와 당시의 상황이 맞물려 세자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시의 정국은 왕의 마음 여하에 따라 환국이 일어나고, 자신의 아들이며 일국의 세자조차도 죽이는 시아버지의 비정함을 알고 있던 혜경궁 홍씨가 자신과 세손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면 위가 그림사와 이리하올 것이니 데려 가옵소서.” 하니, 즉시 화안하오셔 “그러하라.” 하시고 데리고 還宮하오시니, 세손이 모시고 가며 어미 인정없이 떠나 보내는 일을 섭섭하여 무수히 울고 가시니 내 마음이 어찌하리오마는, 그리는 것은 私情이요 모시고 가 侍奉하여 그 아버님 못다하신 子道를 잇는 것이 옳고, 정사며 나라일을 배워 아는 것이 옳기 떠날 제 못 잇는 정을 베어 보내니, 이것이 다 이전 일을 징계하고 세손으로 하여금 일심으로 위에 효성을 다하여 자애하시는 성의를 一毫도 어김이 있을까 염려함이니, 이 어찌 세손 위한 私情일 뿐이리오. 宗國 안위가 세손 한 몸에 있으니 나의 동동한 마음이 하늘에 質正할 것이요, 이 홀로 내 마음뿐 아니라 이 다 선친이 나를 인도하여 부녀의 細瑣한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의로 面戒하신 힘이니, 우리 先親의 苦心血忠이 곳곳 세손을 위하고 종국을 위하시던 일을 뉘 자세히 알리오.

55) 정은임, 앞의 책, 37쪽.

“三殿 섬기음을 삼가고 조심하여 효성을 힘쓰시고, 동궁 섬기음을 반드시 옳은 일로 둔갑고 말씀을 더욱 삼가 家國의 복을 닦으소서.” 하고 경계하오시던 말씀이 千言萬語이오시니 내 공경하여 듣잡는 중 울음을 그치지 못하니, 그 때 심사야 목석인들 어찌 감동치 아니하리오.

혜경궁 홍씨는 시아버지인 영조의 비정함에 대해서는, 사도세자가 살아 있었을 당시 세손의 가례를 행할 때, 세자가 세손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세자가 세손 간택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사건에서도 충분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당시 혜경궁 홍씨는 남편의 안위보다는 아들인 세손의 안위에 더욱 신경을 쏟아 세손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신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정처(필자=화완옹주)에게조차도 머리를 숙이고 있다.⁵⁶⁾

따라서 『한중록』에 보이는 혜경궁 홍씨의 영조에 대한 효도는 진정한 효라기보다는 세손의 안위를 위한 가식적인 효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혜경궁 홍씨의 영조에 대한 원망의 기록은 『한중록』 곳곳에 나타나며, 세자의 질환을 영조의 대리청정 탓으로 돌리어 영조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조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며, 애증의 표현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괴팍한 성격이라는 것⁵⁷⁾을 아는 혜경궁

56) 정은임, 앞의 책, 114쪽.

세손의 안위와 성심을 돌려놓기는 전혀 정치에게 있는 고로 내 각 闕에 있을 제 萬事를 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무렇든지 掣意에 어기지만 말게 하여 달라하고, 세손께도 경계하여, “그 고모를 厚待하여 날같이 보라.” 하니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정이 憾然하니, -중략- 그 사람의 말대로 만사를 좇으오셔 아무 흠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옳다 하면 그리 듣자오시고 착하여도 그 사람이 나무라면 가이 없어지니, 세손은 본디 사랑하시나 某年後 이어 변치 아니 하오신 것은 정치의 힘이어니와, 세손을 맡아 차지하기로 하여 위의 말씀처럼 千怪百怪가 다 났으나 실인즉 내가 세손 위한 苦心으로 그 사람을 至誠善待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손 안위가 또 어떠할 줄 알았으리오.

57) 정은임, 앞의 책, 236쪽.

홀연히 代理하오실 습을 내오시니 그 날이 내 冠禮날이라, 億萬事가 代理 후 탈이니 어찌 諗고 諗지 아니하리오. 영묘께오서 孝親奉先하심과 敬天愛民하오시는 盛德至誠이 千古 帝王에 뛰어나오시니 내 이목으로 비옵고 기록한 바로 생각하여도 역대에 比할 임금이 아니 계오시나, 다만 경력이 많사오셔 辛壬을 지내오시고 戊辛逆變을 겪으셔 사외하시며 사려하오심이 거의 병환이 되오신 듯싶으시니, 그 사이 細微之事야 어찌 다 기록하리오.

홍씨로서는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영조의 이러한 괴팍한 성격 형성이 영조의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경종 원년(1721년) 신축년과 2년(1722년) 임인년에 걸쳐 왕위 계승문제로 인해 야기된 노·소론간의 당쟁으로 인한 옥사와 영조 4년 3월에 영조와 노론에 의한 경종의 독살설을 주장하여 밀풍군을 추대하여 남인과 일부 소론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이인좌의 난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혜경궁 홍씨로서는 당쟁의 무서움과 영조의 비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안위는 물론 세손의 안전과 자신의 친정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혜경궁 홍씨는 항상 자신을 낮추어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했지만, 그녀 또한 인간인지라 영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혜경궁 홍씨는 영조의 세자에 대한 괘시와 무시가 울화가 되어 병이 되었다고 하면서 영조가 세자를 좀더 자애로 대했다라면, 세자에게 병이 없었을 것이라 하여 영조의 편집증에 가까운 애증관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다.⁵⁸⁾

영조는 아들에 대한 비정할 만큼 차갑게 대해 장차 나라의 대통을 이어받을 세자가 마마로 병석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병문안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⁵⁹⁾

58) 정은임, 앞의 책, 254쪽.

그 해 칠월에 인원왕후 七旬이시므로 耆老科 보이오시고 後苑에서 進賀하오시는데 어찌하여 小朝를 參詣케 하오시니 그 進賀를 무사히 지내고 오셔서 하 좋아하오시던 것이니, 이런 일로 보아도 분명히 대조께서 和色으로 撫恤하오시고 조금 견디올만큼 하오시더면 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오. 부자 두 분이 스스로 임의치 못 하오시는 듯이 그리들 하오시니 다 하늘 뜻이니 그저 怨感하도다.

59) 정은임, 앞의 책, 255쪽.

그 해 至月 旬間 (필자=영조 32년 11월 10일경)에 경모궁께오서 덕성합에서 痘症이 發斑하오시니, 症情은 極順하나 顆粒이 장하오셔서 더욱 두려워하더니 나긋이 되셔 成痘로 지내오시니 이십이 세 春秋에 격화는 이를 것 없사오신데

당시의 마마는 역질이라 하여 무서운 질병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았는데 일반 백성도 자식이 아플 때는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다음 보위에 오를 세자야 말하여 무엇 하겠는가?

혜경궁 홍씨는 세자의 잘못된 성격 형성을 환경과 시아버지 영조의 양육 잘못으로 돌리면서 영조의 비정함을 원망하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혜경궁 홍씨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영조에 대해 원망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친정 가문과 세손의 안위를 위해서는 영조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영조의 행동에 대해 무조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¹⁾

이러한 『한중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혜경궁 홍씨의 영조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안위와 세손의 자리 보존, 그리고 친정 가문을 보호

고이 出場하오신 일 그런 경사가 어디 있으리오.-중략-그 重患을 順히 지내오시니 그런 종사 無疆之慶이 없을 때, 대조계서는 그 병환에 한 번도 親臨하오신 일이 없사오시고 선친은 關西에 아오라이 계시고 나만 혼자 아득히 애쓰던 말 어찌 다 쓰리오. 送神 후 景春殿으로 와 조리하오시니라.

60) 정은임, 앞의 책, 227쪽.

英廟께서 그 아드님을 얻자오시고 지극하오신 자애 비할 데 없으셔 사오 세까지라도 儲承殿에 오셔서 寢睡와 居處를 자로 하오시고 慈愛하오심이 틈이 없사오시니, 경모궁께서도 본질이 孝友하실 뿐 아니라 天理 人情이 幼時에 어이 부모를 사랑치 아니하시리오. 비록 각각 처소는 머나 다른 일이 없으니 이렇듯 사랑하오시고 교훈하사 예사 家人 父子 같으면 어찌 섬개만한 틈이 있었으리오마는, 國運이 그릇되려 하여 형용없고 지적할 곳은 없는 微細한 일에 聖心이 不言 중 격노하오셔, 한일 두일하여 어찌된 줄 모르케 동궁에 머무오시던 일이 차차 滅하오시니, 그 아드님이 막 자라오시는 아기네를 한 때만 가르치지 아니 하오시고, 禁戢지 못하면 任他하기가 쉬울 때 자연 아니 보오시는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으리오.

61) 정은임, 앞의 책, 311쪽.

壬午禍變이 萬古에 없는 일이니 당신께오서는 千萬 不幸하여 그 지경이 되오시나 아들을 두오셔 당신 자취를 잊고 上下慈孝가 無間하니, 다시야 무슨 일이 있을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오. 甲辛 이월 처분은 하 千萬 夢寐 밖이니, 우히 하신 일을 아랫사람이 감히 이렇다 하리오마는 내 그 때 정사의 罔極하기는 건주어 비할 곳이 없으니, 내 禍變 때 頑命을 결단치 못하고 살아 있다가 이 일을 당할 줄은 천만 罪恨이니…….

하기 위한 보신적 효에 불과했으며 이는 오로지 자신의 친정 가문과 세손의 안위만을 생각한 가식적인 효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1735년(영조 11년 을묘년)에 출생하여 1762년(영조38년 임오년) 28살의 일기로 홍서했다. 이름은 愔이며 뒤에 장조와 璋獻世子로 추존되었다. 자는 允寬이며 호는 毅齋이며 諡號는 思悼이다.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인 『한중록』의 저자 혜경궁 홍씨와 가례를 올려 영조의 뒤를 이어 대통을 잇게 되어 있었으나, 당쟁의 와중에 휩쓸려 부왕에 의해 비운의 죽음을 당했다.

그는 나면서부터 총명하여 3세 때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을 외우고 7세 때 『동몽선습』을 마쳤고, 글씨를 좋아하여 수시로 글을 쓰거나 시를 지어 대신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는 『한중록』을 보면 병중임에도 서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학문에 힘썼다.⁶²⁾

또한 그는 정치에 대한 식견도 매우 뛰어나 9세 때에는 당파를 초월한 인재등용을 주장했고, 10세 때 이미 집권 노론세력이 처절한 바 있는 신임사화를 비판하여 당시의 집권 세력인 노론을 당황케 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해 자신이 희생당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⁶³⁾

62) 정은임, 앞의 책, 48쪽.

경모궁께서 紅疹을 하오시니 나인들도 다 紅疹을 하여 불이 없는지라. -중략- 저기 낮자오신 후 매양 글을 읽으라 하오셔 읽혀 들으시게 하면 “書聲을 들으니 시원하다.” 하시고, 주야에 모셔 읽으시는 글을 다못 생각하되…….

63) 『정조실록 13년』, 10월 17일, 기미, 어제장헌대왕지문.

언제인가 한번은 영묘를 옆자리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영묘께서 “우리나라의 조정 관리들은 예부터 당파의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만 두게 할 수 있겠

이러한 결과 노론은 세자 제거를 위해 영조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하여 1749년 영조의 명에 의해 대리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세자의 나이 불과 15살이었고, 영조의 이러한 양위 소동은 당시 조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조는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로 하루 만에 철회를 하였지만 소심한 성격의 세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⁶⁴⁾

사실 대리청정이란 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건 정치적 요구나 다름 없었다.

봉건왕조 시대의 국왕의 권한은 막강하기 그지없어 군대통수권과 관료임명권, 국가법령의 최종결정권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또한 영조는 경종시 조성복의 세제참정요청으로 시작된 대리청정 요구 등 10여일 사이에 대리청정 요구, 환수, 철회 등 숨 막히는 정쟁을 몸소 겪었고, 이로 인해 대리청정이 얼마나 자신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한 왕이었다.

영조는 형인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세제인 자신을 지지하는 노론 사이의 공방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으며, 당시의 대리청정은 당시의 정국을 노·소론의 당우들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끌기 위한 정치적 고려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즉 명분으로야 경종이나 세제를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확고한 권력적 기반을 닦기 위한 노력이었다. 따라서 경종대의 대리청정에 관한 요구는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노론측의 요구가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측보다 더욱 비정상적이고 무례했다.

그들의 전횡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경종 원년 12월에 천재지변에 대한 구

는가?”고 물으니, “똑 같이 보고 함께 등용하면 될 것입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영묘께서 매우 기특히 여기고 기뻐하였다.

64) 『영조실록 15년』, 1월 11일, 무오.

언의 교지에 대한 答疏로 문장에는 능하나 본디 인품이 거칠고 남들에게 거스르는 일을 잘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김일경을 소두로 하여 박 필몽, 이진유, 윤성시, 서종하, 정해, 이명선 등 여섯 사람이 모여 소를 올린 것을 보면, 노론은 세제의 책봉 과정에서 경종마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다.⁶⁵⁾

이러한 어려움을 몸소 겪은 영조는 훗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고, 그 때마다 세자의 마음고생 또한 깊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16년 5월에 임금이 양위한다는 분부를 내렸다가 곧 도로 거두었다.⁶⁶⁾

물론 이 때의 양위 소동은 신하들이 당론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론의 노론에 대한 토죄를 중지시키는 한편, 각 당파간의 이해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했고, 영조가 내세운 대리청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붕당의 타파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심신의 허약함이었다.

하지만 이면적인 이유는 세자가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영명한 군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뒤에서 정무를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탕평정치를 되도록 빨리 익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사단으로서는 ①税金收取人 제도를 개혁한 균역법의 실시로 균역법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균역법을 실시하면 피해를 보는 계층 조사와 ②을해옥사로 인한 소론 강경파 제거 ③외척당 주도의 정계 개편(홍봉한, 김상로, 정우량)에 대해 이천보, 유척기, 이종성 중심의 淸流黨 정파를 형성하여 외척당을 견제하여 정국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나가

65) 『경종실록 원년』, 12월 6일, 임술.

66) 『영조실록 16년』, 5월 25일, 갑자.

고자 한 영조의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청정에 대해 太陽人이라고 알려진 영조와 少陰人으로 알려진 세자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인해 세자에게 이러한 난제는 극복되기 어려운 과제였으며, 『한중록』을 보면 세자는 부왕인 영조에 대해 극단적인 두려움을 나타낸다.

그로 인해 영조 28년부터 화병의 증세가 나타났으며, 영조 29년 은언군 탄생 후 영조의 꾸짖음이 많아져 별벌 떨고 지냈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사도세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단초는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먼저 『한중록』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세자의 성격은 과묵하고 민첩하지 못했으며 온유했고, 사람을 대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 대리청정 때에는 당론과 관계되는 일의 경우 이를 매우 신중히 처리하여 영조의 진노와 질책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사도세자는 어려서부터 영명하고 효성이 뛰어났으나 다만 영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⁶⁷⁾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니, 그것은 지금까지 궁중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세자의 질병을 훔치는 어떻게 알았으며, 또 세자의 이러한 질병이 왜 어려서부터 발생했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서 세자의 이상 성격에 관해서는 공교롭게 『한중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자는 어려서부터 영조와 선희궁 영빈 이씨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경종의 비 어씨의 나인들 손에서 양육된 결과 어린 세자는 이상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은연 중 밝히고 있다.⁶⁸⁾

67) 정은임, 앞의 책, 42쪽.

내 어려서 들어와 궁중 일을 뵈오니 睿質이 英偉하오시고 효성이 過人하오셔 선대왕께 두렵사어 하시는 밖에 성효가 거룩하오시고 정성왕후 받드시는 효성이 친히 탄생하오신 慈母신들 이 밖에 더하지 못할 것이요, 事親 섬기오시는 일은 더욱 어찌 다 형용하리오.

68) 정은임, 앞의 책, 226쪽.

사실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⁶⁹⁾ 인간의 성격 형성이 10살에서 12살 이전에 완전히 형성되는데, 특히 유아기 때 모든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프로이드가 제기한 성격 구조와 성격의 역동, 그리고 성격 발달 과정의 특성을 통한 이론을 원용하여 세자의 어릴 적 양육이 세자의 성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영조가 어린 세자를 어대비전의 나인들에게 양육시킨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세자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자 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세자의 희생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은 이드(id)와 에고(ego), 슈퍼에고(super ego)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각자의 구성 요소들이 적당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드(id)의 기능은 내적 자극이나 외적 자극에 의해 발생한 흥분을 즉각적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이드(id)는 모든 유기체의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쾌락 원칙(pleasure principle)'을 갖고 있으며, 쾌락 원칙의 목적은 긴장을 제거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도록 한다. 이드(id)는 이성이나

최초 일인 즉 젊고 애달픈 것이 하나는 어리신 아기를 儲承殿에 멀리 두심이요, 들은 괴이한 나인 들여오신 연고니 여편네 小瓊한 말이 아니라, 사실의 비릇함을 대략 거드노라. 저승전인즉 즉 어대비(필자= 경종의 계비 선의 왕후 어씨) 계오시던 집인데 아니 계오신지 오래지 아니하고, 저승전 저편 就善堂이라 하는 집은 희빈(필자=장희빈)이 갑술 후 머물러 인현성모(필자=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저주하던 집인데, 강보의 아기네를 황량한 존각에 혼자 두오시고, 희빈 처소는 燒廚房을 만들어 잡수는 음식 처소를 삼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리오. 어대비 國恤 삼년 후 어대비 부리시던 나인들이 다 밖으로 나갔더니, 동궁 排辦 제 체면 있게만 하려 하오시되 각처 나인이 搜召는 하거니와 어찌 하오신 성의 오신지 景廟와 어대비전 나인 나간 것을 최상궁 이하로 다 불리들여 元子宮 나인을 만드시니, 처소 나인들 모양이 景廟 계오신 듯싶을 것이요, 그 나인들의 氣勝하고 정 없기 이를 것이 없어 至微至細한 일로 비로소 탈이 나시니 어찌 한 되지 않으리오.

69) 켈빈 s. 홀, 『프로이드 심리학 입문』, 안귀여루 옮김, 범우사, 1996.

논리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나친 가치나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드(id)는 오직 ‘쾌락 원칙(pleasure principle)’에 따라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이드(id)에게는 오직 두 가지 결말만 있는데 하나는 행동을 통해 긴장을 방출하거나 원망 충족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아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드(id)는 적당히 해소되거나 방출되어야 하는데, 사도세자의 경우는 어렸을 때 잘못 형성된 이드(id)에 의해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도 방출되지도 못한 상태가 된 경우이다.

이드(id)는 성격이 형성되는 기초를 이룬다. 이드(id)는 일생동안 유아기적 특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긴장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며, 요구가 많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비사회적이며, 이기적이고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이드(id)는 상상이나 환상, 혼각, 그리고 꿈 등에 의해서 자신을 충족시키는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드(id)는 쾌락의 추구하고 통의 회피가 유일한 주관적인 현실의 세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드(id)에 대해 프로이드는 모호하고 접근이 불가능하고, 꿈이나 신경증적 증상의 연구를 통해 조금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이드(id)가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세자의 경우가 그러한데 세자는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관서 미행을 하거나 관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등 전형적인 이상 성격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⁷⁰⁾

70) 정은임, 앞의 책, 292쪽.

삼월은 罔措 중 지내고 또 사월이 된지라. 거처 凡百이 어찌 산 사람의 처하는 데 같으리오. 돌아간 사람의 甞所한 모양도 같고, 다홍으로 銘旌 모양같은 것을

이러한 세자의 성격을 프로이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고찰해 보면, 세자는 개인과 환경의 상호 교류는 새로운 심리적 체계를 필요로 하는 자아가 이드(id)와 초자아에 의해 굴복되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즉 정신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아는 성격의 집행자로서 이드(id)와 초자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며 전체 성격과 그것의 욕구 충족을 위해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한다. 자아가 집행자 역할을 잘 수행하면 조화와 적응의 상태가 된다.

그러나 만일 자아가 자신의 힘을 포기하거나 이드(id)나 초자아, 그리고 외부 세계의 힘에 굴복하게 되면 부조화와 부적응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세자의 경우는 초자아와 이드(id)가 자아보다 강했기 때문에 현실 원칙보다 쾌락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자가 올바른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영조나 어머니 선회궁 영빈 이씨가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보상이나 심리적 보상보다 심리적 처벌만을 함으로써 성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①口腔期 ②肛門期 ③男根期 ④性器期 ⑤潛在期로 나누었는데, 각 단계마다 어떠한 교육과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성격 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프로이드는 각 단계별 특징적 성격을 규정하기를, 口腔期는 입에 물건을 넣어서 생기는 촉각적 자극과 무언가를 깨무는 것에서 쾌감을

하여 세우고, 靈寢하는 형상처럼 하여 놓고, 그 속에서 침수하시고-중략-당신 天質은 진실로 거룩하시건마는 그 착하신 본성을 잃사오시고 아주 그릇 되시니 이를 어찌 차마 말할꼬.

홀연 오월에 땅을 파고 집 삼간을 짓고 사이 障子하고 마치 壙巾같이 만드오시고 나드는 문은 위로 내어 널 두에를 사람이 容身하여 다닐만 하계하고 그 널 위에 띠를 입혀 덮으니 집 지은 흔적도 없는지라.

느끼며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우유병처럼 쾌감을 주는 대상에서 입을 떼려고 하지 않으며, 입은 최소한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고, 깨물고, 뱉어내며, 다무는 다섯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각각 어떤 성격의 특성에 대한 ‘原型(prototype)’이나 최초의 모델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소유욕의 원형이고, 가지고 있려는 것은 결단력의 원형이며, 뱉어내는 것은 배척과 경멸의 원형이고, 입을 다무는 것은 거부와 부정의 원형이다.

이러한 특성이 발달하여 성격의 일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원형이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 경험되는 욕구불만과 불안의 양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口腔期의 원형에 집착하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轉位와 昇華를 통해서 구강기적인 관심, 태도, 그리고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

갓난아기가 口腔期의 긴장을 해소하고 쾌락을 얻으려면 외부의 대행자(대체로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口腔期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쾌락에 대해 위협을 많이 받으면 공격적 성격이 되기도 하는데, 세자의 경우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공격적 성격이 되었고, 그러한 결과 부왕에 대해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내면에는 증오와 두려움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세자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기는 口腔期 다음 시기인 肛門期로 보여진다.

肛門期는 배설을 통하여 긴장의 원천을 제거하고 안도감을 주는 시기로 두 살을 전후하여 나타난다. 배설은 감정적 폭발, 짜증, 분노, 그리고 그 밖의 원시적 방출의 심리적 원형이다.

이 시기에 행해지는 배변 훈련을 통해 어린이는 처음으로 규율과 외부적

권위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배변 훈련에서 본능적 카텍시스(배설하려는 소망)와 외부적 장벽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이 때 배변 훈련을 시키는 어머니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아이의 성격이 결정된다.

즉 어린이의 배변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간섭하고,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동반하다면, 아이는 나이가 들에 따라 지저분하고 무책임하며 무질서하고, 낭비와 사치를 함으로써 자기를 좌절시킨 권위적 인물에게 보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배변 훈련을 시킨 결과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함으로써 인자함, 선물을 주는 것, 자선, 박애 같은 행동을 한다.

물론 성장하여 자신의 잘못된 성격을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아이는 문화적으로 높은 대상으로 바꾸는 승화를 하기도 한다.

세자의 경우 그는 어렸을 적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정치적이든 아니든 자신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경종의 비 어씨 나인들에 의해 양육된 것이 세자에게는 첫 번째 비극이었다.

즉 그는 삶의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口腔期와 肛門期를 어대비 나인들에게 양육되었는데, 그들에게 세자는 자신들이 모시던 선왕에 대한 좋은 충성의 기회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자의 배변 등에 알게 모르게 통제나 처벌을 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세자의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훗날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증적 소심증 증세를 가져 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세자는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대비 나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해침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적 불안’과 초자아의 양심에 의한 ‘도덕적 불안’이 상충하여 나타난 것이다. 어릴 때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을 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잘 생기며 주로 ‘외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자의 경우는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대비 나인에 의한 양육과 영조의 사랑 결핍으로 인해 현실적 불안이 신경증적 불안으로 변하여 항상 어떤 무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과 소심증으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모든 신경증적 불안의 뒤에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한 본능의 원시적 소망이 감춰져 있는데, 그 대상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것을 원하고 있거나 혹은 두려운 대상이 상징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신경증적 불안의 또 다른 형태는 ‘恐慌 反應(panic reaction)’이라 불리는 것으로 갑자기 난폭해진다든지, 발작적 증세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해소시키려는 행동이다. 그리하여 무엇(성적 행위, 낭비 등)에 대해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의 특징들을 고찰해 본 결과 혜경궁 홍씨가 광증이라고 부른 세자의 병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성장기의 양육 잘못과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혼합적인 불안 증세로 인한 히스테리성 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록』을 통해 세자의 발병 형태(=발작 증세)를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데,⁷¹⁾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는 발작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

71) 정은입, 앞의 책, 263쪽.

병자 頭候로(필자=영조 32년 병자년에 일어나 세자의 痘症)로 오래지 아니하여 大故(필자=세자의 조모 인원왕후와 모후 정성왕후의 상사)를 당하오셔 悲慼도 하오시고 마음을 많이 쓰오시니 병환은 점점 더 하오시고-중략-육칠월 極熱 가운데 통명전에서 여러 가지로 受責이 잦오시니 그대로 격화와 병환이 점점

이 흐를수록 병의 증세가 더욱 심하여, 세자가 사람을 죽여야만이 화증이 풀린다.⁷²⁾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세자의 잠재의식 속에 자신을 괴롭혔던 어대비 나인과 그 외의 인물들,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을 전혀 주지 않은 부왕에 대한 적개심의 발로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세자의 경우 口腔期和 肛門期에 잘못 양육되었다고 하여도 영조의 자상한 훈육과 제왕에 대한 정상적인 수업만 제대로 받았다면 훌륭한 성군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성정을 억제하고 누르며 도덕적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린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올곧은 심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선 혜경궁 홍씨 자신도 세자를 모시고 있던 어대비 나인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최상궁은 잡념이 없고 충성은 있되 성품이 과격 청렴하여 雍容치 못하고, 한상궁은 幹能하고 詭譎하여 猜忌가 많은 인물이기에 영묘께 극진한 충성심이 없을 것이고, 또한 자신과 같은 나인이었던 선희궁(필자=세자의 친모 영빈 이씨)의 미시적 일만 생각하여 慢侮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놀이에 탐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한상궁의 흉악하고 무상함을 지적하고 있다.⁷³⁾

그러는 한편 세자의 자질이 성인이나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세

더 하오셔, 내관 매질하오시기가 그 때부터 더 하오시니, 초상에 거룩히 서러워 하시던 일로 비기면 喪 중의 매질이 잘못 하시는 일이요, 정축년(필자=영조 33년)부터 의대의 탈이 나시니 그 말이야 어찌 다 하리오.

72) 정은임, 앞의 책, 264쪽.

그 六月(필자=영조33년 정축 6월)부터 火症이 더 하사 사람 죽이시기를 시작하오시니, 그때 당번 내관 김한채라는 것을 먼저 상하오셔,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나인들에게 集示하오니,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으로 보았으니 흉하고 놀랍기 이를 것이 어이 있으리오.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 때 나인이 여럿 상하니, 그 갑갑하기 측량없어……

73) 정은임, 앞의 책, 229쪽.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교육시키듯이 세자를 교육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세자의 성격 형성에는 영조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부정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해진다.

그러면 이러한 점에 대해 영조는 사전에 몰랐을까? 자신을 증오하고, 선 희궁을 시기하는 경종의 비 어대비 나인들에게 양육시키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까?

물론 『한중록』만의 기록을 보면 영조는 이러한 점에 대해 전혀 모른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며, 영조는 처음부터 세자에 대해서는 부자간의 정리는 별로 없었던 듯하다.⁷⁴⁾ 이러한 점이 바로 영조와 세자 간에 골육상잔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세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이 없었던 것일까? 영조는 진성왕후 서씨에게서 후사를 보지 못했다. 대신 정빈 이씨에게서 효장 세자를 얻었지만 10살의 나이로 요절을 하고, 영조의 나이 40세가 넘는 1735년(영조11년)에 사도세자를 얻어 두 살 무렵에 세자로 책봉이 될 정도로 귀한 자식이었다.

그런데도 영조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영조가 모진 당파를 헤치고 살아온 자신의 외 굶주적인 성격을 아들인 세자에게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 아들도 스스로 모

74) 정은임, 앞의 책, 230쪽.

그렇듯 삼사년을 지내고 칠세 되시던 辛酉(필자=영조17년 1741)에 영묘계오서 韓冑의 심술을 깨닫자오서 兪出하오시고 다른 나인도 죄입은 이 많으니 그 처분이 지극히 옳으신지라. 그때 인하여 나인들을 다 내치시고 징계를 깊이 하셔 두 분 떠나지 말으시고 곁에 두오시고 가르치오시면 그 효심에 어찌 아니 좃아 계오시오마는, 그 나인만 내어 보내오시고 다른 나인은 다 두어 거룩히 받들고 아가네를 낳은 집에서 어른이 檢察치 아니하고 임의로 자라시게 하니 보시는 것이 宮人과 宦侍 뿐이니 무엇을 배우시리오.

든 세파를 이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점이 아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울러 세자가 자라면서 조급하고 민첩한 영조와 말수가 적고 행동이 굼뜬 세자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을 때, 마른 숲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 숙의 문씨와 동기간인 문성국과의 갈등, 화완 옹주와 정후겸의 권력욕,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 김씨 일문과의 갈등, 흥봉한을 중심으로 한 홍씨 가문과의 대립 등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임오 화변이라는 조선 최대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세자의 성격에 관한 기록을 실록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자는 부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왔다.⁷⁵⁾

즉 평상시에도 두려워하였던 부왕에 대한 감정이 영조32년 영조의 감시하에 실시된 대리청정을 행하면서 긴장의 연속과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억눌린 강렬한 욕구가 골수에 박힌 고질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바로 나경언 사건이었지만, 어찌 보면 나경언 고변은 폭발되기 위한 촉매제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부왕의 자신에 대한 태도는 세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면이기도 했다.

세자에 대한 저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매우 영명한 군주로 성장할

75) 『영조실록 36년』, 10월 5일, 병자.

대사간 이취중이 東宮에 入對하여 常參과 次對를 행하라고 진달하기를 “宮禁이 엄하고 깊은데 전하는 말이 的實하지는 알지 못하나, 옆드려 듣건대, 邸下께서 일을 하시는 사이에 문득 大朝께서 듣고 아실 것을 두려워하사 지나치게 우려 하신다.”고 하니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만약 과실이 없으시면 대조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뒤로는 대조에 上聞될 것을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처사의 손실이 있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니, 왕세자가 下訴하기를, “매사에 성상의 마음을 우러러 체득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안한 때문이다.” 하였다.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듯하다. 즉 그는 睿德을 갖춘 성군의 자질을 갖추고, 지나칠 정도로 사치를 배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⁷⁶⁾⁷⁷⁾

그러나 이러한 자질을 갖춘 세자도 1762년 김한구와 홍계희 윤급 등이 세자를 폐위시키고자 하여 윤급의 종인 나경언을 시켜 세자의 비행 10가지를 상주하게 하자, 이에 대노한 영조는 나경언을 참형하고, 세자를 휘령전으로 불러 자결을 명했으나 듣지 않자 폐서인한 후 뒤주 속에 가두어 8일 만에 죽게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해가 임오년이기 때문에 통상 임오 화변이라 부르며 『한중록』의 주요 소재가 된다.

본고에서도 이 점을 주로 다루어 『한중록』의 저자 혜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후 영조는 세자를 죽인 후 매우 후회하여 장례 때 친히 나아가 스스로 제주를 하면서 나라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알리고 위호를 복작시켜 思悼라 했다. 후에 아들인 정조에 의해 1777년 莊獻으로 추존되고 광무 3년인 1899년 莊朝로 추존되었다.

76) 정은임, 앞의 책, 224쪽.

천자를 배우시다가 사치 侈 가뭇 富에 이르러 사치 侈자를 짚으시고 입사오신 衣襟을 가리키오시며 이것이 奢侈라 하오시고, 영묘 幼時에 御하오시던 감토에 칠보 얽힌 것이 있어 쓰오시게 하니 이도 사치라 하오시고 아니 쓰시고, 周歲에 입어 게오시던 의대를 입으시게 하려 하니 “奢侈하여 남 부끄러워 싫다. 하오시니, 삼세 幼년에 기이하오신 일이니, 某臣이 시험하여 명주와 무명을 놓고 “어느 것이 사치요, 어느 것이 사치 아니오니까.” 하니, “명주는 사치라.” 하오시고 “무명은 사치 아니라.” 하오시니, 또 하시는 양을 보오려 “어느 것을 의대를 하여 드려 입사오면 좋사오리까.” 하온 즉 무명을 가리키시며, “이것이 좋으니라.” 하시니 이 일로 보아도 탁월하시던 줄을 거의 알지니라.

77) 정은임, 앞의 책, 279쪽.

濫行하려 하실 적은 사람이 다 죽게 되었더니 성문을 나니 激火가 내리셨던지 영을 내리셔 一路의 作弊를 못하게 하시고 지니시는 길에 恩威가 병행하시니, 백성이 鼓舞하여 “聖明之主시라.” 하고, 行宮에 드오신 후도 一樣 덕을 들이오시니 온양 일읍이 고요 안정하여 “睿德을 축수 찬양하더라.”

한편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만남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숙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만남은 태생적으로 융화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자를 지지하는 봉당은 소론이었고, 혜경궁 홍씨의 출신 가문은 노론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중록』 기록만을 토대로 고찰해 보면 두 사람이 당파로 인해 틈이 벌어졌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나 당시 영조가 아무리 탕평책을 펼쳐 당파간의 대립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해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영조 당시에는 이미 궁중에서도 당파간의 대립과 당파간의 친목을 위한 유대 관계가 강하게 결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한중록』에도 보이는데, 노론인 홍봉한이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에 더욱 기뻐 눈물까지 흐른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영조 또한 자신이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노론 인사인 홍봉한이 지난번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해 매우 애닦게 생각했다고 기술하고 있다.⁷⁸⁾

이처럼 혜경궁 홍씨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겉으로는 순종의 덕을 갖추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친정 편을 드는 한 사람의 당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홍봉한은 혜경궁 홍씨가 간택이 되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예경을 다하여 위로는 임금과 왕후를 극진히 섬기고 아래로는 남편인 세자를 섬김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르치고 있다.⁷⁹⁾

78) 정은임, 앞의 책, 41쪽.

79) 정은임, 앞의 책, 37쪽.

선인이 경계하오시되-중략-“삼전 섬기움을 삼가고 조심하여 효성을 힘쓰시고, 동궁 섬기움을 반드시 옳은 일로 돕삼고 말씀을 더욱 삼가 家國의 복을 닦으소서.”

그러나 혜경궁 홍씨는 자신의 남편인 세자에 대해서는 천명으로 이미 잘 못되었으니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⁸⁰⁾

그리고 남편인 세자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잘못된 환경 때문에 성격 형성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은연 중 밝혀 이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죽음은 들이킬 수 없었기에 자신은 세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니, 경모궁의 양육을 하필이면, 경종의 나인들에게 맡겼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영조 자신 개인적인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면 경종과 영조는 매우 우애가 깊었는데, 매번 世弟를 보면 반드시 웃는 얼굴을 하였고 때때로 친히 동궁으로 가서 우두커니 문밖에 서서 “우리 동생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도다. 소론의 여러 신하들이 또한 다 진심으로 보호하여 동궁이 편안하다.”⁸¹⁾라고 말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두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당쟁은 격렬했지만 형제간의 우애는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제간의 우애와 아들의 양육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영조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80) 정은임, 앞의 책, 225쪽.

體貌가 웅장 석대하오시고, 천성이 효우 총명하오시니, 만일 부모님네 곁을 떠나 말으시고 범사를 敎導하사 자애와 가르치심을 並行하여 계오시더면 德氣의 成就하심이 어떠하시리오 마는 일이 그렇지 못하여 일찍이 각각 멀리 떠나 계오신 일로 인연하여 전전하여 작은 일이 크게 되어 畢竟 말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天數의 불행함과 국운의 罔極함이니 인력으로 용납할 터이 없으려니와, 나의 至冤至痛이야 어찌 측량하리오.

81) 이견창, 앞의 책, 298쪽.

每見世弟 必有笑容 有時親詣東宮 佇立門外曰 欲聞吾弟讀書聲 少論諸臣 亦皆盡心保護 諸位以安云.

왜냐하면 당시는 경종에 대한 영조를 중심으로 한 노론의 독살설이 끊임 없이 제기된 후의 일이고, 경종의 나인들 또한 영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원자를 어대비전 나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의 하나이다.⁸²⁾ 물론 그때부터 영조 사후 세자가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할 것이라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풀리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혜경궁 홍씨는 세자의 관서 미행을 영조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한데, 이는 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과 세손에게 닥칠 화를 염려한 조치였다.

이러한 세손 구하기는 혜경궁 홍씨만이 아니라 홍봉한조차도 세자를 구하려 힘쓰기보다는 세손 보호에 더욱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³⁾

이러한 혜경궁 홍씨의 태도에 대해 세자는 직접적으로 비판의 화살을 날

82) 정은임, 앞의 책, 226쪽.

幼時에 德氣 이상하시오시고 行動이 有法하여 常없지 아니하시오시고, 氣像이 嚴重하시오고 언어 沈默하시어 뵈옵는 이 어른 임금 모시나 다르지 않게 여기더라 하니, 이러하신 天稟에 이 資質로 부모 측을 떠나지 마오시고 부왕께오시는 萬機 여가에 글 읽고 배우심을 곁에서 몸으로 가르치시고, 母嬪께오서라도 이 아드님 成就하는 일이 당신께 으뜸 所念이시니 손 밖에 내지 마오시고 일을 따라 指教하시어, 일변 嚴毅하시오시고 일변 친애하시어 翕然히 사이가 없사오시고 任他케 마오시더면 일이 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오.

최초 일인 즉 쉽고 애달픈 것이 하나는 어리신 아기를 儲承殿에 멀리 두심이요, 둘은 怪異한 나인 들여오신 緣故니 여편네 小瑣한 말이 아니라, 사실의 비릇함을 대략 거드노라.-하략-

83) 정은임, 앞의 책, 283쪽.

西行하신 후-중략-小朝 하시는 일을 大朝께 차마 아뢰지 못 할 것이니 諫할 터이 어이 있으리오. 諫할 만하면 무슨 마음으로 간치 아니하였으리오. 설사 간하나 듣자오실 리 없고 連坐는 내 몸 보전치 못할 것이요, 자녀들까지 어찌할 줄 모르니, 諫코자 양으신 것이 아니로되 전혀 병환이시니 以心으로 세손만 보전하려 하시는 苦心이신데, 모르는 이는 輔導 잘못한다 責望하니 놀더러 이리이러하다 말을 할까 싶으노. 그저 만나신 바 崎險하시니 쉽고 쉽도다.

린다. 즉 자신은 이미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구명보다는 세손의 구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자는 자신의 목숨을 지켜 줄 사람은 혜경궁 홍씨도 흥봉한도 노론도 아닌 소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를 보호해주고 위험에서 구해줄 사람은 소론측 인사인 조재호였기에 춘천에 가 있었던 그를 불러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려고 조유진을 춘천으로 보내기도 했다. 이 때의 정황을 『한중록』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舉動을 들으시고 恐懼하여 아무 소리도 없이 “器械와 말을 다 감추어 경영한 대로 하라.” 하시고, 父子 타시고 경춘전 뒤로 가시며 나를 오라 하시니, 근래 눈에 사람 곧 아니 뵈이면 일이 나니 교자에 가마두에 하고 四面帳을 치고 다니시고, 춘방관과 밖엔 또 학질이 있다 하여 계시더니 그날 나를 德成閣으로 오라 하오시니. 그 때가 오정 썸이나 되는데 暎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慶春殿을 에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徵兆런고. 괴이하여 세손손이 환경전 계신지라. 내 마음이 遑遑한 중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세손더러 “아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친만당부하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舉動 이 어찌 遲滯하여 未時 후나 휘녕전으로 오신단 말이 있더니, 그리할 제 小朝께서 나를 덕성함으로 오라 재촉하시기가 뵈오니 그 壯하신 氣運과 不好하신 言辭도 아니 계오시고 고개를 숙여 沈思商量하여 벽에 의지하여 앉아 계오신데, 안색이 놀라오서 血氣 滅하오시고 나를 보오시니 웅당 火症을 내오셔 오죽하지 아니 하실 듯, 내 命이 그날 마칠 줄 스스로 염려하여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辭氣 생각과 다르오셔, 나더러 하시되 “아마도 怪異하니 자네는 좋이 살게 하였네. 그 뜻들이 무서워.” 하시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虛荒하여 손을 비비고 앉았더니, 휘녕전으로 오시고 小朝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할 손, 어이 “과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하시고, 左右를 치도 아니 하시고 조금도 火症내신 氣色없이 袂龍袍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하니 세손의 휘향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향은 작으니 당신 휘

항을 쓰시고자 하여 내인더러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夢寐 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무커나 무섭고凶한 사람으로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하기,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 사외로워 세손의 휘항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겠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은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오, 우리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아무렇다 없었기 천만 의외의 말씀 하시니, 내 더욱 서러워 다시 세손 휘항을 갖다 드리며 “그 말씀이 하 마음에 없는 말이시니 이를 쓰소서.” 하니 “싫어! 사외하는 것을 써 무엇할꼬.” 하시니, 이런 말씀이 어이 병환 드신이 같으시며, 어이 공순히 나가려 하시던고. 다 하늘이니 冤痛冤痛하오다.⁸⁴⁾

이처럼 혜경궁 홍씨는 임오년에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게 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임오년 사건에 대해 혜경궁 홍씨는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즉 영조 38년 임오년에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의 대처분을 영조에게 건의한 후의 상황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한중록』에도 있으니, 세자는 지금까지와 달리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줄 사람은 춘천에 낙향해 있던 조재호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조유진을 보내어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고자 하였다.⁸⁵⁾

84) 정은임, 앞의 책, 298쪽.

85) 정은임, 앞의 책, 297쪽.

그날 들보에서 부러지는 듯이 壯히 소리가 나니, 들으시고 歎息하시되 “내 죽으려나 보다. 그 어인 일인고.” 하시고, 그때 先親이 宰相으로서 첫 오월에 嚴旨를 만나서 罷職하시고 東郊에 달작시나 나가 계시니 小朝께서 당신이 스스로 危殆하셨던지, 조재호가 原任大臣으로 춘천에 있으니, 계방(필자=세자 익위사의 별칭) 조유진으로 하여금 말을 통하여 올라오라 하신다 하니, 이런 일을 보면 병환 계신 이 같지 아니하니 이상한 하늘이로다.

당시의 조정의 실권은 노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화급한 일에 자신의 장인인 홍봉한보다는 멀리 있는 조재호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세자 자신이 이미 혜경궁 홍씨나 홍봉한 등의 홍씨 일문이 자기에게 결코 우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세자빈 혜경궁 홍씨의 태도 또한 남편의 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 위의 인용문은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을 아뢰고 대처분(필자=세자를 죽이는 일)을 해 달라고 아뢴 후의 일로서 남편의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을 때,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이거늘 하물며, 남편이 살아남기 위해 아들의 휘항을 쓰려고 하니 그것마저 거절하는 냉정함을 보인다.

또한 혜경궁 홍씨가 남편을 구하고자 하엿더라면 東郊에 나가 있는 친정 아버지 홍봉한에게 사람을 보내 조재호가 도착하기 전에 남편에 대한 영조의 처분을 막았어야 도리였다. 그런데도 혜경궁 홍씨는 아버지가 동교에 달포가 넘게 머물렀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짐작한 세자는 드디어 혜경궁 홍씨를 보고 무섭고 흉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혜경궁 홍씨는 남편이 영조의 노여움을 사 언젠가는 피하지 못할 대화변이 있을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고, 이러한 모든 정보는 환관과 궁녀들을 통하여 혜경궁 홍씨 뿐 아니라 홍봉한을 위시한 노론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궁중 내의 환관이나 궁녀들조차 자신의 당파를 가지고 있었으며, 영조 또한 그들의 횡포에 대해 “근래에 宦官 무리가 作備하는 습성이 없지 않으니, 한나라 때의 十常侍와 당나라 때의 三木使가 지금 다시 생

기려 하는 것인가? 내가 비록 노쇠했으나 太阿劍이 손에 있으니 어찌 이런 무리들의 제재를 받겠는가?”⁸⁶⁾라고 개탄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3) 홍봉한

홍봉한은 1713년 선조의 부마도위 영안위 홍주원의 5세손으로 홍현보의 아들이며 홍인한의 형으로서 사도세자의 장인이다. 그는 영조 11년(1735년)에 생원이 되고, 음서로 참봉, 세자익위사, 세마 등을 지냈다. 1743년 딸이 세자빈으로 뽑힌 뒤 이듬해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관이 되었다.

그 뒤 승진을 거듭하여 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고, 좌참찬으로 승진하였다. 1759년 세손사가 되고 1761년 세자의 평양원유원 사건에 대한 인책으로 이천보, 민백상 등이 자살하자 우의정에 발탁되고, 뒤에 영의정에 올랐다.

그런데 그에 대한 세간의評은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정조 2년 12월 4일에 그가 죽자, 그날의 실록에서는 홍봉한에 대한 즐거움을 비판적으로 적고 있다.⁸⁷⁾

그는 노론의 영수로서 1762년 세자가 폐서인 되고 뒤주에 갇히자 대세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여 세자가 뒤주 속에 갇히던 날 한강에 나가 여러 대신들과 뱃놀이를 즐겼다.

86) 『영조실록 51년』, 12월 3일, 병오.

87) 『정조실록 2년』, 12월 4일, 경신.

봉조하 홍봉한이 추하였다.-중략-변변치 못한 才能으로 왕실의 至親임을 假託하여 특별히 영종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五營과 六官의 장관을 지냈다. 신사년에 卜相되어 지위가 上相에 이르렀는데 작은 碁局에 갑자기 귀하게 되었으므로 모질고 강박한 성질을 멋대로 부렸다.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였으며 善類들을 미워하여 은밀히 증상당한 사람이 많았다. 아들 셋과 아우 둘이 모두 조정에 布列되어 權柄을 농락하여 마구 휘둘렀는데, 권세의 기염이 대단하여 감히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영조38년 세자를 극력 보호하기 위해 힘썼던 조재호가 탄핵되어 삭직되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조에게 건의하여 아뢰기를,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이 잘한 일이며, 자신도 이에 적극 찬동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책임에 대한 회피를 위해 이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⁸⁸⁾

또한 영조38년의 기록을 보면 세자의 장인이며, 좌의정으로서 홍봉한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영조가 세자를 서인으로 폐하니 이에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자 춘방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렸으나, 홍봉한을 비롯한 신하들은 감히 간하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했다.⁸⁹⁾

이때 세자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홍봉한은 세

88) 『영조실록 38년』, 8월 12일, 임인.

판부사 홍봉한이 말하기를, “조재호의 일은 마땅히 《關義昭鑑》처럼 한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아! 만고에도 없는 때를 당해 없던 일을 행하였는데, 이는 종사와 국가를 위한 큰 의리가 되는 것이니, 곧 하나의 의에 합당한 것이다. 저 조재호의 일이 마침 이때에 있었으니, 그 때 여러 供招 중에 이른바 ‘보호한다.’, ‘불리하다.’는 말은 진실로 천만 뜻밖이다.”-중략-홍봉한이 말하기를 “이것으로써 말하고 싶은 것은 또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때에 영빈께서 아뢴 것은 오로지 전하를 위한 것이었으니 성상께서 단행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신이 성상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여러 신하들이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장래의 인심이 오늘 전하의 앞에 있는 것과는 다를 것이 염려되니,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방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89) 『영조실록 38년』, 5월 13일, 을해.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을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하고 이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傳敎를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가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신만과 좌의정 홍봉한, 판부사 정휘량, 도승지 이이장, 승지 한광조 등이 들어왔으나 미처 진언하지 못하였다.-중략-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차마 들을 수 없는 傳敎를 내려 동궁의 자결을 재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春坊의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임금이 이어서 廢하여 庶人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이 때 신만, 홍봉한, 정휘량이 다시 들어 왔으나 감히 간하지는 못하였고, 여러 신하들 역시 감히 간쟁하지 못했다.

자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버렸으며, 세자가 곡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청하자 동승지 이이장이 임금께 아뢰기를 어찌 한 여자의 말로 국본을 흔들려고 하느냐(필자=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영조에게 청한 일)고 진언할 뿐이었다.

또한 홍봉한은 좌의정으로서 영조가 세자를 처결한 것에 대해 흠양하기도 했고,⁹⁰⁾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차자를 올려, 영조의 임오년의 일을 국가와 종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진언하고 있다.⁹¹⁾

그러는 한편 세자의 죽음에 대해 홍봉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자신이 스스로 밝히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영조 38년 영조에게 올린 차자를 보면 자신은 세자를 위해 죽고자 했으나 말은 바일 때문에 죽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⁹²⁾

90) 『영조실록 38년』, 8월 26일, 병진.

을묘년 봄에 사도세자께서 탄생하셨습니다. 天靈이 뛰어나시고 덕과 기량이 寬厚하여 성상께서도 걱정이 없으시고 神人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중략- 아! 그날 성상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신에게 諭示하시기를, “세자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온 세상이다 알고 있다. 경은 오로지 병 때문이라고 하나 나는 오로지 병 때문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병도 또한 狂氣이며 狂氣도 또한 병이니 병과 狂氣 때문에 온전한 도리를 잃고 變도 없잖아 있어서 점차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중략- 아! 왕의 말씀이시여, 정녕하고 간곡하여 徑道와 權道가 중용을 얻고 의리가 바름을 얻었습니다. 신은 창황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울면서 말씀을 받들어 듣고 지금도 엄숙히 외고 있습니다. 일이 지나간 후에 전하께서 빨리 位號를 복구하라는 명을 내리시고 이어서 諡號를 내리는 은전을 배푸셨으며, 혼궁의 예식과 묘소의 의식에도 국체를 적용하여 조그마한 欠節(흠절)도 없게 하셨습니다. 장례에 임하시어 제문을 지으시고 신주를 써서 所懷를 펴셨으니, 이는 대개 자손을 위하여 법을 굽혀 恩義를 둘 다 온전히 하려는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신은 더욱 감격을 못 이겨 감탄하였습니다. -중략- 아! 성상의 이번 거조는 진실로 부득이한 것이었고 그날의 敎示도 역시 부득이 한 것이었습니다.

91) 『영조실록 38년』, 5월 28일, 경인.

좌의정 홍봉한이 임금께 아뢰기를, “이번의 일로 말하면 전하가 아니셨으면 어떻게 처치하였겠습니까? 외간에서는 전하께서 결판을 짓지 못하실까 염려하였는데, 畢竟에는 결판을 지어 血氣가 將盛할 때와 다름이 없었으니, 신은 欽仰하여 마지않았습니다.” 하였다.

92) 『영조실록 38년』, 8월 26일, 병진.

그러나 그 뒤 영조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세자에 대한 諡號를 내리자 태도를 바꿔 사도세자를 죽게 한 김귀주 등을 탄핵하는 정치적 노회함을 보였지만 일반 사류들로부터는 좋지 못한 평을 받았다.⁹³⁾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홍봉한의 무죄를 거듭 주장하지만, 홍봉한은 세자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손재 조재호가 1762년 사도세자를 구하기 위해 상경했다가 오히려 홍봉한 등의 무고로 인해 종성에 안치되었다가 사사되었음을 볼 때 홍봉한의 행동은 더욱 분명해진다.

조재호는 풍양인으로 진종의 國舅인 조문명의 아들로 효순왕후와 동기간이었으며 사도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그가 춘천에 은거하고 있을 때 엄홍복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남봉사라는 자도 상신의 좌석에 있었다.'라는 구절을 문체 삼아 홍봉한 일파에 의해 무고히 죽었으며, 사도세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세자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오직 조재호밖에 없다는 생각에 '조모나 있으면 내가 살아날 도리가 있으련만'하여 조유진을

아! 사도세자가 친히 믿을 사람이라고는 臣만한 이가 없었고, 사도세자는 내가 모시는 임금의 아들이니, 臣이 어찌 진하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세자에게 충성하지 않으려 했겠습니까? 옛날에도 태자를 위해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 때의 일과 정상이 이토록 罔極한데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신이 대궐의 섬들에 머리를 부수어 죽음으로써 잇는 것을 어찌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다만 잡은 바가 지엄하고 명을 받들기에 겨를이 없어서였으니, 이 어찌 사도세자를 잊어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한번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93) 『정조실록 2년』, 12월 4일, 경신.

壬午年의 禍變이 있었을 때 못 신하들은 肝膽이 무너져 내려 어찌할 줄을 몰랐는데, 홍봉한이 앞장서서 아뢰기를, '신은 오로지 聖躬만 알 뿐입니다.' 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다시 정승이 되어 거리낌 없이 放恣한 짓을 마구 하였다. 그 뒤 또 追崇하여 入廟시키려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離筵을 恐動시켰는데, 이는 대개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것을 알고 임금의 뜻을 엿보아 살피려는 것이었으니, 이에 한때 淸議를 지닌 자 가운데 공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보내 급거 상경하게 하여 조재호가 상경하였으나, 세자 구명의 상언도 하지 못하고 삭출되는 불행을 맞보았다. 그 뒤 그는 영조 51년 5월에 직첩을 받고 서용되었다.

또한 홍봉한은 그 후 『수의편』을 찬술하여 세자의 죽음의 전말을 상세히 적어 반대파인 김귀주 일파인 벽파 제거에 이용하였으며, 영조의 탕평책에 부응하여 당쟁의 폐해, 인재의 발탁 등의 내용을 담은 시무6조를 제시하는 등 국정쇄신에 노력하였으나 정조 즉위 후 사사되었다.

홍봉한에 대해 박광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봉한은 특정 상인에게 경솔하게 靑·藍色 물감 독점권을 주었다고 비판받았다. 즉 정치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정계 최고 실력자들의 비리 목록에는 예외없이 상인과 결탁했다든지, 유통경제를 이용하여 재부를 축적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⁹⁴⁾

위의 것으로 보아 홍봉한이 당시의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 내지는 정치 자금(필자=비자금)을 조성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홍봉한은 처음부터 세자를 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조 원년 3월27일 동부승지 정이환의 상소에 의하면 임오 화변 시 일물(필자=세자가 간혀 죽은 뒤주)을 들인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대해 『한중록』에서는 ‘임오 화변과 홍봉한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자신도 아버지보다는 남편이 더욱 중한데, 어찌 남편을 버렸겠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⁹⁵⁾

94)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2001, 278쪽.

95) 정은임, 앞의 책, 190쪽.

대체 만일 경모궁 병환이 萬萬難言之境이 아니오시고, 영묘께서 모르시는 데 선친이 괴이하야 영묘께 아뢰셔 一物을 드려 “이리이리 처분하소서.” 권하여 계시면, 내 비록 부너지간이나, 所天은 아비에서 重하니 내 아무리 무식한 여편네라도 그만 의리는 아는 것이니, 그 때 내 한번 죽어 따르기를 어찌 판득치 아니

그러나 임오 화변 당시 『한중록』에도 나타나 있지만, 혜경궁 홍씨는 남편의 구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며, 도리어 아버지의 말에 충실한 딸이 되고 있음은 어찌 설명하여야 하는가? 『한중록』을 상세히 고찰해 보면 곳곳에 아버지 홍봉한의 행적을 변명하기를 영조에게 충절의 말을 아뢰는 것도 동궁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⁹⁶⁾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홍봉한의 세자에 대한 잘못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중록』 집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4) 홍인한

홍인한은 홍봉한의 동생으로 1722년에 태어나 1776년에 졸했다.

그는 1753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로 삼사를 역임하고 2도의 감사를 역임했으며 좌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혜경궁 홍씨의 중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 선 노론 벽파의 영수로 활약했다.

그리하여 홍인한은 사도세자 사후 보복을 두려워하여 세손을 제거하려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정조 즉위 후 여산에 유배된 후 사사

하며 설사 목숨을 결단치 못한다 하여도 내 어찌 차마 부녀의 정의를 보전하였으며…….-하략-

96) 정은임, 앞의 책, 204쪽.

八十人君이 과거로 그리 하오시니, 비컨대 인가 노친이 無情之事로 걱정하면 자제들이 彌縫하노라 비는 모양처럼, 그때 선친 처지에 성심을 激怒하오시게 하올 터이 아니라, 본심은 뉘 모를 것이 아니기, 請布도 하고 목전을 무사하게 하려 하시니 때를 艱險하게 만나신 탓이지 실은 당신이 계셔 동궁만 보호하여 國本을 튼튼히 하오시고, 其外事는 노인네 일시 과거를 어찌 할 것이 아니니, 畢竟 바르게 할 때 있을 줄로 마음을 가져 계시니 근본인즉 다 觀過知仁이요 동궁 위하신 고심이라.

되었다.

그는 세손의 등극을 막기 위해 신하로서는 입에 올리기 힘든 말도 서슴 없이 하였다. 사료를 살펴보면 임금이 세손에게 전선하고자 시·원임 대신을 불러 놓고 대신들에게 구언을 하자 홍인한은 왕의 면전에서 불가함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⁹⁷⁾

그리하여 동궁과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아 임오 화변 이후 세손에게도 三不必知說을 주장하여 세손과도 사이가 나빠져 자신의 형님을 비롯한 풍산홍씨들은 세손 보호에 진력을 다할 때, 그는 김귀주 일파와 결탁해 세손 즉위에 극력 반대하다 정조 즉위 후 여산에 유배된 후 사사되었다.

그러나 혜경궁 홍씨는 홍인한과 영조의 대화가 한 문장 속에 둘 이상의 어구가 있을 때, 그 어구에 공통되는 어구나 글자를 이룰 때 서로 잘못 해석되어 생긴 오해라고 자신의 증부를 변호하고 있으나,⁹⁸⁾ 홍인한은 뒤에 세손(필자=훗날의 정조)의 등극까지도 반대하다 혜경궁 홍씨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혜경궁 홍씨의 변명에 불과하다.

97) 『영조실록 51년』, 11월 20일, 계사.

그러나 聽政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본래부터 국조의 고사가 있는데, 경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홍인한이 말하기를, “東宮은 老論이나 少論을 알 필요가 없고, 吏曹判書나 兵曹判書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祖師까지도 알 필요 없습니다.” 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말하기를, “聖上の 顔厚가 더욱 좋아지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은 이러한데 경 등이 몰라주니 참으로 개탄스럽도다. 心法을 어린 세손에게 전하여 주려고 하는데, 《自省篇》 《警世問答》은 곧 나의 사업이다.” 하였다.

98) 정은임, 앞의 책, 136쪽.

“당신은 妙理있게 아뢰노라 한 말씀이 蒙上文(필자=같은 날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생기는 오해)하여 문자오신 세 마디를 가지고 대답한 세 마디가 되었으니, 妄發이라 하면 그는 죄이거니와, 그로 역적이 되기는 천만 애매하고 천만 원통하니, 당신이 비록 被禍를 하였으나 지하에선들 어찌 눈을 감으며 마음에 항복하리오.”

또한 영조의 담후가 심해져 세손에게 양위하려고 하자, 홍인한은 영조의 하교에 대한 기록까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무례함을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⁹⁹⁾ 동궁조차도 안전에 두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행동을 보였다.¹⁰⁰⁾ 또한 그는 시·원임 대신 등의 주청으로 동궁에 대한 거동을 거두자 홍인한이 기뻐하였으며, 세손에 대한 홍인한과 정후겸 일파 그리고 화완옹주는 동궁에게 임금의 위가 전해질까 두려워하여 잠시라도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았으며, 동궁에 대한 위해는 영조에게도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였다.¹⁰¹⁾

또한 동궁이 자신이 빨리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영조가 속히 죽기를 바라는 투로 말한다고 욕박지르기도 하였다.¹⁰²⁾ 이처럼 홍인한을 비롯한 무리들은 정조의 등극을 막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했다.

99) 『영조실록 51년』, 11월30일 계묘.

100) 『영조실록 51년』, 11월 30일 계묘.

이때 東宮이 侍坐하고 있다가 이 전교를 곁에서 듣고서는 걱정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홍인한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參涉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사세가 急迫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상소하여 施避하여야 합니다. 비록 두서너 글자라도 文蹟이 있는 뒤에야 진소할 수가 있으니, 두서너 글자라도 꼭 榻敎를 받아 내가 진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 하니, 홍인한이 묵묵히 앉아 응답하지 않고 승선을 돌아보며 손을 저어 중지하도록 하였다.

101) 『영조실록 51년』, 11월 30일, 계묘.

청정에 대한 의논이 일어나게 되자 홍인한 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온갖 방법으로 저지시켰으며, 더욱 급하게 안으로는 이목을 포치하고 밖으로는 당여를 끌어 들여서, 혹은 말을 지어내어 협박하기도 하고 혹은 허튼 말로 탐지하여 시험하기도 하였다.-중략-김중득과 하익룡 같은 무리는 홍인한의 凶計를 몰래 받아가지고 眞書와 諺文으로 된 匿名의 글을 존현각에 투서하였는데, 그 내용이 凶悖하였다. 포도청에서 그들을 잡아내니, 홍인한이 동궁을 위협하여 그들을 끝까지 審問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강도로 照律하여 종을 만들게 하였다.-중략-동궁이 혹 편안히 쉴 때가 있으면 정후겸의 어머니 화완옹주는 반드시 사람을 시켜 정탐하게 하여 좌우에서 엿보았는데, 동궁이 혹 宮僚들을 불러 만나보는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102) 『영조실록 51년』, 11월 30일 계묘.

동궁이 늘 임금의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을 초조히 생각하고 염려하면, 홍인한과 정후겸의 무리는 문득 ‘저하께서는 임금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말을 주고받는 것만을 소일할 일로 여기십니까?’ 하였으니…….

그는 외척의 위세를 미끼로 화완옹주의 양자인 정후겸과 윤양후, 홍지해 등과 결탁하여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상하의 지탄을 받았으며 동궁 보호를 명분으로 군신의 예에 벗어난 행동으로 눈총을 받았다. 그러한 결과 영조 52년 문신 제술의 고관에 홍인한을 의망하다에 보면, 홍인한의 폐악과 정후겸의 무리와 어울려 영조와 정조에 대한 기군능멸의 죄를 밝히고 있다.¹⁰³⁾

특히 홍인한의 죄상은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보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홍씨 자신이 사사로운 정보다는 국가의 사체가 앞서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자신의 증부인 홍인한에 대해 변호로 일관하고 있다.¹⁰⁴⁾

예컨대 영조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는데, 홍인한은 극력 반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혜경궁 홍씨는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홍인한에 대해 변명하고 있지만,¹⁰⁵⁾ 앞서 홍인한에 대해 평가하기를 홍인한의 학문적 성취가 아버지 홍봉한보다도 낮다고 기술하거나, 학문은 부족하나 눈치는 남보다 빠르다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증부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¹⁰⁶⁾

103) 『영조실록 52년』, 2월 11일, 계속.

104) 『정조실록 원년』, 7월 5일, 갑술.

105) 정은임, 앞의 책, 134쪽.

英廟 “대리하자.” 하시는 말씀이 다 시험하는 말씀으로 알아 疑懼하고 황겁하여 그저 미봉만 하여 가려 하기 인사상으로 “저런 하교를 어이 하시옵나이까. 臣子가 되어 어찌 감히 봉송하오리까.” 이리하여 목전을 挨過하고, 영묘께오서 정신이 점점 昏眩하오서, 讒語를 반 넘어 하오시니 그때 庭試수도 내리오시고, 일없이 進賀수도 내오시고, 齋廟朝 재상 김진구를 “藥房提調 除授하라.” 이런 전교를 다 하오시다가 정신이 깨치오시면 뉘웃자오시고, “어이 頒布를 할까보니.” 하실 적이 잦으니, 이 대리를 짐짓 하시고자 하시는 줄 알았으면 仲父가 비록 학식은 부족하시나, 그런 일불이 눈치는 남보다 낮게 아시는 성품이라, 어이 즉석에 봉송하여 당신 공이 되고자 아니하실 리 있으리오.

106) 정은임, 앞의 책, 131쪽.

내 仲父가, 세상이 “선친 아우로 공명을 한다.” 하되, 실은 그렇지 않아 登科 초에 영묘께오서, “大用할 인물이라.” 일컬으시고, 그 후에 “형보다 낫다.” 하시

또한 선조가 명종이 윤임 등이 봉성군을 역륙로써 죽인 것을 신원해 준 옛일을 들추어 자신의 친정 중부를 신원해 주기를 은근히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⁷⁾

그런데 그녀의 중부 홍인한은 소위 말하는 十六字 凶言 즉, 죄인의 자식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불가하다. 태조의 자손이면 어느 누구인들 불가하겠는가?¹⁰⁸⁾를 들먹이며 자신의 아들인 세손의 등극을 극력 반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한중록』에서는 곳곳에 중부를 변호하는 글이 보이니, 이는 이미 아들이 왕위에 등극했기 때문에 중부에 대한 구원을 벗고 친정 가문의 모든 인물에 대한 신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5)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오홍부원군 김한구의 딸로서 본관은 경주김씨이며 1745년(영조 21년) 출생하여 1805년(순조15년)에 졸하였다. 그녀는 1759년(영조35년) 15세 때 66세의 영조의 비로 간택되어 궁중에 들어온 이후 단호한 성품으로 궁중의 법도를 잡았지만, 훗날 자기보다 11살이나 많은 아들 사도세자와 틈이 생겨 세자를 죽이는 배후 세력의 중추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정순왕후와 사도세자 그리고 혜경궁 홍씨가 처음부터 사이가 별

기까지 하여 계시니 당신 際遇가 본디 융중하신지라.

107) 정은임, 앞의 책, 142쪽.

내 이제는 오래지 않아 명이 盡할 것이니 만일 仲父를 伸雪치 못하고 돌아 가면 萬歲에 삼촌 죽인 사람이 되어 귀신이라도 용납할 곳이 없으리니 공의대비의 일시 誣言 들으신 원통과 어떠하리오. 공의대비는 조카님을 감동하여 계신데, 내 비록 정성이 淺薄하나 설마 주상을 감동치 못하랴. 매양 마음에 있으나 아직은 주상이 임의로 못할 때요, 나는 점점 奄奄하여 가니 그저 아득할 뿐이로다.

108) 정은임, 앞의 책, 200쪽.

罪人之子 不可承統 太祖子孫 何人不可.

어진 것은 아니었고, 나이 어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정순왕후가 권력의 맛을 본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고 했으며,¹⁰⁹⁾ 사도세자 또한 나이 어린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지극했다.¹¹⁰⁾

그러나 이와 같은 궁중의 화평도 부왕의 사랑을 병적으로 받던 화완옹주가 중간에서 농간질을 하여 홍씨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점차 영조의 신임까지 잃게 된다.¹¹¹⁾¹¹²⁾

그런데 후에 정순왕후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조를 위시한 사도세자 계열의 후손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는 바로 김귀주로 대표되는 남당이라는 외척의 정권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 점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은 과거 급제

109) 정은임, 앞의 책, 67쪽.

대비전 우리름이 감히 먼저 들어오고 나이 많은 것을 생각함이 없어 일심으로 공경하고, 대비전계오서는 날 대접하시기 지극하오시니 織介만한 사이 없어 백년을 양가가 相愛할까 하였더니, 형세가 두텁고 알음이 익은 후는 먼저 된 사람을 꺼리고 지도하는 뜻을 저버리는지라.

110) 정은임, 앞의 책, 59쪽.

가례 후 경모궁계오서 朝見하실 때 行禮에 지극 조심하오시고, 공경하오심이 天性 誠孝에 뛰어나오신 줄 이런 일에 아올 것이요, 兩殿의 문안을 평안히 지내 오시면 스스로 기꺼하시던 것이니, 이 마디는 궁중이 다 아는 일이니, 지극한 설움을 하늘을 우러러 묻고자 하되 할 일이 없도다.

111) 정은임, 앞의 책, 118쪽.

병술 봄에 영묘 患候 달포 彌留하오서 中宮殿 처소 會祥殿으로 모이시고 정치와 세손계서도 주야로 同處하여 계시고 나는 문안에만 와서 어이 다녀가니 무엇을 알리오. 그때에 귀주와 후겸이 一心이 되고, 中宮殿에서도 세손계도 좋도록 굴으시고, 정치는 나를 이간하려는 고로 中宮殿에 가 한통이 되니 이는 귀주가 후겸을 좋아하는 緣故라.

112) 정은임, 앞의 책, 119쪽.

정치는 中宮殿에 정이 들어 극진하고, 귀주의 부자며 후겸이며 다 한 뭉치가 되어 선친을 害하려 하더니 선친 解喪 後, 또 重服하오서 眷遇 여전하시니 영묘 聖恩은 비록 감축하오시나 이러할수록 저희 꺼림은 더하여 정치가 그 아들과 귀주네 말을 듣고 선친을 전처럼 일컫는커녕, 오늘 害하고 내일 害하여 속담에, “열번 찍어 아니 거꾸러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선친의 寵遇하심이 점점 衰하는지라.

후 均役法, 淸溪川 浚濬 事業 등을 주관하며 영조의 최측근으로 당시의 실세였으며 소위 탕평파 관료의 지도자로 북당의 중심인물이었다.

이에 대해 정순왕후의 친동기 김귀주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으나 관료로서는 세력이 미미했다. 이에 누이 정순왕후를 배경으로 湖論 학통의 주류 한원진의 추종 세력인 송환역, 정이환과 가까이 하면서 김상묵, 심환지 등을 끌어들이며 노론의 주류를 장악해 정국을 주도하려 했다.

그리하여 그는 흥봉한이 왕세손인 정조를 협박해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공격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물론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치지향적인 정순왕후와 손발이 척척 맞은 결과로 당시 八字 凶言 혹은 十六字 凶言이라는 노론의 신임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라도 끊어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은근히 정조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자기 집안의 세력 확대를 꾀했다.

이는 정순왕후의 숙부인 김한록이 처음 발설하고 아들 김관주와 정순왕후의 동생 김귀주 등이 퍼뜨린 것으로 그 후 김귀주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홍인한과 사도세자의 친여동생 화완옹주의 양자인 정후겸까지도 끌어들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정조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1777년 정조가 사망한 후 정순왕후의 3년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 벽파의 오랜 숙원을 그녀는 풀어낸다.

즉 이가환, 권철, 홍낙민을 사사하고 정약용을 귀양 보내는 등 남인 청류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조의 총애를 받은 혜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 및 북학파 계열의 인물을 사사하거나 유배시킨다. 그러는 한편 자신의 지지 세력은 중용한다.

이에 대해 혜경궁 홍씨는 극도의 반발을 보여¹¹³⁾ 자신의 숙제인 홍낙임은 죄가 없는데, 차마 혜경궁 홍씨를 직접 겨냥하지 못하고 대신 숙제인 낙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으며, 이는 결국 자신을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⁴⁾

그러나 1805년 정순왕후가 죽은 후 十六字 凶言을 김이영이 공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벽파 소속의 인물들은 역적으로 단죄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순왕후의 친정 세력인 경주 김씨의 남당과 혜경궁 홍씨의 친정인 북당과의 세력 다툼이다. 사실 남당은 당시 영조 때부터 정조 때까지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정순왕후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조의 정통성까지 부인하려 했다.

물론 이렇게 된 연유는 자신들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즉 홍봉한의 북당도 처음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계되었지만, 뒤에 영조의 의도를 안 다음에는 왕세손의 왕위 계승에 찬동 내지는 묵시적 동의를 했지만, 정순왕후를 비롯한 남당은 끝까지 반대를 했기에 결국

113) 정은임, 앞의 책, 172쪽.

先王을 여윈 후 수월 내에 내 선친께 慘辱이 罔有紀極하고 내 處義하려는 일로 叔弟의 격동이라 죄를 잡아 首尾 七,八 朔에 방불도 않은 虛言으로 誣罔하여 절도에 梲棘하고 이에 慘禍를 받게 하니, 이는 내 處義하려는 일로 숙제에게 죄를 옮기거나 叔弟를 죽임이 아니라 실은 나를 죽임이라. 兇徒가 得時하여 선왕을 저버리고 幼主를 업신여겨 선왕의 어미를 이리 遍辱하니 인륜이 끊어지고 신분이 없음이 이때 같은 적이 다시 어이 있으리오.

114) 정은임, 앞의 책, 195쪽.

到今하여 선왕이 아니 계신 후 兇徒들이 비로소 저희 得志하나 오히려 나를 없애지 못함을 분하여 내 동생에게 慘禍를 끼치고 선친을 頒敎文 머리에 올려 逆魁를 만들었으니, 歷代史記를 내 비록 모르나 선왕의 머리를 얹혀 놓고 선왕의 外祖를 逆賊이라 頒敎文에 올려 八方에 전하는 凶賊은 아무 悖戾한 세상에도 없을 것이오, 또 辛酉(필자=순조 원년) 유월에 啓辭를 하는데 叔弟의 동기가 無非逆種이라 하였으니 叔弟 동기가 뒤리오. 이것은 더욱 분명히 나를 逆種이라 한 말이니 世變이 여기 極하고 臣節이 아주 망한지라.

기호지세의 형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북당과 남당 간의 세력 다툼은 결국 죽고 사느냐 하는 당쟁 싸움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순왕후와 혜경궁 홍씨의 친정 가문과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친정 가문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두 여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6) 화완옹주를 비롯한 궁중 여인들

『한중록』 집필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오 화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화완옹주 그리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와 후궁인 숙의 문씨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데 정순왕후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화완옹주

화완옹주는 영조의 제2후궁인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영조의 9녀로 사도세자와 화협옹주와 동복형제이다. 그는 일성위 정치달에게 시집을 갔으나 자식이 없었으며, 영조의 3녀로 영조가 가장 사랑하였으며 금성위 박명원에게 하가한 화평옹주가 사망하자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이러한 영조의 총애를 믿고 모사를 일삼았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오빠인 사도세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또한 영조 51년에는 세손의 대리청정을 반대하여 정조를 모해하려고 하였지만, 정조 즉위 후 양아들 정후겸은 사사되고 자신은 옹주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된다. 혜경궁 홍씨와는 사이가 극도로 나빠 본 작품에는 옹주가 아닌 정처로 나올 정도로 혜경궁 홍씨와는 건원지간이었다.

그녀는 동궁의 등극을 막기 위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세손에 대해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¹¹⁵⁾ 또한 임금의 하교까지도 듣지 않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다.¹¹⁶⁾ 그러한 화완옹주였으니 세손이나 혜경궁 홍씨에 대한 태도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혜경궁 홍씨는 자신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숙제 흥낙임을 의도적으로 정후겸에게 접근하게 하여 가문을 구했다고 『한중록』에서 밝히고 있다.

② 영빈 이씨

조선 제21대 영조의 제2후궁이며 사도세자의 생모로 1남 6녀를 생산하여 1남 3녀를 생육하였다. 그녀는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갇혀 죽게 한

115) 『영조실록 51년』, 11월 30일, 계묘.

정후겸의 어머니가 일찍이 동궁에게 이르기를, '抹樓下(필자=훗날의 정조)께서 만일 우리집과 외가가 아니라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言議를 取捨할 때에는 반드시 兩家를 위주로 한 연후에야 무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필자=정후겸) 邸下에게는 믿음을 받기도 하고 의심을 받기도 하여 우리 아이가 늘 痛切히 말하고 싶었으나 잠시 또 참았다고 합니다.'하였다.-중략-大朝의 총명하심이 만일 되살아나시면 반드시 큰 일이 있을 것이니, 邸下께서도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니, 이들이 동궁을 위협하는 말이 늘 이와 같았다.

116) 『영조실록 51년』, 11월 30일, 계묘.

임금이 聽政하는 일을 內間에서 하교하였는데, 정후겸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 聽政하는 일을 늦출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혹은 병을 핑계 삼고 혹은 모른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여러 번 물어도 한결같이 모른 체 사양하고 끝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정후겸이 그렇게 중용한 것이다.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영조에게 세자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어 왕위가 계승될 경우 사직이 위태로우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아뢰어 영조의 결심을 굳히게 했다고 알려져 있다.

③ 숙의 문씨

영조의 후궁으로 11녀 화녕옹주와 12녀 화길옹주를 얻었는데, 이 때 영조의 춘추가 60세와 61세였다. 따라서 노년에 얻은 후궁에 대해 영조의 사랑이 각별했으며 이러한 총애를 바탕으로 오빠인 문성국과 함께 사도세자를 해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이를 크나큰 한으로 여긴 정조에 의해 정조 즉위 초에 사사되었다.

(7) 정후겸과 김귀주, 김종후 등

① 정후겸

정후겸은 1749년 인천에서 서인으로 태어났으나 영조의 9녀인 화완옹주의 양자가 되면서 자유로이 궁중에 출입하면서 영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의 본관은 연일이고 자는 伯益이다. 1764년(영조 40년) 영의정 홍봉한이 일성위 정치달의 아들 정후겸에게 『대전』에 의하여 품계에 따라 부직할 것을 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아 장원봉사를 제수했다.¹¹⁷⁾

117) 『영조 40년』, 4월 14일, 을미.

조선 시대 관리가 되는 길은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거나, 蔭敍나 代加의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정후겸은 과거에 급제한 것이 아니므로 그는 蔭敍나 代加에 의해 관직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蔭敍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하급 관리(胥吏)에 나갈 수 있는 제도로 대상자는 ①功臣 및 2품 이상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조카 ②實職 3품의 아들이나 손자 ③吏曹, 兵曹, 도총부, 사헌부, 사간원,

원래 그의 아버지 정석달은 인천에 살면서 생선장수로 업을 삼을 정도로 집안이 몹시 한미하였는데,¹¹⁸⁾ 그의 아들 정후겸으로 하여금 일성위 정치달의 대를 잇게 하면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 때 그의 나이 16세였다. 그 뒤 그는 1766년(영조42년)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교리 등을 역임하고 호조, 공조 참판 등을 지냈다.

1775년 세손이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흥인한 등과 극력 반대하는 한편, 유언비어를 퍼뜨려 세손의 비행을 조작하고 심상운을 시켜 세손을 보호하는 흥국영을 배척하는 등 세손을 모해하려고 하였다.¹¹⁹⁾ 이에 삼사에서 정후겸을 죄주기를 청하자 정조의 명에 의해 경원에 유배되었다가 뒤에 사사되었다.¹²⁰⁾

또한 정조 원년에 홍익이 정후겸의 죄를 조목조목 밝히며 죄주기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批答을 보면, 정조도 정후겸 일파의 흉악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만 적당한 시기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¹²¹⁾

홍문관, 部將, 宣傳官을 지낸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20살이 넘어야 하며 간단한 시험을 거쳐 緣事 등의 낮은 벼슬을 받았다. 또한 代加制는 정3품 당하관 이상의 散職을 가진 관원이 자신이 받은 품계를 아들, 사위, 동생, 조카에게 얻어주는 제도로 상설화 된 것이 아니고,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행해졌다. 따라서 16살의 정후겸이 16살의 나이로 장원봉사가 되었다는 것은 영조의 화완옹주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흥봉한의 화완옹주 등의 노론 벽파에 대한 아부 등이 어우러진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18) 조선시대 관리는 조선 백성이면 누구나 과거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노비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중종 때 형조판서를 지낸 潘頤枰은 재상집 가노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德望이 높은 신하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실력으로 관직에 나아갔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었지만, 정후겸의 경우는 명백한 위법이었다.

119) 『정조실록 원년』, 3월 25일, 병신.

120) 『정조실록 원년』, 3월 25일, 병신.

121) 『정조실록 원년』, 5월 23일, 계사.

특히 정후겸과 같은 일당인 심상운 같은 이는 영조 51년에 8가지 급선무에 대해 상소를 하면서 외척 발호를 막고, 사신을 올바로 등용하여야 하며, 세손의 자질은 뛰어난데 온실속의 나무(溫室樹)에 불과하다고 하여 세손의 청정에 반대하였다.¹²²⁾

이처럼 정후겸은 그의 어머니 화완옹주와 함께 사도세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세손의 등극을 반대하는 등 『한중록』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성격 규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김귀주와 김종수 등의 김씨 일문

㉠ 김귀주

김귀주는 1740년에 태어나 1786년에 졸한 인물로 본관은 경주이며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오빠로 홍양해의 문인이다. 그는 누이가 왕후가 된 까닭으로 음보에 의해서 벼슬길에 나섰으며 그 후 누이의 후광을 업고 무시로 궁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1762년 김상로, 홍계희 등과 함께 사도세자를 무고하여 죽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수찬이 되었다.

그 뒤 경주 일문은 풍산홍씨와 집안간 대립이 격렬해져 왕세손의 외조부였던 홍봉한과 대립하여 홍봉한을 모함하여 왕세손의 지위까지도 위태롭게 하였다.

이 때부터 노론은 사도세자와 왕세손을 지지하는 홍봉한을 중심으로 한 時派와 그에 반대하는 辟派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는 벽파의 영수로 활약했다.

122) 『영조실록 51년』, 12월 21일, 갑자.

그러나 후에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처사를 후회하면서 시과를 의심하게 되자, 홍국영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는 정조 즉위 후 흑산도에 유배되었고, 1784년 왕세자 책봉 때 특사령으로 나주로 이배되었으나 그곳에서 병사하였다.

㉠ 김종후

김종후는 본관을 청풍으로 하고 호는 本庵이며 생년은 알 수 없고 歿한 연대는 1780년이다. 그는 좌의정 종수의 형이며 민우수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시부에 힘써 문명에 뛰어났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뛰어난 학행으로 하여 세자시강원의 자의가 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앞서 김상로, 홍계희와 함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경언 고변'을 사주하였고, 동생 종수가 벽파의 영수인 김귀주와 어울리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한 공격의 첨병이 되었다. 그 뒤 김귀주 일당이 제거되자 홍국영에게 빌붙었고, 그가 삭직되자 홍국영에게 속았다고 상소하는 등 보신주의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한중록』에 나타난 인물들을 사도세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자에 대해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인물들은 주로 조재호 등의 소론측 인사이며, 사도세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거나 부정적인 홍봉한과 홍인한 형제를 위시한 풍산홍씨 일문과 정순왕후를 비롯한 경주김씨 일문, 정후겸과 화완옹주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은 주로 노론에 속한다.

따라서 세자는 당시의 집권당인 노론의 극심한 견제와 질시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펴 보지도 못한 채,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2) 『한중록』의 집필 의도

(1) 『한중록』 각 편의 내용 고찰

『한중록』은 현재까지 원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다만 국내에 9종, 국외에 5종의 총 14종의 이본이 있다. 『한중록』의 명칭 또한 『한중록』, 『한중록』, 『한중만록』, 『해경궁읍혈록』, 『泣血錄』, 『閑中漫錄』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한중록』의 내용은 작자인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남편인 사도세자가 嫜父인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8일 만에 숨진 사건(=壬午禍變)을 곁에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 인생을 기록한 책이다.

『한중록』은 네 번에 걸쳐 집필된 것으로 각 편수마다 나름대로의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으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집필 의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먼저 작가가 집필한 순서대로 편의상 1편(其一), 2편(其二), 3편(其三), 4편(其四)으로 구분하여 작자의 집필의도와 개략적인 내용을 밝힌 다음, 『한중록』의 진정한 집필 의도를 밝히기로 한다.

<제1편=기일>

제1편은 작자가 환갑이 되던 정조 19년(1795년)에 집필된 것으로 작가의 생애 중에서 비교적 안정적 시기였다. 왜냐하면 자신과 사도세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조의 효성과 보살핌으로 자신의 至難했던 삶을 비교적 담담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여유로웠던 시기였기에 내용도 비교적 차분하다.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유원에 가서 참배한

후 회갑연을 성대하게 베풀 후의 기록으로 친정의 큰 조카인 수영에게 주기 위해 이 글을 쓴다는 점을 밝히고 ①자신의 출생에서 간택, 그리고 입궐하기까지의 과정을 ②자녀의 출생과 남편인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은 임오 화변까지 ③임오 화변에서 자기 친정의 철천지원수인 홍국영의 몰락까지 ④순조의 탄생에서 자신의 회갑연까지의 일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제1편의 특징은 임오 화변이나 갑신처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한 반면, 친정 중심의 일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세밀하게 적고 있는 것이 대조적으로 비쳐져 『한중록』의 집필 의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제2편=기이>

제2편은 작가가 67세 되던 해인 순조 원년(1801년)에 쓴 것으로 손자인 순조가 왕으로 등극하자 친정인 홍씨 가문의 신원을 부탁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①임오 화변을 전후한 정치의 이간책 ②기축년의 別監 사건 ③정치의 양자인 정후겸과 홍국영의 부친 홍낙춘의 출사 부탁을 거부하여 홍인한이 미움을 받아 배척 받게 된 동기 ④홍국영이 자신의 누이를 정조의 후궁으로 받쳐 영원한 세도를 누리려다 요절하자,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아들인 상계군을 누이의 양자로 옹립하려다 실패한 일 ⑤숙제 홍낙임이 사학(=천주학)을 믿는다 하여 죽은 일을 밝혀 자신의 친정이 억울하게 화를 당했음을 구구절절이 발명하고 있다.

<제3편=기삼>

제3편은 작자가 68세 되던 순조3년(1802년)의 작품으로 제2편의 속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먼저 자신의 숙제 홍낙임의 억울한 죽음을 항변하고 있

다. 그는 자신의 친정에 대한 신원을 위하여 선왕인 정조가 학문을 좋아하고 효심이 깊었으며, 정조가 자신의 외가인 홍씨 가문을 지나치게 대한 것을 깊이 뉘우쳤다는 점을 상기시켜 순조로 하여금 홍씨 가문의 신원에 대해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특히 자신의 친정 가문이 화를 당한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이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한다.

<제4편=기사>

작자 71세 되던 순조 5년(1805년)에 쓴 마지막 작품으로 순조의 생모인 가순궁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임오 화변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혜경궁 홍씨가 바라본 임오 화변과 역사적 사실과의 사이에 괴리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집필 의도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실록을 비롯한 당시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극명히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편의 내용은 ①경모궁의 탄생과 세자의 비범한 자질 ②경모궁의 성장 과정과 의대증이라 불리는 정신병의 발병 원인 ③병의 증상과 부자간의 갈등 ④임오 화변 때의 정황과 경모궁 처단 때 사용된 一物(=뒤주)을 친정아버지인 홍봉한이 들여 온 것이 아니라 영조가 직접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 ⑤자신의 아버지 홍봉한은 오로지 국가를 위한 위국충절의 신하라는 점 ⑥선왕인 정조가 자신의 친정 가문을 신원시키지 못한 것은 영조와 사도세자 중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정을 신원시키지 못

했지만 순조는 입장이 다르기에 자신의 친정 가문을 신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

(2) 『한중록』의 집필 의도

임오 화변에 대하여 『한중록』에서는 세자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비극이 초래되었고, 혜경궁 홍씨의 친정아버지 홍봉한은 자신의 사위인 세자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세자의 성격적 파행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항상 자신의 위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처가 집안까지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세자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 몰고 갔고, 결과적으로 영조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이 언젠가 세자의 자리에서 내쫓길 수도 있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급기야 시간이 흐를수록 부왕에 대한 불신과 반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세자의 이러한 행동은 세자를 반대하던 세력에게는 세자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세자의 죽음은 단순히 혜경궁 홍씨가 밝힌 정신병에 의한 영조의 노여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왕인 영조와 다음의 왕인 세자를 중심으로 한 당파간의 싸움이며 이 때, 세자를 지지하는 소수파(소론파 일부 남인)가 현재의 왕을 지지하던 다수파(노론파, 홍봉한을 중심으로 한 홍씨 가문, 화완옹주와 정후겸 일문, 김귀주를 중심으로 한 경주김씨 일문)와의 권력 투쟁에서 세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파가 궤멸된 사건이며, 훗날 정권이

바뀌어 전날의 다수파가 숙청될 지경에 이르자 자신의 친정 가문을 피의 숙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탄원서 성격의 기록이 바로 『한중록』인 것이다.

그리고 혜경궁 홍씨는 당시의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던 삼종지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 친정 가문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대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것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혜경궁 홍씨는 자신의 남편이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누누이 밝히고 있지만, 실록의 기록은 혜경궁 홍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한다.¹²³⁾

또한 영조38년 이전의 사도세자에 관한 기록을 실록에서 찾아보면, 임금이 건명문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비의 양과 세자에 대해 논의할 때, 영조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자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으며,¹²⁴⁾ 혜경궁

123) 『영조실록 38년』, 5월 22일, 을묘.

나경언이 伏誅되었다.-중략-임금이 창문을 밀치고 크게 책망하기를,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 죽이고, 女僧을 궁으로 들였으며, 西路에 行役하고, 北城으로 나가 유람했는데,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행할 일이나?-중략-세자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나경언과 面質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책망하기를, “이 역시 나라를 망칠 말이다. 代理하는 儲君이 어찌 죄인과 面質해야 하는가?” 하니, 세자가 울면서 대답하기를, “이는 과연 신의 본래 있었던 火症입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차라리 發狂을 하는 것이 어찌 낫지 않겠는가?” 하고, 물러가기를 명하니, 세자가 밖으로 나와 禁川橋위에서 대죄하였다.

124) 『영조실록 38년』, 5월 1일, 계해.

임금이 建明門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영상과 우상의 입시를 명하였다.-중략-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죄인과 面質하기를 청한 것이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하니, 승지 尹東昇이 말하기를, “이는 그때 분하고 절박한 나머지 한 말입니다. 성상께서 만약 조용히 꾸짖어 가르치시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하였고, 編次人 具允明은 말하기를, “요즈음은 소조께서 매우 누우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말도 말라, 말도 말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에 恭默閣에서 입시를 명했더니, 발병을 핑계하므로 전의 頷相이 깨우쳐 입시하게 했는데 걸음걸이가 정상이었다.

홍씨가 주장한 것처럼 衣襟症에 의한 정신병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조가 직접 아들의 질병에 대해 차라리 미쳤더라면, 오늘의 일도 없었지 않았겠느냐고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은 혜경궁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병 아닌 그 무엇인가가 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홍봉한의 태도는 많은 의문점을 던진다.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자를 위해 한마디의 옹호나 변명을 하지 않고 있다. 홍봉한보다 훨씬 하위적인 編次人 조차도 세자를 위해 임금에게 세자를 위해 간언을 하는데 영상으로서 그의 태도는 실로 애매하기 그지없다.

실록의 기록에도 세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기록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임오 화변의 전말을 사도세자의 정신병으로 몰고 갔을까? 남편의 죽음을 정신병으로 몰고 갔어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까?

필자는 임오 화변을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인한 피치 못할 비극적 결말이었고, 임오 화변 당시의 일시적 승리자는 홍봉한을 중심으로 한 혜경궁 홍씨의 친정 가문이었지만, 곧 이은 정순왕후와 김귀주, 정후겸 등의 노론 벽파에 의한 반격으로 자신의 친정이 풍비박산이 나자, 자신의 친정 가문을 구하고 신원하기 위해 『한중록』을 집필했다고 본다.

이러한 정황은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과 『한중록』의 기록을 대비·고구해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한중록』에 의하면, 혜경궁 홍씨 자신이 자신의 친정 가문의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자신과는 불구대천지원수라고 할 수 있는 화완옹주의 양아들 정후겸에게 자신의 동생인 낙임을 보내 屈身하게 하여 가문을 지키려고 한다.

해경궁 홍씨는 자신과는 길을 달리하는 국영과 종수에 대해서 평하기를, 국영에 대해서는 헛피육이고 종수는 실로 骨子이기 때문에 정후겸에게 부탁했다는 기록을 남겨 자신의 가문을 구하기 위해 사세 부득이 자신의 숙제인 낙임을 의도적으로 후겸에게 빌붙게 했다고 했다.¹²⁵⁾

그러나 경위야 어찌됐든 자신의 친정 가문을 구하기 위해 권문에 빌붙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곧, 자신의 친정이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홍씨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이다.

사실 해경궁 홍씨는 어려서부터 조숙하고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

125) 정은임, 앞의 책, 153쪽.

경인 신묘간에 선친 몸에 禍色이 날로 급하여 가니 내 생각에 귀주는 풀 길이 없고 정처(필자=화완옹주)에게나 禍機를 완협하고자 하나 그 사람이 아들의 말을 듣고 전일과 다른지 오래니, 저어한 말로 움직이기 어렵고, 사세가 그 아들을 사귀어야 혹 풀 도리가 되, 先兄(필자=홍낙인)과 仲弟(필자=홍낙신)는 무슨 일로 후겸에게 미운 배 되고 다만 叔弟 있으니, 지조 고상하고 규모 조출하여 부귀에 물들지 아니하고 世路에 馳逐을 싫어하여 심상히 친구가 없고 집의 문객도 얼굴 아는 이 적으니, 이 위인으로 구차 비루한 일을 하고자 할 리 어이 있으리오마는, 형제 중 연기 적고 후겸에게 뉘이지 아니한지라. 내 제게 편지하여 “옛 사람은 위친하여 죽은 효자도 있으니 지금 경색이 어버이를 위하여 후겸을 사귀어 문호의 화를 구하는 것이 옳고, 옹주의 아들로 上寵을 받고 권을 좋아할 뿐이지 宦侍 아니요, 勳역이 아니니, 일시 후겸에게 染跡하기를 어려워하여 아비 위태함을 구치 아니하면 어찌 인자의 도리리요.” 하여 간권하니, 叔弟 처음은 죽기로 마다 하다가 화기 점점 박두하여 闔門沈滅이 조석에 있고 내 권함은 더욱 긴급하니, 叔弟 박부득이하여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후겸을 친하여 선친의 참화를 면하였으니 叔弟 자못 일변에게 띄임은 누이 탓이라. 叔弟 그 문장 才識으로 부형을 이어 입조하여 전정이 만 리 같다가 포부를 펴지 못하고 艱險한 때를 만나 노친의 화를 염려하여 평생 본심을 지키지 못하고, 후겸 사귀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마음에 맹세하여 “집이 평안하면 몸이 세상에 나지 않으려노라.” 하여 동교에 집을 장만하고-중략-정치의 변화와 후겸의 간교로 집안 변화나 다시 날까 동동하여 다녔지 그 밖에 누고 쓰며 누고 막으며, 누고 죽이고 누고 살림을 일체 알고자 한 일 없고, 후겸이 또한 의논한 일 없으니 이는 일세의 다 아는 배라.

다. 이러한 그녀가 자존심을 꺾고, 정후겸에게 몸을 숙인 것은 그만큼 그녀의 친정 가문이 위태로웠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혜경궁 홍씨의 세자빈 간택 후 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홍봉한도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기 시작하여 외척으로서 失勢 직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홍봉한을 중심으로 한 노론측에서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혜경궁 홍씨가 남편인 소론에 가까운 세자를 버리는 대신 노론측에서는 혜경궁 홍씨의 아들인 세손의 왕위 등극을 보장한 것이다.

물론 노론측에서 세자를 제거하고자 한 결정적인 계기는 영조 31년(1755년) 2월의 羅州僻書事件이다. 羅州僻書事件이란 소론 강경과 윤취상의 아들 윤지가 나주 객사에 간신이 조정에 가득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다는 내용의 벽서를 붙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조는 이 사건의 적발을 기념해 討逆慶科를 베풀었는데, 여기에서 이인좌의 난에 연관되어 사형당한 심성연의 아우 심정연이 영조의 치세를 부정하는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영조 치세 부정뿐만 아니라 병조판서 홍상한과 훈련대장 홍봉한 형제에 대한 비난도 담겨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조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 사건으로 소론은 노론에 의해 완전히 괴멸되었으며, 소론 친화적 정견을 가진 세자는 조정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만다. 이 사건 후 노론측에서는 세자 제거를 당론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세자에게 가는 모든 정보는 혜경궁 홍씨를 통해 노론측에 제공된다.¹²⁶⁾

126) 정은임, 앞의 책, 280쪽.

이처럼 혜경궁 홍씨는 일찍부터 남편을 버리고, 친정을 위한 길을 선택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조 또한 소론측으로 기울어진 세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론측의 손을 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혜경궁 홍씨와 그녀의 친정아버지 홍봉한도 자신의 사위인 사도세자 구명보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가문과 봉당만을 위하고 유지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임오 화변 때 홍봉한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장차 왕위를 이을 세자가 부왕의 노여움에 의해 죽어갈 때 영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자 구명보다는 김양택 등과 함께 삼개(麻浦)에서 선유를 즐기고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세자의 薨逝 석 달 후 사헌부 집의 박치룡이 사도세자를 죽인 범인은 홍봉한이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정조 즉위년 3월에 동부승지 정이환이 상소하여 홍봉한의 죄상을 조목조목 논하기를, 임오 화변 때 사도세자가 간혀 죽은 뒤주를 들인 사람이 홍봉한임을 밝히고 홍봉한을 처분하길 바라는 상소를 올리고 있다.¹²⁷⁾

세손 한 몸에 宗社 존망이 있으니 평안하셔야 나라 보전할 것이니, 세손을 무사케 할 도리가 그 연설을 아니 보시기에 있으니, 그를 아니 보시게 할 길이 없어, 내관더러 일러 써오거든 그 筵辭는 고쳐 써 보시게 하고, 위급한 때가 되면 내가 내관에게 친히 말하여 빼이게 하고, 이 사연을 선친께 기별하여 “아무쪼록 세손 평안할 도리를 하소서.” 하니, 선친 지극하신 爲國之忠으로 두루 주선하오서 그런 말은 밖에서 빼고 써 오게 하니, 선친이 간헐한 때를 당하셔 대조 은혜도 갚아오려 소조도 보호하라…….

127) 『정조실록 즉위년』, 3월 27일, 무술.

아! 壬午年에 선대왕께서 내리신 처분은 곧 성인께서 變에 처하여 權道에 통달된 것이니, 臣子가 된 사람으로서는 오직 마땅히 애통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공손하게 임금이 하시는 대로 따라야 할 뿐이었습니다. 이른바 ‘一物’에 이르러서는 이는 곧 이전의 사첩에서도 들어 보지 못하던 것인데, 홍봉한이 창졸간에 멋대로 올렸습니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선대왕께서 어떻게 그 ‘一物’이 어느 곳에 있었던 것인지를 알으셨겠습니까?-중략-홍인한이 대저 청정을 방해하였던 것도 또한 형제간이 함께 죄악을 저질러 간 것인데, 지금 버젓이 도성에 살고 있으면서 私黨을 배치해 놓았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의구하게 되고 세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조의 비답을 보면, 홍봉한에 대해 치죄를 하고자 하여도 자신의 어머니 곧 혜경궁 홍씨 때문에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¹²⁸⁾

그러나 뒤이어 부교리 송환익의 상소와 전 현감 민창렬의 상소, 정조 즉위년 8월 형조판서 이계의 상소에 대해 정조는 비답하기를 “경의 전후의 疏箚에서 토죄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도 또한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경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¹²⁹⁾라고 하여 홍봉한과 그의 아들 홍낙임의 죄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괴로운 심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정사를 올곧게 처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홍씨 때문에 국법을 제대로 처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¹³⁰⁾

물론 정조는 이에 앞서 3월에 정후겸을 경원부에 귀양 보냈는데, 이 때 이계는 수차에 걸쳐 나라를 좀 먹은 흉신을 내치라고 진언하고 있다.

이처럼 정조는 자신의 외가인 풍산홍씨 가문이 외척으로서 그동안 왕실을 능멸하고, 자신의 친부인 세자의 죽음에까지 관여한 사실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어머니와의 정리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망설이

128) 앞의 조.

아! 내가 어려서 부모를 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바는 곧 慈殿과 곧 慈宮 때문이다. 비록 봉조하(필자=홍봉한)의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봉조하는 곧 慈宮의 어버이이고 나는 곧 자궁의 아들이다. 이러한데도 용이하게 법대로 단죄해버린다면, 이 이외의 八議의 親屬에 있어서 어찌 다시 논할 것이 있겠느냐?

129) 앞의 조.

130) 『정조실록2년』, 2월21일, 입자.

“내가 孤露餘生으로 의지하는 바는 오직 慈宮이신데, 지난해 가을부터는 慈宮께서 음식을 전부 물리치고 눈물로 날을 보내시면서 항시 奉朝賀의 생전에 面決하지 못하는 것을 지극히 애통하게 여기셨다. 매양 이런 분부를 받들게 될 적마다 나의 마음이 마땅히 어떠했겠는가? 臺諫의 啓辭가 나온지 이미 여러 해를 넘기게 되었는데, 국법을 중히 여겨야 하는 도리에 있어 정지하도록 명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꼴을 보고 싶지도 않아 지금까지 允許를 아끼고 있었던 것이다.”

고 있었던 듯하다.

그렇다고 하여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임오 화변에 대해 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논죄할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자신과는 거리가 있는 김귀주를 흑산도로 귀양 보내면서 자신의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다. 즉 정조 즉위년 9월에 김귀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내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를 통해 홍봉한을 치죄하지 못하는 괴로움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¹³¹⁾

그러나 사태는 더욱 혜경궁 홍씨에게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불리하게 돌아갔고, 정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최대한의 효를 다하기 위해 즉위년 4월에 홍인한을 여산에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역부족으로 홍인한은 사사되었다.

그러나 혜경궁 홍씨에게 중부인 홍인한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룬 지금에 있어서는 용도 폐기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혜경궁 홍씨는 세손인 정조가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홍인한은 처음부터 세손의 등극조차도 반대한 인물이었기에, 홍씨에게는 제거 대상인 정적이었지, 함께 손잡고 협력할 상대는 아니었기에 홍인한의 죽음에 대해 극력 구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애시당초 없었다. 다만 순

131) 『정조실록 즉위년』, 9월 9일, 정축.

“나의 생각은 이 戚里나 저 戚里를 막론하고 조금도 사랑하거나 밋다고 해서 그 사이에 부추기거나 억누르는 일이 없었다. 진실로 죄가 없다면 그와 더불어 국가의 休戚을 같이하여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요, 만일 죄가 있어서 크다면 엄중히 처단할 것이고 작다면 가볍게 勸罪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평소애 지켜온 바이다. 홍씨나 김씨는 모두가 이 慈殿과 慈宮의 私親이니 또한 어찌 홍씨를 부추기고 김씨를 억누르겠으며, 김씨를 부추기고 홍씨를 억누르겠는가?”-중략-“봉조하(필자=홍봉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자궁은 반드시 불안해 하실 것이고, 자궁께서 불안해 하시면 나는 <慈宮을> 몰래 업고 도망친다는 뜻으로 누차 筵席에서 하교하였으며 또한 이미 지난날 備忘記에 하교하였으니, 여러 신하가 어찌 몰랐겠는가?…….”

망치한의 염려로 홍인한에 대한 불똥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튀는 것을 막고자 노력을 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정조가 신하들의 주청을 받아들여 홍봉한을 사사하고자 하니 혜경궁 홍씨는 이에 단식으로 맞서 구명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러한 혜경궁 홍씨의 태도는 임오 화변 때의 남편에 대한 구명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물론 호소의 대상이 시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녀의 태도는 너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녀가 과연 남편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정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의 갈등도 홍봉한이 자연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된 듯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친정 가문을 신원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즉 자신의 뜻에 따라 부친과 친정 가문을 구하기 위해 정후겸 등에게 붙여 호가호위한 숙제 홍낙임에 대한 해명과 자신의 부친과 사도세자의 죽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역설 등이 그녀에게 닥친 당면 과제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기술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록』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홍봉한 사후 몰락한 친정 풍산홍씨 가문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손자인 순조가 등극하자 친정 가문이 부당한 위해를 받아 몰락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정조도 인정하여 자신의 칠순 때 이를 복권시키려 했다고 순조에게 알림으로써 친정 신원의 한 방편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혜경궁 홍씨가 정조에게 강권하다시피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녀는 정조의 친정 신원조차도 믿지 못하여 아들에게 편찬을 받은 후에야 안심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친정 신원이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손자인 순조에게 순조는 효성이 지극하므로 부왕의 뜻

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회유와 은근한 협박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¹³²⁾

『한중록』을 살펴보면 혜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가 곳곳에 묻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한중록』 해석을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즉 『한중록』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 해석에 주력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통한 올바른 해석에 등한시하였다 할 것이다.

132) 정은임, 앞의 책, 187쪽.

매양 外家 일은 “큰일을 이룬 후(필자=정조가 갑자년에 순조에게 양위하려 함) 한가지로 소석하여 모자의 지한이 한 때에 풀리리라.” 하시고, 경신 이월에 또 하시되 전교하여 “오늘 한 사람을 赦하고 내일 한 사람을 사하여 사람은 막히인 사람이 없고 집은 폐한 집이 없게 하여 太和元氣 가운데 있게 하리라.” 하였으니, 도무지 차차하여 갑자까지 크게 하시기, 내 하되 “그 때에 내 나이 칠십이요, 내가 칠십 洽滿하온즉 살기가 어렵고, 혹 오늘날 말과 어기면 어찌 하리.” 하면, 선왕이 勃然하서 “설마한들 칠십 노친을 속이랴” 하시기 나는 갑자를 금석같이 기다리더니, 나의 험한 흉독으로 인하여 千百事 경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 신세와 내 집 후화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王牒에도 없으리니, 내 일시인들 살아 무엇하리오마는 선왕이 비록 冲年이시나 인효하심이 선왕을 닮아왔으니, 장성하시면 응당 부왕의 未卒之志를 이루실 듯 주야 祝願祝願하노라.

Ⅲ. 『한중록』과 교수·학습 내용

1. 『한중록』에 대한 인식도

학생들이 과연 『한중록』에 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부산 시내 인문계고등학교 남·여 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설문 내용 중 3번 문항 이하는 자신이 읽지 않았다 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설문지

다음은 『한중록』에 대하여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중록』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64) ②없다 (676)

2. 읽었다면 어떠한 형태의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었습니까?

①초등학교 때 요약본(20)

②중·고등학교 때 참고서와 교과서에 나온 부분만(44)

③인터넷에 들어가 요약 부분만(0)

3. 읽은 적이 있다면 지은이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혜경궁 홍씨(50) ②허난설헌 (10) ③신사임당(4) ④잘 모르겠다.(0)

4. 『한중록』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①선조대에서 광해군대(85)

②인조대에서 효종대(96)

③숙종대에서 경종대(44) ④영조대에서 순조대(501)

⑤철종대에서 조선 말까지(14)

5. 사색 당파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했나요.

①부정적으로(375) ②긍정적으로(325)

③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19)

④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5)

⑤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16)

6. 사도세자는 왜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까?

①아들을 교육시키려다 잘못하여 죽었다.(16)

②왕과 세자와의 권력 다툼에 의해(87)

③질병을 고치려다 실패하여(78)

④당파 싸움의 희생물이었다.(559)

7. 조선 시대 여인으로 남편과 친정아버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면 누구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보는가?

①아버지(23) ②남편(689)

③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28)

8. 학생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 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을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①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545)

②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186)

③생각해 보지 않아 말 할 수 없다.(9)

9. 『한중록』을 혜경궁 홍씨는 왜 집필했을까?

①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기 위하여(34)

②남편이 죽은 임오 화변을 정확하게 역사에 남기기 위해 (597)

- ③남편을 죽인 영조의 만행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20)
 - ④자신의 친정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신원하기 위해(89)
10. 『한중록』의 기록과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까?
- ①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23)
 - ②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썼기 때문에 없다(680)
 - ③잘 모르겠다(37)
11.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 ①많다(11)
 - ②자신의 친정에 관한 내용이 주로 많다(8)
 - ③자신의 친정뿐만 아니라 친정이 속한 노론과 관계되는 부분도 많다(4)

위의 설문 조사를 보면 현재 부산 시내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한중록』을 읽은 학생보다 읽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며(91%), 남편인 사도세자를 위해 적극 구명활동을 해야 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한 학생보다 많았다.(93%)

그리고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집필 의도에 대해서는 입오 화변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라(81%)고 답했으며, 『한중록』과 역사적 사실과의 차이점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썼기 때문에 진실이다(92%)라고 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학생들에게 작품 속의 사실과 역사적 사실과의 차이점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혜경궁 홍씨

의 『한중록』 집필 의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중록』의 교수·학습 내용 분석

1) 교과서 분석

현재 7차 교육과정 중 국정 국어 교과서에는 『한중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검인정 문학 교과서 18종 가운데 『한중록』이 수록된 교과서는 4종¹³³⁾이 있다.

본고에서는 7차 교육과정 (주)천재교육, (주)금성출판사, (주)문원각에서 간행한 검인정 『문학』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여 현행 교과서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인용문은 천재교육에서 발간된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이다.

그날 나를 덕성함으로 오라 호오시니, 그 때 오정 즈음이나 되는 데,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경춘전을 에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증조런고?. 고이하여, 그 때 세손이 환경전에 겨오신지라, 내 마음이 황황한 중,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세손다려 아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천만 당부하고 아모리 할 줄을 모르더니, 거동이 지체해야 미시 후나 휘령전으로 오오시는 말이 있더니,

그리할 제, 소조에서 나를 덕성함으로 오라 재촉하오시니, 그 장

133) 박경신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주)금성출판사, 2002.

한철우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주)문원각, 2002.

홍신선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주)천재교육, 2002.

하신 기운과 부호하신 언사도 아니 겨오시고, 고개를 숙여 침사상량
하야 벽에 의지하야 앉아 겨오신데, 안색을 나오사 혈기 감하오시고
나를 보오시니, 응당 화증을 내오셔 오작지 아니하실 듯, 내 명이 그
날 마치일 줄 스스로 염려하야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사기
생각과 다르오셔 날다려 하시대,

“아마도 고이하니, 자네는 좋이 살겠네. 그 뜻들이 무서외”

하시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허황하야 손을 비비이고 앉았더
니,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를 부르오시다 하니, 이상할손 어이 피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 하시고, 좌우를 치도 아니 하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야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져 하야, 내
인다려,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몽매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뭇거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다리고
오래 살라하기, 내가 오날 나가 죽게 하얏기 사외로와, 세손의 휘항
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게 하얏다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
신이 그 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요, 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아모라타 없었
지.¹³⁴⁾

위의 인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이 작품은 문장과 표현이 고상하고 우아하며, 상황을 절실하고도
간곡하게 묘사하였는데, 거기에다 전아하고 품위 있는 궁중 용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된 궁중 문학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전편
을 통해 흐르고 있는 귀인다운 품위와 예리한 지성과 면면한 정조는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려 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 글은 본래 사적인
입장에서 쓴 것이었다. 그러나 기구한 운명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
실 그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 같고 그 내용 또한 입체적이어서 소설
에 비견할 만하다. 그래서 이 작품을 소설로 분류하는 이도 있다. 여

134) 홍신선 외 공저, 앞의 책, 97쪽.

기에 소개된 부분은 혜경궁 홍씨가 소조(사도세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 글을 읽는 독자도 함께 인생무상을 느끼게 한다.”¹³⁵⁾

그런데 위와 같은 풀이는 학생들이 임오 화변과 『한중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리한 지성과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표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중록』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로 인식될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참고서와 자습서의 내용을 살펴보면¹³⁶⁾, “이 글은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혜경궁 홍씨가 궁중 내에서 벌어진 갖가지 음모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임을 당했던 임오 화변의 역사적 사실을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한 수필이다.”라고 풀이함으로써 『한중록』이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기록인양 설명하여 모든 기록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구절의 문맥 풀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구절1>‘이상할손 어이 피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 하시고;이상하게 피하자고도 달아나자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한 주위에서 시중드는 사람도 물리치지 않으시고.’라는 의미로, 평소와는 다른 사도세자의 행동에 혜경궁 홍씨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풀이는 사도세자의 평소 행동은 극히 비정상적이었는데, 오늘의 행동은 정상적이기에 혜경궁 홍씨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왜곡될 수 있다.

구절2>자네가 아뭏거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다리고 오래 살라하기, 내가 오날 나가 죽게 하얏기 사외로와, 세손의 휘함을 아니

135) 앞의 책, 99쪽.

136) 권일경 외 공저, 『해법 문학』, (주)천재교육, 2004, 210쪽.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게 하였다네

:사도세자의 이 말은 '나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자네는 자네 목숨과 세손의 목숨만을 걱정하니, 참으로 무섭고 못된 사람이네.'라는 의미이다. 사도세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여 자식인 세손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굳이 세손의 휘항을 쓰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학질을 앓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손의 휘항을 쓰고 나가려 한 것은 부왕 영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혜경궁 홍씨가 세손의 휘항은 작으니 세자 자신의 것을 쓰라고 하자 사도세자가 그 말을 오해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보아 평소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세자와 혜경궁 홍씨 사이의 일을 세자의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로 풀이함으로써 앞뒤 문맥의 정확한 의미 없이 현 상황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세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구절3>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아모라타 없었지.:사도세자가 죽게 되면 처자인 자신과 세손의 안녕까지 위태로워질까 봐 걱정했으나 끝내 아무 일 없었다는 의미이다.

⇒세자의 안위에는 걱정이 없고 오직 자신과 세손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혜경궁 홍씨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자신과 세손에게 아무 일이 없자 안심하는 혜경궁 홍씨의 태도에서 이중적 자세를 알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검인정 교과서인 문원각에서 출판한 『문학』 교과서의 수록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자.¹³⁷⁾

137) 한철우 외 공저, 앞의 책, 29쪽.

선회궁께서 병으로 그리신 아드님을 아무리 책망하여도 믿을 것이 없으며, 자모 되신 마음으로 다른 아들도 없이 이 아드님께만 몸을 의탁하고 계시더니 차마 어찌 이일을 하고자 하시리요. 처음은 자애를 반잡지 못하여 이같이 되신 것을 대조께서 미처 깨닫지 못하시니 당신의 종신지통(終身之痛)이 되어 계시나 이미 동궁의 병세가 이토록 극심하고 부모를 알지 못할 지경이니 사심으로 차마 못하여 미적미적하다가 마침내 병 증세가 위급하여 물불을 모르고 차마 생각지 못할 일을 저지르려 하시면 사백 년의 종사를 어찌 하리요. 당신의 도리가 옥체를 보호하옵는 대의가 옳고 이미 병이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몸이 없는 것이 옳고 삼종(효종, 현종, 숙종)혈맥이 세손께 있으니 천만 번 사랑하여도 나라를 보전하기가 이 밖에 없다 하시고, 십삼 일에 내게 편지하시되, '어젯밤 소문이 더욱 무서우니 일이 된 후는 내가 죽어 모르거니와 살면 종사를 붙들어야 옳지, 세손을 구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살아서 빈궁을 다시 볼 것 같지 않소.'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 편지를 잡고 울었으니 그날에 대변(大變)이 날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오.-중략-그날 나를 덕성함으로 오라 호오시니, 그 때 오정 즈음이나 되는데,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경춘전을 예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증조런고?. 고이하여, 그 때 세손이 환경전에 거오신지라, 내 마음이 황황한 중,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세손다려 아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천만 당부하고 아모리 할 줄을 모르더니, 거동이 지체하여 미시 후나 휘령전으로 오오시는 말이 있더니, 그리할 제, 소조에서 나를 덕성함으로 오라 재촉하오시니, 그 장하신 기운과 부호하신 언사도 아니 겨오시고, 고개를 숙여 침사상량하여 벽에 의지하여 앉아 겨오신데, 안색을 나오사 혈기 감하오시고 나를 보오시니, 웅당 화증을 내오셔 오작지 아니하실 듯, 내 명이 그 날 마치일 줄 스스로 염려하여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사기 생각과 다르오셔 날다려 하시대,

“아마도 고이하니, 자네는 좋이 살겠네. 그 뜻들이 무서워”

하시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허황하여 손을 비비이고 앉았더니,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를 부르오시다 하니, 이상할손 어이 피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 하시고, 좌우를 치도 아니 하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져 하여, 내 인다려,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몽매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뭏거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다리고 오래 살랴하기, 내가 오날 나가 죽게 하얏기 사외로와, 세손의 휘항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게 하얏다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신이 그 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요, 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아모라타 없었지..-하략-

위의 인용문에 대한 학습 활동으로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궁중에서 일어난 비화이다. 이를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다음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묻고 그에 대한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음1>

이 작품은 임금이 사는 궁궐에서 일어난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건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말해보자.

<물음2>임오 화변은 아버지인 영조가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사건이 과연 개연성이 있는 일인지 말해보자.

이 물음에 대한 예시답안으로 교사용 지도서¹³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답안1>

·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행위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사람의 행위일 뿐이다.

138) 한철우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주)문원각, 2002, 351쪽.

· 정치권력이 집중된 궁궐에서는 혈연관계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왕자의 난’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극히 비정상적인 경우일 것이다.

⇒문원각에 수록된 글에는 비교적 임오 화변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혜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시 답안2>

· 궁궐 내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임오 화변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인간들에 의해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 문학 작품 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저버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자식을 죽이는 행위는 정치권력이 뒤엎킨 궁궐 내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임오 화변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 사건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영조와 세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이라고 기술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아, 비정상적인 인간들의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진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차후의 권력자와의 권력 다툼에서 자신의 친정이 피해를 당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중록』의 진정한 집필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록』이 수록된 이들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기 위한 자습서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현행 고등학교에서 『한중록』 교수·학습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디딤돌 문학 자습서에서는 『한중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갈래는 궁중 수필, 성격은 회상적, 애상적, 서사적이며, 주제는 사도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한 작자의 한 많은 삶에 대한 회고”로 보고 있으며, 이해와 감상을 통해 “모든 일이 지나가고 한가해진 틈에 지난날의 처절한 한을 되새겨 보는 작품인 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궁중 용어와 풍속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궁중 문학으로 일컬어진다. 문장과 표현에 있어 고상하고도 우아한 어휘의 사용, 절절하고도 간곡한 묘사, 전아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한글로 된 궁중 문학의 백미”라고 칭송된다. 작품 전편에서 귀인다운 품위와 사실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문체를 보이며, 기구한 내용을 입체적 구성에 담고 있기에 한 편의 소설에 비길 만하다.”¹³⁹⁾

그리고 두산 동아출판사에서 출간한 자습서에 『한중록』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갈래는 한글 수필, 궁정 수필, 수기 형식의 자전적 회고록이며,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전아한 궁중 용어를 사용하고, 절절하고도 간곡한 묘사가 돋보이며, 주제는 임오 화변을 중심으로 한 작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회고로 보고 있으며, 의의로는 한글로 된 궁중 문학의 백미”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한중록」의 특징을 ①사실적인 입장에서 친정과 궁중에 대해 쓴 글로, 과장이나 가식이 없는 수필체의 글이다. ②작자의 기구한 운명의 파란만장함은 사실 그대로가 소설처럼 극적이고 입체적이어서 역사 소설과 같은 흥미를 일으키는 글이다. ③인생무상을 나타내게 되어 인생의 파노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글이다.” 라고 풀이하고 또한, 이해와 감상에서 “이 작품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비통함을 넘두리로 늘어놓지 않고, 일일이 분석하여 전달하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 고백적 회상록이 아니라,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규명하려는 일종

139) 맹용재 외 공저, 『디딤돌 문학』, 디딤돌, 2002, 376-377쪽.

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인 혜경궁 홍씨는 가슴 아프고 통분할 일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자기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태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읽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흔히 이 글을 억울하고 처절한 작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한 주정적인 글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규명하려는 면에서 볼 때는 매우 냉철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읽혀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만큼 작자인 혜경궁 홍씨는 냉정한 태도로 상황과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감정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태도를 잃지 않음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수필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 놓은 글이 아니라, 비록 제재는 개인적인 것일지라도 독자의 보편적인 사고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모범적으로 확인시켜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⁰⁾

물론 이들 두 자습서에서는 비교적 『한중록』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기술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혜경궁 홍씨에 대해 매우 동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나와 왕자 재실에 앉아 계시니, 내 그 때 정경이야 고금 천지 간에 없으니, 세손을 내어보내고 일월이 회색하니, 내 일지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요? 칼을 들어 명을 결단하라 하더니, 방인의 앓음을 인하여 뜻갈지 못하고, 다시 죽고저 하되 촌철이 없으니 못하고, 송문당으로 말매암야 휘령전 나가는 건복문이라 하는 문 밑에를 가니, 아무것도 뵈지 아니코, 다만 대조께서 칼을 두다리오시는 소리와 소조에서 “아바님 아바님 잘못하얏사오니, 이제는 하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오소서” 하시는 소래가 들리니, 간장이 촌촌이 끊어지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두

140) 김철수 외 공저, 『18종 문학종합자습서』, 두산·동아, 2002, 212-214쪽.

다려 아모리 한들 어찌 하리요?¹⁴¹⁾

위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를 “남편인 사도세자가 죽음에 임박하여 몸부림치는 상황을 혜경궁 홍씨가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는 대목이다.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아픔에 혜경궁 홍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들 정도로 비참하고 암담한 마음 상태에 젖어들고, 결국 하늘까지 원망하며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한탄만 할 뿐이다. 남편의 죽음은 곧 아내 혜경궁 홍씨 자신의 죽음과 같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특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손조차 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부분에서 더욱더 슬픔을 자아낸다.”¹⁴²⁾라고 설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중록』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함으로써,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인 임오 화변의 실체를 왜곡되게 받아들일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2) 장르적 성격 규명

『한중록』의 장르적 성격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수필이나 소설로 보는 경향이 짙다.¹⁴³⁾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학이 아닌 실기로 보아 『한중록』의 역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¹⁴⁴⁾

그러나 『한중록』을 수필이나 소설로 보기에겐 역사적 사실 기록이 너무 두드러지고, 실기로 보기에겐 문체면이나 구성상으로 보아 다소 무리가 있

141) 권일경 외 공저, 앞의 책, 212쪽.

142) 위의 책, 212쪽.

143) 앞의 모든 자습서에서는 모두 수필로 취급함.

144) 정은임, 앞의 책.

다.

따라서 본 작품은 문학과 실기적 요소를 두루 갖춘 실기 문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기 문학에 대해서 이채연은 그의 『임진왜란 포로 실기 연구』¹⁴⁵⁾에서 “실기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와 친연성이 있으나, 그 형상화 방법이 역사 기술에 의하지 않고 문학적 기술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이다”라고 전제한 후, 실기 문학의 여러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실기 문학의 장르적 특징으로 첫째, 소재의 역사성과 사실성의 문제를 들고 둘째, 기록자의 作意性의 차이를 셋째, 서술 구조상의 차이를 넷째, 집필 동기와 작가의 작가의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질 때를 실기 문학으로 보았다.

또한 실기문학을 정의하기를 “실기문학은 실존 인물이 전쟁이나 亂,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記, 錄과 같은 문체로 기록·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생체험(生體驗) 중심의 문학”¹⁴⁶⁾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기문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기술하였다.

첫째, 실기문학은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작가가 경험한 생생한 현장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포착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현장에서 느낀 개인적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문학이다.

둘째, 실기 문학은 역사 현장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그것을 통한 효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사에 경사되어 있으나, 작가의 개인적인 정서를 중

145)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94쪽.

146) 이채연, 위의 책, 115쪽, 12째 줄.

시한다는 측면에서 문학작품이다.

셋째, 실기문학의 서술자는 1인칭의 체험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실제 작가와 동일한 인물이다.

넷째, 실기문학의 서술은 보고적 서술과 장면적 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양자의 표현법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쪽으로 경사된 경우도 있다.

다섯째, 실기문학은 연대기적 시간 질서에 따라 서술되면서도 작가가 체험한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완결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실기는 역사, 역사 소설과 같이 효용론적 태도를 지향한다.¹⁴⁷⁾

또한 이채연은 실기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실제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한 후, 개별 작품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기문학을 경험 주체와 서술 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라 협의의 실기와 광의의 실기로 나누는데, 협의의 실기는 경험 주체와 서술 주체가 일치하는 것이고, 광의의 실기는 경험 주체와 서술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중록』을 궁중 비사를 다룬 협의의 실기로 구분하고 있다.¹⁴⁸⁾

그런데 실기에서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건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주변의 상황에 적응해가는 인간 개체의 삶의 고뇌와 경험의 질적 가치가 어떻게 향상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기의 대상은 반드시 자기가 경험한 것이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7) 이채연, 위의 책, 11-116쪽.

148) 이채연, 위의 책, 118쪽.

또한 실기의 작품 소재는 객관적면서도 검증 가능한 일차적인 사실에 국한되어야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작자의 감정과 사상에 대해 정서적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실기에서 서술자는 대부분 1인칭의 체험자적 시각을 견지하고, 서술자는 작품의 전면에 나타나 자신의 태도, 감정, 가치 판단, 인생관 등을 보고 느낀 것에 따라 숨김없이 진술한다. 그러는 한편 실기에서는 작가와 서술자는 동일인이 될 뿐 아니라, 서술자의 목소리가 강화됨으로써 객관성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실기는 역사와 달리 역사 현장에서 어느 중요한 사건만을 다루면서도 그 사건의 종료 때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바로 이 점이 실기에서 다루는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요소가 가미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실기의 작가는 역사에 관한 관찰자적 태도를 지양하고,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참여하는 자신의 생활을 문면에 그대로 표출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주는데, 이 점에서 『한중록』이 바로 실기적 요소를 두루 갖춘 작품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중록』이 실기 문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는 字意的인 해석에 치중하여 『한중록』을 실기문학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해 왔다. 『한중록』을 실기 문학으로 처음 규정한 분은 김용숙과 조동일이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채연의 「임진왜란 포로 실기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한중록』을 실기문학이라고 규정한 이채연의 연구는 탁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록』은 임오 화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임오 화변의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인 혜경궁 홍씨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시의 역사적 사

실을 기술하면서도 자신의 친정 가문이 임오 화변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친정 가문을 신원해 주어야 한다고 당시의 군주이자 손자인 순조에게 탄원하는 탄원서 성격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록』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실기이면서 문학적 성격이 가미된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실기 문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집필 의도의 교수·학습

1) 집필 의도의 전달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조의 편집증적인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과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의식이 사도세자의 성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둘째, 사도세자는 영명하고 예질이 뛰어났으나 어렸을 적, 경종의 비 처소인 儲承殿에서 경종비 어대비 나인들에게 양육됨으로써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口腔期와 肛門期를 잘못 보냄으로써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신경증적 공황 반응을 가져와 발작적 증세나 낭비 등의 돌발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다.

사도세자의 성격 형성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의해 살펴보면, 세자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힘이 강한 이드(id)의 지나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드(id)는 행동을 통한 긴장의 방출이나 원망의 충족

혹은 자아(ego)의 영향력에 굴복하는 방법으로 해소시켜야 하는데, 그는 어릴 때 잘못 형성된 이드(id)를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함으로써 긴장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요구가 많게 되고, 상상이나 환상, 혼각, 꿈 등에 의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 그의 행동은 귀신이 나타난다고 하여 玉樞經을 외거나, 관속에서 생활하는 등의 정상인이 보면 극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혜경궁 홍씨는 이러한 세자의 행동이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며, 그래서 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흥봉한은 음식에 의해 종9품 말단 관리로서 세자빈 간택에 응하게 되는데, 이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 즉 그는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자 딸에게 이르기를 家國을 위해 힘쓸 것을 부탁하는데, 나라보다 집안을 앞세움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당리당락에 얽매어 자신의 사위인 세자가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자 이전에 사위의 구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장인의 태도를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세자는 자신이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가까이 있는 장인보다 멀리 떨어진 춘천에 있던 조재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려하나 그마저 실패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또한 일국의 세자가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일국의 영상이며 세자의 장인인 흥봉한은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따라서 훗날 정조 등극 후 그는 수많은 탄핵을 받아 모든 죄의 원천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할 정도였다.

넷째, 흥인한 또한 세자를 죽게 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노론 벽파의 영수로 세자를 사지에 몰아넣은 대표적 인물이며, 심지어 세손의 등극까지도 방해한 인물이었다.

다섯째, 혜경궁 홍씨 또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는 정조가 친정아버지 홍봉한을 도록 내고자 할 때, 아들인 세손의 등극이 어려울 때는 단식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켰지만, 남편의 죽음에는 별반 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는 아버지 홍봉한과 함께 자신의 친정 가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한중록』에서는 친정을 위해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 썼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을 살펴본 결과 『한중록』의 집필 의도는 위기에 처한 자신의 친정 가문을 구하고자 순조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 순조로 하여금 중부와 숙제 등을 신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작품을 가르칠 때 이 점을 심분 이해하도록 주지시켜 작품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보다는 작품 속에 나타난 이면적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록』에 나타난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른 기록을 비교·검토해 보면 혜경궁 홍씨가 얼마나 자신의 친정 가문을 위해 자신의 주관적 잣대로 기술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고전 문학 작품의 정확한 집필 의도와 작품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진실성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앞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요즈음의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고전 작품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한 올바른 고전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2) 주요 부분의 교수·학습

지난 6차 교육과정이나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고교문학 수업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당신은 妙理있게 아뢰노라 한 말씀이 蒙上文(필자=같은 낱말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생기는 오해)하여 문자오신 세 마디를 가지고 대담한 세 마디가 되었으니, 妄發이라 하면 그는 죄이거니와, 그로 역적이 되기는 천만 애매하고 천만 원통하니, 당신이 비록 被禍를 하였으나 지하에선들 어찌 눈을 감으며 마음에 항복하리오.”¹⁴⁹⁾

이 부분에 대해 현행 교재에서 수업 내용은 밑줄 친 부분을 해경궁 홍씨의 주장대로 자신의 증부인 홍인한의 말에 중의적 표현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앞장 홍인한의 조150)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다.

또한 아래의 인용문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해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를 알 수 있다.

그해 臘月에 詔勅이 나오니 自上으로써 세손을 데리시고 혼궁에 오서 칙조를 받자오시고, 환궁 때 세손을 도로 데리고 가라 하오시다가 세손이 어미 떠나기를 차마 결연하여 우는 양을 보시고 하시되, “세손이 너를 떠나기 차마 못하여 저리하니 두고 가자.” 하시니, 혹 당신은 慈愛하시는데 세손이 慈愛는 생각지 아니하고 어미만 못 잊어하는가 서운히 여기실 듯하여 아뢰옵기를 “내려오오면 위가 그림자와 이리하올 것이니 데려 가옵소서.” 하니, 즉시 화안하오서

149) 정은임, 앞의 책, 136쪽.

150) 『영조실록 51년』, 11월 20일, 기사 등.

“그러하라.” 하시고 데리고 還宮하시니, 세손이 모시고 가며 어미 인정없이 떠나 보내는 일을 섭섭하여 무수히 울고 가시니 내 마음이 어떠하리오마는, 그리는 것은 私情이요 모시고 가 侍奉하여 그 아버님 못 다하신 子道를 잇는 것이 옳고, 정사며 나라 일을 배워 아는 것이 옳기 떠날 제 못 잇는 정을 배어 보내니, 이것이 다 이전 일을 정계하고 세손으로 하여금 일심으로 위에 효성을 다하여 자애하시는 성의를 一毫도 어김이 있을까 염려함이니, 이 어찌 세손 위한 私情일 뿐이리오. 宗國 안위가 세손 한 몸에 있으니 나의 동동한 마음이 하늘에 質正할 것이요, 이 홀로 내 마음뿐 아니라 이 다 선친이 나를 인도하여 부녀의 細瑣한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의로 面戒하신 힘이니, 우리 先親의 苦心血忠이 곳곳 세손을 위하고 종국을 위하시던 일을 뉘 자세히 알리오. 151)

위의 인용문을 고구해 보면, 혜경궁 홍씨는 모자간의 사정보다는 대의를 위하여 아들을 할아버지의 품으로 보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홍씨가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홍봉한의 고심혈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여 당시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아들인 산(=정조)을 데리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경궁 홍씨는 정치적으로 노획한 홍봉한의 충고를 받아들여 겉으로는 왕에게 충과 효를 다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홍봉한은 세자빈 간택 때부터 가문을 일으킬 야심에 차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 세자빈 책봉 후 입궐하는 딸에게 이른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三殿 섬기움을 삼가고 조심하여 효성을 힘쓰시고, 동궁 섬기움을 반드시 옳은 일로 돌삼고 말씀을 더욱 삼가 家國의 복을 닦으소서.” 하고 경계하시던 말씀이 千言萬語이오시니 내 공경하여 듣잡는 중

151) 정은임, 앞의 책, 310쪽.

울음을 그치지 못하니, 그 때 심사야 복석인들 어찌 감동치 아니하리오.152)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세자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왕실의 안녕과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먼저 닦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세자빈 책봉 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진 과거 시험에도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며, 처음부터 자신의 집안과 가문의 영광만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홍봉한의 처지와 당시의 상황이 맞물려 세자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삼전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동궁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여 눈물로 지새웠다고 가르친다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괴리된 교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혜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는 더욱 명백히 밝혀진다.

舉動을 들으시고 恐懼하여 아무 소리도 없이 “器械와 말을 다 감추어 경영한 대로 하라.” 하시고, 交子 타시고 경춘전 뒤로 가시며 나를 오라 하시니, 근래 눈에 사람 곧 아니 뵈이면 일이 나니 교자에 가마두에 하고 四面帳을 치고 다니시고, 춘방관과 밖엔 또 학질이 있다 하여 계시더니 그날 나를 德成閣으로 오라 하오시니. 그 때가 오정 쯤이나 되는데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개 慶春殿을 에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徵兆런고. 괴이하여 세손이 환경전 계신지라. 내 마음이 遑遑한 중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세손더러 “아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1) 천만당부하고 어찌 할 줄 모르더니, 舉動 이 어찌 遲滯하여 未時 후나 휘녕전으로 오신단 말이 있더니, 그리할 제 小朝께서 나를 덕성함으로 오라 재촉하시기, 가 뵈오니 그 壯하신 氣運과 不好하신 言辭도 아니 계오시고 고

152) 정은임, 앞의 책, 37쪽.

개를 숙여 沈思商量하여 벽에 의지하여 앉아 계오신데, 안색이 놀라 오서 血氣 減하오시고 나를 보오시니 응당 火症을 내오셔 오죽하지 아니하실 듯, 내 命이 그날 마칠 줄 스스로 염려하여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辭氣 생각과 다르오셔, 나더러 하시되 “아마도 怪異하니 자네는 좋이 살게 하였네. 그 뜻들이 무서워.”²⁾ 하시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虛荒하여 손을 비비고 앉았더니, 휘녕전으로 오시고 小朝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할 손, 어이 “파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하시거, 左右를 치도 아니 하시거 조금도 火症내신 氣色없이 썩 龍袍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오라.” 하시거³⁾,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자 하여 내인더러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夢寐 밖에 썩 하시거 “자네가 아무키나 무섭고 凶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하기.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 사외로워 세손의 휘항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겠네.”³⁾ 하시니,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은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오, 우리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아무렇다 없었기 천만 의외의 말씀을 하시니, 내 더욱 서러워 다시 세손 휘항을 갖다 드리며 “그 말씀이 하 마음에 없는 말이시니 이를 쓰소서.” 하니 “싫어! 사외하는 것을 썩 무엇할꼬.” 하시니, 이런 말씀이 어이 병환드신 이 같으시며, 어이 공순히 나가려 하시던고. 다 하늘이니 冤痛冤痛하오다.¹⁵³⁾

상기 인용문은 6차 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¹⁵⁴⁾

이 부분의 밑줄 친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혜경궁 홍씨는 이미 세자가 죽을 것임을 알고 세손 (=훗날의 정조)에게 마음을 다 잡아 먹으라는 뜻으로 가르쳐야 하고,

153) 정은임, 앞의 책, 298쪽.

154) 금성출판사, 문원각, 천재출판사에서 출간한 검인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됨.

밑줄 친 2)는 혜경궁 홍씨는 살게 되겠고, 그 뜻이 무섭다는 것에서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노론측 사람들이 세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뜻
이 무섭다는 것으로 가르쳐야 한다.

또한 밑줄 친 3)의 경우 세자가 자신이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으나, 밑줄
친4)에서 혜경궁 홍씨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문맥적인 면만을 살펴보면, 세자는 단순히 세손의 휘항을
쓰지 못 하게 하는 혜경궁 홍씨의 당일의 행동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 동안의 처가에 대한 감정과 노론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이
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혜경궁 홍씨 『한중록』 곳곳에서 임오 화변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
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임오년 사건에 대해 혜경궁 홍씨는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
을 증명하는 기록을 남겨 두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
명하기 위해 조재호를 부르러 보낸 일에 대한 정황 기록이다.

즉 영조 38년 임오년에 영빈 이씨가 사도세자의 大處分을 영조에게 건의
한 후의 상황을 아주 소상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한중록』에
도 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大朝께서 듣자오시고, 조금도 遲滯하시며 자처하시지 아니하오
시고 창덕궁 舉動을 급히 내오신지라. 선회궁계오서 割慈忍情하여
大義로 말씀을 아뢰시고 인하여 堆胸殞絕하오셔, 당신 계시던 양덕당
에 오셔 廢食濟臥하시니 만고에 이런 情理 어디 있으리오. 전부터 선
원전 舉動하오시는 길이 두 길이니 만안문으로 드오시는 거동은 탈
이 없고 경화문 舉動이신즉 탈이 나는지라. 거동령이 경화문으로 나
오시니, 그날 小朝께서 십일일 夜는 수구로 다녀오셔 몸을 빠치오시
고 십일일을 통명전 계신데 그날 들보에서 부러지는 듯이 壯히 소리가
나니, 들으시고 歎息하시되 “내 죽으려나 보다. 그 어인 일인고.”

하시고, 그때 先親이 宰相으로서 첫 오월에 嚴旨를 만나서 罷職하시고 東郊에 달작시나 나가 계시니 小朝께서 당신이 스스로 危殆하셨던지, 조재호가 原任大臣으로 춘천에 있으니, 계방(필자=세자 익위사의 별칭) 조유진으로 하여금 말을 통하여 올라오라 하신다 하니, 이런 일을 보면 병환 계신 이 같지 아니하니 이상한 하늘이로다.¹⁵⁵⁾

위의 글을 살펴보면, 세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신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줄 사람은 춘천에 낙향해 있던 조재호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조유진을 보내어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조정의 실권은 노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자는 자신의 목숨이 달린 화급한 일에 자신의 장인인 홍봉한보다는 멀리 있는 조재호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세자 자신이 이미 혜경궁 홍씨나 홍봉한 등의 홍씨 일문이 자기에게 결코 우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자신의 사위인 세자의 목숨이 풍전등화의 시기에 달포가 넘도록 동교에 가 있으면서 소일했다는 혜경궁 홍씨의 기록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자빈 혜경궁 홍씨의 태도 또한 남편의 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 위의 인용문은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을 아뢰고 대처분(필자=세자를 죽이는 일)을 해 달라고 아뢴 후의 일로서 남편의 목숨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을 때,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어거늘 하물며, 남편이 살아남기 위해 아들의 휘항을 쓰려고 하니 그것마저 거절하는 냉정함을 보인다.

그러는 한편 세자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서도 양육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155) 정은임, 앞의 책, 297쪽.

幼時에 德氣 이상하오시고 行動이 有法하여 常없지 아니하오시고, 氣像이 嚴重하오시고 언어 沈默하셔 뵈옵는 이 어른 임금 모시나 다르지 않게 여기더라 하니, 이러하신 天稟에 이 資質로 부모 측을 떠나지 마오시고 부왕께오서는 萬機 여가에 글 읽고 배우심을 곁에서 몸으로 가르치시고, 母嬪께오서라도 이 아드님 成就하는 일어 당신께 으뜸 所念이시니 손 밖에 내지 마오시고 일을 따라 指教하셔, 일변 嚴毅하오시고 일변 친애하오사 翕然히 사이가 없사오시고 任他케 마오시더면 일이 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오.

최초 일인 즉 섭고 애달픈 것이 하나는 어리신 아기를 儲承殿에 멀리 두심이요, 들은 怪異한 나인 들여오신 緣故니 여편네 小瑣한 말이 아니라, 사실의 비릇함을 대략 거드노라. 儲承殿인즉 즉 어대비(필자=경종의 계비 선의 왕후 어씨) 계오시던 집인데 아니 계오신지 오래지 아니하고, 儲承殿 저 편 就善堂이라 하는 집은 희빈(필자=장희빈)이 甲戌 후 머물러 인현성모(필자=숙종의 계비 인현왕후) 嘔呪하던 집인데, 襁褓의 아기내를 황량한 존각에 혼자 두오시고, 희빈 처소는 燒廚房을 만들어 잡수는 음식 처소를 삼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니리오. 어대비 國恤 삼년 후 어대비 부리시던 內人들이 다 밖으로 나갔더니, 동궁 排辦할 제 채면 있게만 하려 하오시되 各處 內人이 搜召는 하거니와 어찌 하오신 성의오신지 景廟와 어대비전 나인 나간 것을 최상궁 이하로 다 불리들여 원자궁 나인을 만드시니, 處所 內人들 모양이 景廟 계오신 듯싶을 것이요, 그 나인들의 氣勝하고 정 없기 이를 것이 없어 至微至細한 일로 비로소 탈이 나시니 어찌 한 되지 않으리오.¹⁵⁶⁾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세자의 성격적 잘못을 저승전에 있던 상궁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들이 소론에 가까웠던 경종의 나인들이었기에 그렇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노론인 자신의 천정 가문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와 왕자 재실에 앉아 거시니, 내 그 때 정경이야 고금 천지 간

156) 정은임, 앞의 책, 226쪽.

에 없으니, 세손을 내어보내고 일월이 회색하니, 내 일시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요? 칼을 들어 명을 결단하라 하더니, 방인의 앓음을 인하여 뜻 같지 못하고, 다시 죽고저 하되 촌철이 없으니 못하고, 숭문당으로 말미암아 휘령전 나가는 건복문이라 하는 문 밑에를 가니, 아무것도 보지 아니코, 다만 대조께서 칼을 두다리오시는 소리와 소조에서 “아바님 아바님 잘못 하얏사오니, 이제는 하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오소서” 하시는 소래가 들리니, 간장이 촌촌이 끊어지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두다려 아모리 한들 어찌 하리요?157)

위의 글에서 혜경궁 홍씨는 남편의 죽음을 망극지한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천정 가문을 신원하기 위한 노획한 위선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날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호오시니, 그 때 오정 즈음이나 되는데,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경춘전을 에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증조런고?. 고이하여, 그 때 세손이 환경전에 겨오신지라, 내 마음이 황황한 중,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세손다려 아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천만 당부하고 아모리 할 줄을 모르더니, 거동이 지체하여 미시 후나 휘령전으로 오오시는 말이 있더니,

그리할 제, 소조에서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재촉하오시니, 그 장하신 기운과 부호하신 언사도 아니 겨오시고, 고개를 숙여 침사상량해야 벽에 의지하여 앉아 겨오신데, 안색을 나오사 혈기 감하오시고 나를 보오시니, 응당 화증을 내오셔 오작지 아니하실 듯, 내 명이 그날 마치일 줄 스스로 염려하여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사기생각과 다르오셔 날다려 하시대,

“아마도 고이하니, 자네는 좋아 살겠네. 그 뜻들이 무서외”

하시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허황하여 손을 비비이고 앉았더니,

157) 권일경 외 공저, 앞의 책, 212쪽.

휘령전으로 오시고 소조를 부르오시다 하니, 이상할손 어이 피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 하시고, 좌우를 치도 아니 하시고, 조금도
화중 내신 기색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 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저 하여, 내
인다려,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몽매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몽거나 무섭고 흉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다리고
오래 살라하기, 내가 오날 나가 죽게 하얏기 사외로와, 세손의 휘항
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게 하얏다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
신이 그 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요, 우리의 모자의 목숨이 어떠할런고? 아모라타 없었
지.¹⁵⁸⁾

천재 교육에 수록된 이 글에 대한 내용 학습으로,¹⁵⁹⁾

3.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사적(史的) 자료를 찾
아 설명해 보자. 그리고 자료의 진술 방식과 이 글의 문체를 비교한 후, 수
필 문학이 지닌 문체의 특징을 말해보자.”에 대한 활동의 취지와 지도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사도세자가 원통하게 죽임을 당한 임오 화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조 38년 임오년(1762)에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하는데, 이렇게 된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궁중 내의 음모와 당쟁이 자리 잡고 있다.

영조에게는 이미 정빈 이씨 소생의 세자가 있었으나 10세에 죽고 만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은 자기파의 종가(宗家)중에서 세자를 추대하였
으나, 영조는 이를 물리치고 영빈 이씨 소생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데

158) 홍신선 외 공저, 앞의 책, 97쪽.

159) 홍신선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2002, 126
쪽.

이가 바로 사도세자이다.

노론은 새로 책봉된 세자를 중심으로 소론을 물리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온갖 음모를 꾸며 세자를 괴롭혔으며 마침내 영조 38년(1762)에 윤급이 나경언을 시켜 왕에게 세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참언하게 하였다. 이에 영조는 분노하여 결국 세자를 폐위시켜 서인으로 만들었다. 세자는 영조에게 변명하나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원통하게 죽게 하였다.

이러한 사적 자료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찾아본 이후 모둠별 또는 개인별 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역사적 사실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어떤 면모를 보이는지, 드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혜경궁 홍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며, 모든 것을 당쟁간의 불화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집필의도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리고 적용 학습에서는

1.“이 글이 조선조의 생활상과 시대 상황을 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지 말해보자.”라고 물은 후 예시 답안으로

“이 작품은 궁중의 귀인이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과 생활·정서 등을 소재로 하여 진은 궁정 문학(宮廷 文學)에 속한다. 이러한 궁정 문학 작품은 객관적으로 서술된 역사적 기록물들과는 달리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당시의 궁정 생활과 사건의 비화, 귀인들의 세세한 정서 등을 살펴보는 데 유익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임오 화변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의 전모를 생생한 목격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한중록』은 역사적 인물의 글이라는 점에서, 더욱이 그가 비빈이라는 사실에서, 정계야화(政界野話)로서 역사의 보조 자료가 된다. 임오 화

변에 대한 사관을 재검토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기 문학이다. 또한 이 작품은 여류 문학, 특히 궁정 문학이라는 점에서 궁중 용어, 궁중 풍속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를 비롯한 등장인물 가운데 전통 사회의 규범적 여인상의 전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이 작품은 우리 고전 문학의 백미(白眉)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하여 학생들에게 이 작품의 내용이 완전히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록』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 학생들로 하여금 『한중록』의 모든 기록을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적용 학습 2번 문제에서는

2.“이 글은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는 지어미의 인간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지은이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품위 있는 문체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보아, 문학은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 설명해 보자.”라고 한 후, 이 물음에 대한 예시 답안으로

“이 작품은 임오 화변이라는 미증유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궁중 내의 음모와 당쟁, 작자 혜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기구한 삶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입체적이어서 소설과 비견될 만하다. 작품의 소재 자체가 임오 화변이라는 매우 비극적인 궁중 사건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기박한 운명을 지니고 살게 되는 작가의 삶이 절실하고도 꼭진하게 묘사되고 있는 이 작품을 사적 소설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아무튼 『한중록』은 소설로 볼 만큼 문장이 사실적이고 박진감이 넘치며, 이에 더하여 우아하고 섬세한 문체는 옛 귀인들의 전아한 품위를 풍기고 경어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한중록』에 관한 『문학』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게 되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한중록』의 올바른 집필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현행 김인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한중록』을 집필한 혜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과리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한중록』에 관한 진실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혜경궁 홍씨의 집필 의도는 올바르게 규명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본고가 갖는 참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간단한 학습지도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3) 학습 지도안

학습 지도안의 학습 내용은 (주)천재교육 『문학(하)』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을 인용하여 학습 지도안을 짜본다.

舉動수를 들으시고 恐懼하여 아무 소리도 없이 “器械와 말을 다 감추어 경영한 대로 하라.” 하시고, 爻子 타시고 경춘전 뒤로 가시며 나를 오라 하시니, 근래 눈에 사람 곧 아니 뵈이면 일이 나니 교자에 가마두에 하고 四面帳을 치고 다니시고, 춘방관과 밖엔 또 학질이 있

다 하여 계시더니 그날 나를 德成閣으로 오라 하오시니. 그 때가 오정쫄이나 되는데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慶春殿을 에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徵兆런고. 괴이하여 세손이 환경전 계신지라. 내 마음이 遑遑한 중 세손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세손더러 “아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천만당부하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舉動 이 어찌 遲滯하여 未時 후나 휘녕전으로 오신단 말이 있더니, 그리할 제 小朝께서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재촉하시기가 뵈오니 그 壯하신 氣運과 不好하신 言辭도 아니 계오시고 고개를 숙여 沈思商量하여 벽에 의지하여 앉아 계오신데, 안색이 놀라오서 血氣 減하시오시고 나를 보오시니 응당 火症을 내오셔 오죽하지 아니하실 듯, 내 命이 그날 마칠 줄 스스로 염려하여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더니 辭氣 생각과 다르오셔, 나더러 하시되 “아마도 怪異하니 자네는 좋이 살게 하였네. 그 뜻들이 무서워.” 하시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虛荒하여 손을 비비고 앉았더니, 휘녕전으로 오시고 小朝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할 손, 어이 “피차” 말도, “달아나자” 말도 아니하시고, 左右를 치도 아니 하시고 조금도 火症내신 氣色없이 袂龍袍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하시되,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자 하여 내인더러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 夢寐 밖에 썩 하시기를 “자네가 아무거나 무섭고凶한 사람이로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하기,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 사외로워 세손의 휘항을 아니 쓰이라 하는 심술을 알겠네.” 하시니,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은 모르고, 이 끝이 어찌 될꼬 사람이 다 죽을 일이오, 우리 모자의 목숨이 어찌할런고. 아무렇다 없었기 천만 의외의 말씀을 하시니, 내 더욱 서러워 다시 세손 휘항을 갖다 드리며 “그 말씀이 하 마음에 없는 말이시니 이를 쓰소서.” 하니 “싫어! 사외하는 것을 썩 무엇할꼬.” 하시니, 이런 말씀이 어이 병환드신 이 같으시며, 어이 공순히 나가려 하시던고. 다 하늘이니 冤痛冤痛하오다.160)

160) 홍신선 외 공저, 앞의 책, 97쪽.

학습 지도안

제 학기 제 주

단원명	『한중록』	교과 서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차 시	1
본시 지도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한다. 2. 이 작품을 통해 고대 수필이 가졌던 기록문학으로서의 한 영역을 알게 한다. 3. 고대 수필과 현대 수필을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한다. 4. 고전 작품은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정리 단계에서는 현대어로 통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유념한다. 				
평가 와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혜경궁 홍씨의 창작 의도에 관해 생각해 보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2. 임오 화변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토론해 보도록 한다. 				
지 도 내 용				학 습 자 료 및 관 련	
1. 『한중록』에 관해 조사한 바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지명 후 발표				도입(5분) 본시(40분) 『왕조 실록』등 『당의 통략』	
2. 『한중록』의 주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 임오 화변이란 답이 나오면 임오 화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지 다시 질문한다.					
3. 『한중록』에서 말하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말하도록 해 본다.					

<p>- 당파간의 희생물이란 답이 나오면 당쟁에 관해 설명한다.</p>	<p>『연려실기술』등</p>
<p>-이 때 주의할 점은 당쟁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설명한다.</p>	
<p>5. 당시의 궁중 생활과 시대사적 변화 등에 관해 설명한다.</p>	<p>강의 및 지명</p>
<p>6. 먼저 통석을 해 준 후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기 위해 몇몇 학생을 지명하여 부분별로 통석해 보도록 한다.</p>	<p>지명 질문</p>
<p>7.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慶春殿을 에워싸고 우니 그는 어인 徵兆런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본다.</p>	
<p>- 사도세자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함</p>	<p>지명 질문 후 다른 학생을</p>
<p>8. 세손은 누구인가? 훗날의 정조</p>	<p>지명 질문</p>
<p>9. "아무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 천만당부하고 라는 글을 통해 혜경궁 홍씨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p>	<p>교사가 보충 설명</p>
<p>- 이미 혜경궁 홍씨는 남편인 사도세자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다.</p>	<p>지명 후 보</p>
<p>- 그 이유는? 어떻게 알았을까?</p>	<p>충 설명</p>
<p>10. "아마도 怪異하니 자네는 좋지 살게 하였네. 그 뜻들이 무서워."에 담긴 세자의 의중은?</p>	
<p>- 이미 세자는 혜경궁 홍씨와 홍씨의 친정인 풍양홍씨 가문을 비롯한 노론측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있었음</p>	<p>『한중록』과 관련된 문헌</p>

<p>11. “내가 학질을 앓는다 하려하니 세손의 휘항을 가져 오라.”의 의도와 “내가 그 휘항은 작으니 당신 휘항을 쓰시고자 하여 내인더러 당신 휘항을 가져오라 하니,”의 의미는?</p> <p>- 자신이 영조의 노여움에서 벗어나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홍씨의 말은 남편의 구명보다는 세손의 안위와 자신의 친정 가문을 구하고자 하는 의도임</p> <p>12. 『한중록』에 대해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p> <p>- 『한중록』과 관련된 문헌을 통한 이해를 하는 것</p>	<p>자료 제시</p>
<p>진도와 반성 -마무리(5분)</p>	<p>*.학생들이 고전 문학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특히 어휘력에 관한 수준이 낮아 작품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하지 못함.</p>

IV.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한중록』의 집필 의도는 혜경궁 홍씨가 자신의 친정 가문인 풍산홍씨 가문의 정치적 몰락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과 노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남편인 사도세자와 소론의 정치적 의도를 반박하기 위하여 쓴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중록』의 집필 의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조의 편집증적인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과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의식이 사도세자의 성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둘째, 사도세자는 영명하고 예질이 뛰어났으나 어렸을 적, 경종의 비 처소인 儲承殿에서 경종비 어대비 나인들에게 양육됨으로써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口腔期와 肛門期를 잘못 보냄으로써 공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신경증적 공황 반응'을 가져와 발작적 증세나 낭비 등의 돌발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다.

셋째, 흥봉한은 음직에 의해 종9품 말단 관리로서 세자빈 간택에 응하게 되는 데, 이는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적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 즉 그는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자 딸에게 이르기를 家國을 위해 힘쓸 것을 부탁하는데, 나라보다 집안을 앞세움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당리당락에 얽매어 자신의 사위인 세자가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자 이전에 사위의 구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장인의 태도를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세자는 자신이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가까이 있는 장인보다 멀리 떨어진 춘천에 있던 조재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려하나 그마저 실패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또한 일국의 세자가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일국의 영상이며 세자의 장인인 홍봉한은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따라서 훗날 정조 등극 후 그는 수많은 탄핵을 받아 모든 죄의 원천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할 정도였다.

넷째, 홍인한 또한 세자를 죽게 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노론 벽파의 영수로 세자를 사지에 몰아넣은 대표적 인물이며, 심지어 세손의 등극까지도 방해한 인물이었다.

다섯째, 혜경궁 홍씨 또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는 정조가 친정아버지 홍봉한을 도륙 내고자 할 때와 아들인 세손의 등극이 어려울 때는 단식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켰지만, 남편의 죽음에는 별반 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는 아버지 홍봉한과 함께 자신의 친정 가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한중록』에서는 친정을 위해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 썼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을 살펴본 결과, 『한중록』의 집필 의도는 위기에 처한 자신의 친정 가문을 구하고자 순조에게 자신의 뜻을 밝혀 순조로 하여금 중부와 숙제 등을 신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작품을 가르칠 때 이 점을 심분 이해하도록 주지시켜 작품에 나타난 표면적 의미보다는 작품 속에 나타난 이면적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록』에 나타난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른 기록을 비교·검토해 보면 혜경궁 홍씨가 얼마나 자신의 친정 가문을 위해 자신의 주관적 잣대로 기술했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고전 문학 작품의 정확한 집필 의도와 작품에 나타난 사실

에 대한 진실성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즈음의 학생들은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고전 작품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한 고전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올바른 역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한중록』에 대해 단순히 궁중 문학이면서 혜경궁 홍씨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 발휘된 수필로 우아하고 단아한 궁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궁중 문학의 백미라고 극찬만 하였다.

그러한 결과 학생들은 『한중록』의 진정한 내용이나 집필 의도도 모른 채 막연히 임오 화변을 소재로, 한 여인의 일생 중 남편이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하는 장면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 많은 생애를 기록한 책 정도로 각인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게 『한중록』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한중록』의 올바른 집필 의도를 가르쳐야 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의 수업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김인정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한중록』의 작자인 혜경궁 홍씨의 올바른 집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수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중록』에 나타난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른 기록을 비교·검토해 보면 혜경궁 홍씨가 얼마나 자신의 친정 가문을 위해 주관적 잣대로 기술했는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한중록』이 갖는 진정한 집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고, 그에 따라 학생들에게 우리의 고전 문학 작품에 대한 올

바른 수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한중록』을 가르칠 때에는 작품에 나타난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이면적인 의미 파악에 주력하여 역사적 사실과 작품에 나타난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 심분 이해시켜야 『한중록』에 대한 올바른 교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고전 문학 작품의 정확한 집필 의도와 작품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진실성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 본고에서는 어느 개인의 정치적 의도보다는 사건의 진실성 규명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그러한 결과 학생들에게 『한중록』의 진정한 집필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여 교육 현장에서 고전 작품에 대한 올바른 교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참고문헌

- 권일경 외 공저, 『해법 문학』, (주)천재교육, 2004.
- 김용숙, 『이조여인상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1968.
- 김용숙, 『한중록 연구』, 한국연구원, 1983.
- 김용숙, 『한중록연구』, 정음사, 1983.
- 김윤식·김현, 「영·정조에서 4.19에 이르는 한국 문학사2」, 『문학과 지성』, 여름호, 1972.
- 김철수 외 공저, 『18종 문학종합자습서』, 두산·동아, 2002.
- 맹용재 외 공저, 『디딤돌 문학』, 디딤돌, 2002.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조선왕조실록』, 민족문화추진회, 2000.
-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83.
- 박경신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주)금성출판사, 2002.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 역사, 2001.
- 박영규, 『조선의 왕과 외척』, 김영사, 2003.
- 성낙훈, 『한국당쟁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5.
- 송영목, 『조선왕조 야록』, 오늘, 1997.
- 소재영, 「궁정문학의 비극성」, 『민족문화연구3』, 고려대출판사, 1969.
-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1998.
- 유종번, 「한중록 연구」, 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이건창, 『당의통략』, 자유문고, 1998.
- 이규동, 「의대증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69.
- 이관규, 『한국가족의 구조 분석』, 대광문화사, 1986.
- 이금희, 「한중록에 나타난 혜경궁 홍씨의 태도」, 『국어교육95』, 1997.
- 이궁익, 『국역연려실기술』, 민족문화문고, 1967.

- 이능우, 「한중록의 심리 분석」, 『문학 춘추』, 1966.
- 이덕일, 『당쟁으로 보는 조선 역사』, 석필, 1997.
- 이덕일 역, 『현유원 행장』, 석필, 1997.
- 이덕일, 「사도세자의 고백 - 그 여드레 동안...」, 푸른 역사, 1998.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I』, 동방미디어, 2000.
- 이우경, 「한중록에 나타난 四不의 자화상」, 『히화어문논집』, 1986.
- 이은순, 『조선후기당쟁사 연구』, 일조각, 1988.
-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5.
- 이희환,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 국학자료, 1995.
- 정은임, 『교주 한중록』, 이회, 2002.
- 정은임, 『궁정문학 연구』, 솔터, 1992.
-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88.
- 주형예, 「한중록의 서사성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최용기, 「한중록에 나타난 갈등 구조」,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한영우, 『정조의 화성 행차 그 8일』, 효형 출판, 1998.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2002.
- 한철우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주)문원각, 2002.
- 한철우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 (주)문원각, 2002.
-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 홍신선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주)천재교육, 2002.
- 홍신선 외 공저, 고등학교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2002.